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난 주체성 탐색

Exploring the Subjectivity of Marriage Migrant Women's  
self-employed start-up Experience

2024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남 정 연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난 주체성 탐색

Exploring the Subjectivity of Marriage Migrant Women's  
self-employed start-up Experience

2024년 2월

지도교수 박수정 · 김 영 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 국문초록

###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난 주체성 탐색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남 정 연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성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보고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원활하지 않은 한국어 의사소통, 외국인 출신, 여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특히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소외는 이들의 어려움을 더욱 배가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습 속에서 변혁적 주체성이 발현되었다.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에 주목함으로써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나는 내러티브를 탐구하고, 변혁적 주체성의 관점에서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의 내러티브는 어떠한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 탐색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창업과 일반 여성의 창업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의 과정에서 발현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을 그들 삶의 서사적 통일성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내러티브 탐구를 채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5명으로 자영창업한 지 3년 이상인 결혼이주여성이다.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을 기본으로 연구자의 느낌과 전경을 기록한 연구자노트, 자영창업체의 내외부 사진 및



인터넷 신문 기사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별로 이주 이전 이야기, 창업 준비 이야기, 창업 이야기로 탐색하여 기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험은 코로나 19 시기에 자영창업을 했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자영창업체 운영을 만족해했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자영창업체 운영은 미래를 위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나는 주체성의 의미는 첫째, 자아성찰을 통해 비판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의식을 갖는 ‘비판적 의식’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인식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실과 그 현실을 변혁시키는 능력에 대해 이해하고 각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도전과 실천 그리고 몰입을 통한 성장이 ‘삶의 전환’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자격시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취득하는 도전과 실천의 자세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자영창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자유는 힘들어도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영창업체를 운영하며 전문가적 태도와 성실함이 더욱 발전되었으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자신감이 더해갔다. 셋째,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열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상호문화소통’이 도출되었다. 손님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타자지향적인 모습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나라 손님들과 소통의 장을 형성하였다. 또한 먼저 온 이주자로서 고향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체가 되기도 하며, 지역 주민들과는 연대를 꿈꾸는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넷째, ‘정체성 형성’이다.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하며 답을 추구한다. 정체성 형성 과정은 인간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는 권리 밖에 놓인 소수자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자영창업을 실천한 프락시스적인 인간으로 상정하며 변혁적 주체성으로 논의를 확장시켰다. 연구참여자들의 자격증 취득은 곧 배움이며 이는 의식의 비판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문제인식과 성찰, 그리고 실천은 하나의 사이클에서 움직인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자영창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역량 발휘와 성격적 특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영창업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취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경제생활 참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연결망은 직업 및 다양한 생활세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문화적·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 지원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iv
표 목 차 .....	vii
그림목차 .....	viii
부록목차 .....	ix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	7
3. 선행연구 고찰 .....	9
<b>II. 이론적 논의</b> .....	17
1. 결혼이주여성과 자영창업 .....	17
1.1. 결혼이주여성의 일 .....	17
1.2.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	19
2. 주체성에 관한 담론 .....	27
2.1. 주체성에 대한 논의 .....	27
2.2. 프락시스와 주체적인 삶 .....	30
3. 소결 .....	38



<b>Ⅲ. 연구방법</b> .....	40
1. 연구개요 .....	40
1.1. 내러티브 탐구 .....	40
1.2. 연구절차 .....	44
2.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	49
2.1.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 .....	49
2.2. 연구참여자 .....	55
3. 자료수집 및 분석 .....	66
3.1. 자료수집 .....	66
3.2. 자료분석 .....	72
4. 연구 윤리 .....	73
<b>Ⅳ.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내러티브 읽기</b> .....	76
1. 미용실 운영자 연구참여자 A .....	76
1.1. 이주 이전 이야기 .....	76
1.2. 창업 준비 이야기 .....	81
1.3. 창업 이야기 .....	86
2. 베트남식당 운영자 연구참여자 B .....	91
2.1. 이주 이전 이야기 .....	91
2.2. 창업 준비 이야기 .....	94
2.3. 창업 이야기 .....	97
3. 대만식당 운영자 연구참여자 C .....	105
3.1. 이주 이전 이야기 .....	105
3.2. 창업 준비 이야기 .....	108
3.3. 창업 이야기 .....	109
4. 커피숍 운영자 연구참여자 D .....	118
4.1. 이주 이전 이야기 .....	118
4.2. 창업 준비 이야기 .....	122
4.3. 창업 이야기 .....	126





5. 네일숍 운영자 연구참여자 E .....	132
5.1. 이주 이전 이야기 .....	132
5.2. 창업 준비 이야기 .....	136
5.3. 창업 이야기 .....	139
6. 소결 .....	146
<b>V. 자영창업 내러티브에 나타난 주체성의 의미 .....</b>	<b>152</b>
1. 비판적 의식 .....	155
1.1. 비판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봄 .....	156
1.2. 삶의 목표 의식 .....	161
2. 삶의 전환 .....	176
2.1. 도전과 실천의 자세 .....	178
2.2. 몰입을 통한 개인의 성장 .....	182
3. 상호문화소통 .....	189
3.1. 고객과의 상호작용 .....	190
3.2. 열린 공동체로서의 역할 .....	192
4. 정체성 형성 .....	199
4.1. 여성으로서 정체성 .....	200
4.2. 언어문화로서 정체성 .....	210
5. 소결 .....	215
<b>VI. 결론 .....</b>	<b>220</b>
1. 요약 .....	220
2. 논의 및 제언 .....	222
<b>참고문헌 .....</b>	<b>230</b>
<b>ABSTRACT .....</b>	<b>251</b>
<b>부록 .....</b>	<b>254</b>



## 표 목차

<표 III-1> 연구참여자의 특성 .....	61
<표 III-2> 연구참여자 심층면담 일정 .....	69
<표 V-1>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의 의미 .....	154
<표 V-2> 연구참여자들의 비관적 의식 .....	156
<표 V-3>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전환 .....	178
<표 V-4> 연구참여자들의 상호문화소통 .....	189
<표 V-5> 연구참여자들의 정체성 형성 .....	200



## 그림 목차

[그림 III-1] 연구절차 .....	45
[그림 III-2] 자료수집 유형 .....	67
[그림 IV-1] 연구참여자 A의 미용실 내부 모습 .....	88
[그림 IV-2] 연구참여자 B의 식당 전면 .....	98
[그림 IV-3] 연구참여자 B의 식당 내부 .....	98
[그림 IV-4] 연구참여자 B 식당의 제단 .....	101
[그림 IV-5] 진열되어 있는 물품 .....	101
[그림 IV-6] 연구참여자 C의 식당 중앙 .....	111
[그림 IV-7] 연구참여자 C의 식당 입구 .....	111
[그림 IV-8] 연구자의 대만식당 식사 이용 .....	113
[그림 IV-9] 연구참여자 C의 식당 메뉴판 .....	116
[그림 IV-10] 무역회사 홍보 배너 .....	116
[그림 IV-11] 카페 안의 손님들 .....	131
[그림 IV-12] G7 커피 .....	131
[그림 IV-13] 카페 내부 .....	132
[그림 IV-14] 카페 외부 .....	132
[그림 IV-15] 고객 응대 중인 연구참여자 E .....	143
[그림 IV-16] 발 관리 중인 연구자 .....	143
[그림 V-1] 일본 네일아트 디자인 .....	164
[그림 V-2] 연구참여자 E의 네일아트 디자인 .....	164
[그림 V-3] 음식 픽업대 예시 .....	188
[그림 V-4] 연구참여자 B 식당의 음식 픽업대 .....	188



## 부록 목차

<부록 1>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	254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누군가에게 종속당하거나 혹은 억압받으며 사는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자신이 디자인하고 꿈꾸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 역시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무수히 많은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나를 나다움으로 이끌어내는 방편이 되기도 하며,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이때 경제적으로 자립한 주체는, 즉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주체를 더욱 견고히 한다. 나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경제적 안정을 이뤄나가는 주체는 자신을 비롯한 주변환경 및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일은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고, 삶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이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기를 만들어 가는 주체적인 삶의 과정이다.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 자신의 존재성을 자각했을 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진다. 인간에게 있어 일이란 생존 유지의 수단과 자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현길언, 2015: 58). 이렇듯 일은 생계유지, 사회적 연결, 자기실현의 수단(Blustein, 2006, 2008)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현대는 국내외 이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초국적 이주가 보편화되었다. 유네스코는 ‘지속가능개발 목표’ 의제에 이주에 관한 사항을 넣음으로써 이주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김영순, 2018; IOM, 2019). 초국적 이주는 크게 경제적, 국가 행정적, 인구학적, 분쟁, 환경적, 다국가적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경제적 요인은 이주자들의 정착 희망국과 본국에서 삶의 질과 임금의 차이에 토대를 둔다. 둘째, 국가·행정적 요인은 부실한 정부, 부패한 권력층, 그리고 좋은 교육체제의 동경과 건강 관련 시설의 부재와 관련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주 희망자가 증가하게 된다. 셋째, 인구학적 요인은 선진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감퇴로 인근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후진국으로부터 인구 유치에 기인한다. 넷째, 국가 내 내전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쟁, 인종과 종교 등의 차별에 따른 자유와 해방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이주가 일어난다. 일어난다. 다섯째, 환경적 요인은 산업재해, 지진이나 홍수 및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 여섯째, 다국가적 네트워크 요인은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이 이주를 부추기는 데 촉매 역할을 하는 것과 관계있다(김영순, 2020: 125).

한국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차원에서 정부의 보이지 않는 국제결혼 정책이 뒷받침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한국 사회로의 결혼이주 현상이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늘어난 해외 이주와 관련된다(류유선, 2021).

글로벌 이주는 개인과 국가, 나아가 세계가 복잡하게 연결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주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이주민 개인의 선택이나 개별국가의 정책, 세계적 트렌드로만 보기에선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 대부분의 인간 삶이 그렇듯이 이주민의 삶 또한 이주할 당시의 목적에만 맞게 살아지지 않는다. 생애과정에서 생기는 목표에 따라 생애 기획 및 목적이 변경되고 이주 목적 또한 변경된다. 따라서 결혼을 주목적으로 한 결혼이주여성과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이주여성노동자를 구분하여 범주화하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노동을 위해 호주로 이주한 아시아 여성들 가운데 시민권 확보 전략의 하나로 결혼을 이용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시민이자 엄마, 부인이주노동자라는 중첩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Piper et al., 2003).

이주민의 경제활동 참여 역시 이주민 개개인의 이주배경과 한국 사회, 출신국, 세계 경제가 씨줄과 날줄로 교차된 현장이다. 또한 출신국의 가족과 새롭게 형성된 가족의 경제적 상황, 개인과 가족의 미래계획, 자아실현 등 다양한 맥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류유선, 2021).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은



경제적 독립이나 본국과 한국 가족의 경제적 지원 외에도 이를 통한 가족의 인정, 자기 정체성의 확인, 사회적 역할 및 승인과 연계된다. 취업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높이고 타 문화에서 경험하는 소외와 우울, 고독 등의 감정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취업은 한국인 되기 및 역량 강화의 의미이기도 하다. 즉 경제활동의 주체가 됨으로써 한국인이라는 감각을 획득하는 것이다(황정은·한송이·김효진, 2017). 이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역사회 정착에도 큰 영향을 미쳐(김연화 외, 2018; 김현희·홍달아기, 2016; 여성가족부, 2018, 2021) 긍정적인 사회통합에 일조한다.

그러나 생계유지와 가족부양,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취업욕구와 달리 실제 취업률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연화, 외, 2018; 김현희·홍달아기, 2016). 2021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81.0%가 한국에서 취업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고용률은 57.0%이며 2015년 대비 2.5p, 2018년 대비 5.5p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이 주로 비정규직 혹은 파트타임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만족도 유무에 따른 근무지 이탈 현상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 특성은 시간당 임금은 낮으나 장시간 노동으로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sup> 이들 일자리는 인적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언어·문화적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초등학교)의 원어민 강사나 다문화강사, 이중언어강사, 통·번역사 등과 민간부문의 외국어 강사, 여행 통역 가이드, 전문 통·번역사 등은 전문직 및 관련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 직종의 분포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자리가 근로 시간이 짧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낮은 것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로 일하는 일자리에 다수가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양인숙·민무숙, 2010). 이러한 직업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

1) '21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근로는 74.1%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



주여성을 배려하여 일정 부분 배분하는 형식이므로 고정 수입원이 되기 어려우며, 새롭게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육수현, 2021).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취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이들 기관은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육수현, 2021). 이처럼 공공기관의 취업프로그램 제공과 일자리 창출의 노력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김효순, 2013; 박미숙, 2014). 2021년 전국의 다문화가정 15,578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 중 미취업 인구는 35.5%였으며, 취업인구 64.5% 가운데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35.9%를 차지하는 반면 상용근로자는 47.7%에 불과했다(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수치는 국민 일반 상용근로자(54.6%)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고 임시근로자는 많으며 일용근로자 역시 월등히 많은 점을 의미한다. 자영업자 역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일반과 비교했을 때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종사상 지위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한국다문화연구원(2017)은 충남지역 15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취·창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은 90.7%에 육박했으나, 전체의 41.3%는 한국에서 한 번도 경제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적 자립은 여성뿐만 아니라 개인 생존에 필수적 요소다. 언어와 문화, 국적이 다른 이주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겪는 어려움으로는 원활하지 않은 한국어, 낮은 학력, 자녀양육, 집안일 병행 등으로 다양하다(여성가족부, 2018, 2021; 유진희, 2014: 15).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한정적이며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시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출신국에서의 노동 경험이나 교육은 한국에서 인

2) 무급가족종사자는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적합한 일자리 찾기 및 유급 가족종사자 대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받지 않거나 평가 절하되어 한국에서 참여가능한 취·창업 분야는 매우 좁다(육수현, 202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은 원활한 한국생활을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이혜자, 2016: 3).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불안한 일자리와 취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적 자립을 이룸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이민자에게 자영창업은 인종, 민족, 국적, 종교 등의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경제적 신분 상승을 이루는 통로이자(손기영, 2010),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이주 국가에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양인숙·민무숙, 2010; 장명선·이옥경, 2009). 따라서 자영창업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저임금의 불안정한 미숙련 임시직을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주체적 삶의 실현과 성취감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창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지원책은 물론, 관련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창업지원 기관은 드물며 언어적 특수성과 한국사회 적응 정도를 고려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 정책 역시 창업보다는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조상미 외, 2019).

한편 국가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진출 및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장기화와 취업에 대한 욕구, 나이 차에 따른 배우자의 고령화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과 가족이라는 틀을 넘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과, 결혼이주여성 당사자 역시 삶의 역동적인 주체로 설 필요성을 제기한다(강희영 외, 2016: 4).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영창업을 통해 삶의 기반을 닦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디자인해 가는 결혼이주여성의 연구가 필요했다. 결혼이주여성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은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범위 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혁과 발전과 품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강신주 외, 2014: 219) 이 연구는 더욱 절실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여건 가운데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성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삶의 궁극적인 동력은 자신을 표현함에 있다. 그래서 자신을 침해하는 어떤 것에도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주체성과 존엄을 침해하는 것에는 거침없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강신주 외, 2014: 227). 이에 본 연구는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주체적인 여성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주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존의 정책 지향적 접근에서 벗어나(최인이, 2016) 실제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그들의 주체성 발현 및 의미를 삶의 경험에 밀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영창업 동기와 과정 그리고 자영창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현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을 탐색하고 그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은 크고 다양한 의미들로 이루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삶의 실타래다. 보편적이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에 주목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더 넓게 해석하는 내러티브 탐구가 적합하다(김영천 외, 2017: 565). 삶의 이야기지만 비슷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특정적으로 일어나는 사실, 즉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은 통제되기도 설명되기도 어려운 인간의 삶이다(Bruner, 1990: 43-47). 내러티브 탐구는 보편성에서 약간 빛나간 모호한 삶의 형식을 통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삶에 의문을 품고 윤리적 고민을 하게 하며, 내러티브가 지닌 윤리적 판단(McIntyre, 1981)에 직면하게 한다. 이렇듯 삶과 내러티브는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삶은 내러티브를 통해 해석된다(McIntyre, 1981).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목소리가 담긴 재현, 연구자의 목소리가 담긴 텍스트를 통해 이러한 윤리적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 탐구가 적합하다.

결혼이주여성이 시공간적으로 이질적이고 다원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체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가는 삶의 여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김영순 외, 2019: 14). 더구나 개인의 생계유지, 사회적 연결, 자기실현의 수단이 되는(Blustein, 2006, 2008) 일, 다시 말해 자영창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해 가는 여정을 살펴보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자신의 삶을 위해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보편적이되 특수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을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나는 주체성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지원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본 연구는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 드러나는 주체성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적·사회구조적 제약을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경제적 자립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중 자영창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활동하는지, 자영창업을 통한 자신이 보유한 자원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실천되고 발현되는지, 본국의 자원이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과정에 어떻게 동참되는지, 생애 및 미래기획 차원의 전략으로서 자영창업 운영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지원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의 내러티브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각각의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보편적이되 특수한 경험을 연구참여자들이 들려주는 내러티브를 통해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 재구성하였다. 창업 경험이 주된 탐색이지만, 창업 경험만 탐색



하기보다 이주 전의 경제생활 참여와 창업 준비기 그리고 창업과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삶은 분절적이지 않고 개인행동은 서사적 통일성을 나타내므로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전 경제생활 참여에 관한 내러티브는 의미가 있다. 연구문제 2는 연구문제 1을 바탕으로 자영창업 경험에서 발현된 주체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각 연구참여자들의 행위와 의도를 분석하고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I 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문제와 내용, 선행연구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II 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일과 창업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을 다루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에 나타나는 주체성을 살펴보고자 다양한 학자들의 주체성 및 프레이리의 변혁적 주체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과 변혁적 주체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의하였다.

III 장은 연구문제 1, 2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연구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가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이유를 서술하고 연구절차,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 연구참여자 선정 과정 및 선정,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IV 장과 V 장은 연구문제 1, 2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IV 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 내러티브를 탐색하기 위해 이주 전 경제생활참여, 이주 이후 경제생활 참여, 창업 이후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이주 전 이야기, 창업 준비 이야기, 창업 이후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은 이주 전 본국에서의 경제생활과 자영창업 이전의 직장생활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은 그들의 경제생활 참여 경험과 일정부분 인과성을 갖기 때문이다.

V 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을 귀납적으로 도출 및 범주화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VI 장은 연구결과 요약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 한계점, 그리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과 결혼이주여성 자영창업 정책에 관하여 제언했다.



### 3. 선행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및 직업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후 창업의 상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외국인의 취·창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영창업 이해를 돕기로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혹은 직업 및 취업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이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을 정책적 시혜의 대상으로 본 것과 달리 주체적인 행위자로 인정함을 뜻한다. 또한 취업 등의 경제참여가 이주여성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주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사회통합을 부각하였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경제생활 참여에 관한 관심 및 연구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난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최인이, 2016).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의 흐름은 크게 여덟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과 직업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 정책 분석 관련 연구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과 직업활동 실태 및 이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분석(고혜원 외, 2010; 설동훈 외, 2008; 양인숙·민무숙, 2010; 장명선·이옥경, 2009)이 있다. 고혜원 외(2010)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고용증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이 단절적인 수준이며 교육프로그램 또한 뚜렷한 장기 목적 및 대안 없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취업 훈련은 한국어교육이나 정보화 교육 등 기초적이며 틀에 박힌 직업준비교육과 원어민/다문화강사, 제과제빵, 한식 조리, 이·미용 등의 수요도 조사와 거리가 먼 직종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였다. 언어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취업 측면에서는 영어와 중국어에 대한 수요는 나타났으나 이 외의 외국어는 직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밝혔다. 고혜원 외(2010)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저학력인 것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과 더불어 정규교육의 보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과 지원, 개인별·수준별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취업 관련 교육훈련과 일자리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심인선(2010)과 양인숙·민무숙(2010)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지원정책을 위해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주장했다. 또한 구직 및 구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기관의 양성, 각종 교육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과 사회적응 및 통합과의 관계 연구다. 이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은 정치, 문화, 교육 등 다른 영역에서 사회적응 또한 쉽게 이루어진다(박미은 외, 2012; Prairie Global Management, 2008). 박능후와 선남이(2010)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고용 방식에 따라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종사자의 이주여성이 불안정 고용된 이주여성들보다 한국사회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경희·서인숙(2011)은 직업의 만족도는 사회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돕는다고 밝혔으며, 박미은 외(2012)는 이주여성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취업 결심, 취업에 이르는 과정, 취업 이후의 경험들을 귀납적으로 도출 및 범주화하여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적으로 한계에 부딪히지만, 일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으며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취업 경험이나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취감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한국사회의 흐름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이주여성을 정책의 시혜 대상이 아닌 주체로 상정하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체로서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생활이 가계에 도움을 주는 데서 오는 만족감과 이들의 사회적응도가 높아진다는 관련성을 단순하게 정의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따른다. 결혼이주여성이 갖는 경제생활 참여 의미를 다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



야 한다. 이들의 경제생활 참여행위가 사회통합을 위한 단순한 도구쯤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일을 통해 변화되는 그들의 정체성에 집중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시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정체성 회복과 주체적 행위로서 사회참여를 위한 직업 활동이다. 김도희 외(2010)는 결혼이주여성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요인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발적인 의사와 다문화가족센터, 고용노동부 등 공공자원의 도움으로 직업을 구하며 다문화교육강사, 원어민강사, 통·번역사 등 특화된 일자리에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 것으로는 영어, 일본어 등 언어자원, 가족의 지지와 협조,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원이 있으며, 한글과 한국문화 학습, 운전면허 취득은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므로 꾸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순(2013)은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경제생활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을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취업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 규정과 배우자의 무능력함 그리고 자신의 일을 갖고 싶은 열망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즉 자기정체성 회복에 대한 열망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취업의 필요성으로 작용하였다. 박미숙 외(2014)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국가이주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적 요인은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그리고 출신국에서 보유했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취업하였다.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은 가정적 요인과 한국사회에 빠른 적응을 위한 사회적 요인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을 돕고자 하는 국가이주적 요인이 있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 적응과 주체로서의 사회참여를 위해 취업에 대한 욕구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수연 외(2014)는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머니로서 갖는 역할모델과 사회구성원의 인정욕구에서 비롯된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취업을 위해 경력을 쌓거나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점은 박미은 외(2012)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언어 분야의 구직탐색은 한계가 있으며 반복적인 취업 실패는 심리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미취업의 원인을 자신의 국적 탓으로 돌리는 한편, 향후 한국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통합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전은희(2017)는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직장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일을 통한 성취, 직업이 갖는 향후의 전망과 실천에 대해 알아보고자 내러티브를 활용하였다.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를 비롯한 기타 가족들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구직활동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 경제활동참여는 생계수단이나 방편이 아닌 다양한 구직의 동기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한편 이들은 사회참여와 직장생활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증과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국어의 빠른 습득과 세부적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목적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정(2018)은 결혼이주여성의 행위자성에 주목하여 이주사회에서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로서 경제적 취약성을 문제 삼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식과 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의 생존경제를 담당하는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은 생애기획 및 미래 계획의 전략적인 도구로 노동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의 가치를 의미화시키는 방법으로 노후 설계와 자녀 장래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의 노동현장에서 시간과 요일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여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었다. 즉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보상을 더욱 올리고 있었다. 넷째, 초국적이주민인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신국에서 취득한 언어, 사회·문화적 자원, 경험과 태도 등의 개인적 자원을 한국사회에 그들 나름의 수준으로 재구성하면서 자신들의 노동력 향상을 기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난희 외(2023)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과 생활 경험을 분석하여 타자화에서 주체화로의 변화과정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차별과 무시를 당하던 결혼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인격체로 인정받고 모국과 한국의 문화융합을 이끌어가는 주체적 리더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은정(2018)과 박난희 외(2023)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행위자성과 행위 주체로서의 경제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적극적인 주체성을 탐





색하였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능동적인 사회경제 활동에 의한 성장과 자립 과정을 ‘인정투쟁’ 개념에 적용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박난희 외, 2023). 허선미·최인이(2016)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본국에서의 삶의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위치한 고헌력 결혼이주여성이 이전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인정투쟁을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황해영(2018)은 결혼이주여성의 인정투쟁의 장으로 ‘가정’과 ‘지역사회’로 본다.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인정획득의 토대를 마련해 가기 위해 자기희생과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황해영, 2018: 171-172).

다섯째, 북한 이주여성의 일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전주람·지은·신윤정(2022)은 북한 이주여성들의 일 경험을 일의 심리학이라는 이론에 기반하여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북한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소수자의 일 경험을 일의 심리학이라는 진로 이론에 비추어 그들의 눈높이에서 해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섯째, 결혼이주여성의 창업에 관한 연구로서, 창업 동기를 탐색한 연구다. 박신영(2017)은 음식점을 창업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준비와 창업 이후 단계에 나타나는 학습 경험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음식점을 창업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동기는 한국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소개 및 권유 등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을 창업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준비는 음식점을 창업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신국에서 취득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살린 것과,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메뉴를 위해 찾아가서 공부하는 시스템적 경로를 통해 창업 주메뉴인 음식을 배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들은 창업준비 단계에서 창업성공 관련 사항을 비롯한 여러가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창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 창업 이후 학습 경험은 주로 가게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저렴하고 신선한 음식 재료 구입을 위한 노하우를 터득하거나, 음식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거나, 고객확보를 위해 친절한 서비스로 일관하는 모습 등이다. 그러나 음식점이라는 한 가지 업종과 창업 준비단계와 창업 이후 단계만 다루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류유선



(2021)은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사례 연구로, 창업 동기는 생계유지, 일·자녀 균형, 본국 가족 지원, 정체성, 사회성 인정, 재미, 노후 준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주로 식당, 보험, 카페 등에 치중하고 있었으며, 출신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출신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의 유연성을 제언했다.

일곱째, 결혼이주여성의 창업 의지 연구이다. 김경아(2012)는 이민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일반시민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자의 모국에서 창업경력, 전문가 경력, 나이 등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모국에서의 창업경력은 이주국에서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개인 특성 요인 중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교육 수준뿐이었다. 사회·심리적 요인에서는 문화적 차별 경험이 적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이 개방적일수록 이민자의 창업의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여덟째, 외국인 창업에 관한 연구다. 여기에는 ‘중국동포(박경석·하규수, 2014)’, ‘제한 조선족(정선주, 2021)’ 등 주로 중국동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연구 편수 역시 많지 않았다. 중국동포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경석·하규수(2014)는 창업 동기인 자아 성취와, 사회적지지, 그리고 정서적 지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정선주(2021)는 부천시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30~60대의 조선족 6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부천시 중동역, 부천역 주위의 조선족 자영업자들의 한국 정착 과정과 창업 과정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부천에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처음 정착지가 부천시여서, 그리고 부천시는 이미 많은 조선족 상인들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장사를 시작하기에 불편함이 없었으며, 결국 이러한 인프라는 점점 더 많은 조선족의 창업을 이끌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동포 창업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창업과는 그 결이 다르다. 이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경험 및 외국인 창업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언어, 문화적 자원이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갖기 위해서는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상호문화감수성 고취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기한 고혜원 외(2010)에 동의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언어적 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한 많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원활하지 않은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더 나은 사회경험을 위한 측면에서도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및 방법이 제기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동기는 개인의 정체성 실현과 인정욕구 등이 작용하였다.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이주민이라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함께 나서서 발판 마련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및 직업 활동은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적응에서 벗어나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적인 행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많으나 창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조상미, 2019). 시대적으로 실업과 고용 창출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고용률 제고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을 비롯한 한국에서도 다양한 창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이병권·전인오, 2014).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창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이우진, 2015).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창업경험을 이주 전, 창업 준비 과정 그리고 창업 및 이후에 따라 통합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연구자는 위의 정리된 선행연구의 시사점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더욱 집중하여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견고히 하였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며, 이들의 다양한 사회구조적 제약 인식 및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자영창업에 집중하였다.



선행연구 고찰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용실, 식당(쌀국수, 샐러드), 커피숍, 네일숍이라는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둘째, 자영창업은 삶의 한 단면에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자영창업 경험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전 경제생활 참여 경험을 비롯하여 이주 후 경제생활 참여 경험까지 살펴본다. 또한 자영창업의 준비와 현재 그리고 미래계획 등을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재현하고 분석함으로써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결혼이주여성과 자영창업

#### 1.1. 결혼이주여성의 일

일반적으로 취업(employment)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다닌다’는 뜻으로 취직과 같은 의미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또한 취업이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상 사용자-근로자 간 관계를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박미은 외, 2012). 따라서 취업이라는 말에는 일정 기간에 수입과 임금을 목적으로 정해진 곳에 반복적으로 다닌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취업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결혼여부나 가정 형편과 별도로 취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들에게 있어 취업은 경제적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성인권과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의 부담 및 가부장제에 기초한 성별분업이 취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강이수·신경아, 2009).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경험은 이러한 우리 사회 기혼여성들이 처한 보편적인 현실과 더불어 외국 출신이라는 신분적 특성이 더해져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경험되어진다(박미은 외, 2012).

별률상 결혼이민자의 개념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즉 결혼이민자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함으로써 결혼이민자를 외국 국적자로 한정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률이 2015년 40.9%에서 2018년 46.0%로 증가하였으며(최윤정 외, 2019: 267) 2021년에는 54.2%로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률이 과반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용어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등의 여타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외국국



적자’의 개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출신자’로 확대 개념화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28). 즉 후자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국적 변동성에 관점을 맞춰 개념화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에 관해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귀화자는 305,064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가 82.8%, 기타귀화자는 17.2%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연령은 29세 이하 14.3%, 30대 36.4%, 40대 24.0%, 50대 16.0%, 60세 이상 9.2%로 2018년에 비해 29세 이하 연령층은 감소하였으며, 30대 이상 연령층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 거주기간별 15년 이상이 39.9%, 10~15년 미만 28.9%, 5~10년 미만 19.2%, 5년 미만 12.1%로 2018년 대비 15년 미만 거주 비율은 감소하고, 15년 이상 거주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이 지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경제활동의 경험치가 누적된 이주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취업자 비율은 63.9%(여 59.5%, 남 83.4%)로 대체로 높은 편이며 2012년 실태조사(전체 58.5%, 여 53%, 남 80.3%) 대비 5.4% 증가하였다. 여성취업자 비율은 남성보다 낮은 편이나, 증가폭(6.5%)은 2012년에 비해 남성보다 더 컸다. 연령별 취업자 분포는 50대가 78.9%, 40대 75.9%, 30대 64.2%, 29세 이하가 49%의 순이었다. 특히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15년 이상 거주자의 취업률은 72.5%인데 비해 2년 미만 거주자의 취업률은 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5).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29.0%, 서비스종사자가 18.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14.6%를 차지한다.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1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조사자는 10.2%이며 판매종사자가 7.6%, 사무종사자가 4.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2.9%이며 관리자는 0.1%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민들이 비교적 단순근로 및 비숙련 노동에 많이 투입되고 있으며, 한국인 취업자에 비해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종에 편



중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3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시근로자(28.6%), 일용근로자(20.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6%)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5.9%) 순이었다. 한국인 취업자(일용근로자 14.8%, 임시근로자 9%)에 비해 일용직과 임시직의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은 매우 낮다(여성가족부, 2015).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후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겪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들은 경제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내비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재산이나 생활비 등 가족생활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 강화 및 문화 활동의 참여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경제적 독립성 확보를 넘어 가족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 개선으로 지역사회 및 가족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김효순, 2016: 42)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을 그들의 주체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포착하려는 시도이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어 습득 능력과 한국사회 적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에 주목하여 이주 전 경제활동 참여를 비롯한 자영창업 준비, 자영창업 이후 등을 살펴볼 것이다.

## 1.2.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이주민의 자영업 창업 및 경영은 이주민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되는 동시에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장주영, 2018: 2). 왜냐하면 이주민 자영업은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총체적인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일조(Fitzgerald, Haynes, Schrank, & Danes, 2010: 546)”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취업·재취업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나타낸다(Light, 1972: 11).



이주민과 지역사회의 교류 기회를 넓힘으로써 이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및 참여의식, 지역 선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는데(Danes, Lee, Stafford, & Heck, 2008: 230-238), 이러한 상호문화 소통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김영순(2020: 114)은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로 존재하는 이주민 자영업(타자)과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사랑, 포용, 연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두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문화성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주민 자영업은 선주민과 이주민, 다수자와 소수자가 “연대적 공동체”(김영순, 2020: 114)를 형성함으로써 “공간과 관계의 통합”(김영순: 2020: 115)에 이르게 한다.

이주민이 경영하는 이주민 사업에 관해 해외 연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Li(2010: 200)는 ‘이주민 사업(immigrant business)’, ‘이주민 집단 거주지 경제(immigrant enclave economy)’, ‘이주민 자영업(immigrant self-employment)’으로 정리하였는데, 각각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이주민 사업은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민 소유의 사업이다. 따라서 이주민 사업은 복합적 특성을 띠는 경제체제다. 소수민족 집단거주지 경제(ethnic enclave economy)라고도 하는 이주민 집단거주지 경제는 동족 이주민 커뮤니티와 이주민 사업자 및 고용원 간의 상호의존성을 중시한다. 이 경제적 구조는 이주민 커뮤니티 내의 결속력과 연대성을 기반으로 한다(이진석, 2016). 또한 이주민 자영업은 이주민이 창업,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업 전반을 의미한다(장주영, 2018: 1-2). 이주민이 운영하는 자영업체는 대부분 소규모로, 선주민의 자영업에 비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본의 취약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의 무급 노동력 제공이 사업체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에 우선시된다(Desiderio & Salt, 2010). 이들 용어 중 이주민 자영업이 가장 넓은 범위를 반영하므로(장주영, 2018: 2),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자영업체를 이주민 자영업으로 간주한다.

자영업자라는 용어는 법적·학문적 개념이 아니어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이아영 외, 2019). 본질적으로 자영업자는 근로자의 개념과 상대되는 ‘나머지 영역’에 속하는 자로 종속적 관계없이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자이며, 근로기준법상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류건식 외, 2017: 11;





Schoukens, 2005: 5).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03)는 자영업자를 한 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의미가 포괄적이며 소극적 접근이다. 문유경(2002)은 유급직원 없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거나, 범위를 조금 넓혀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금재호 외(2009)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거나 무급가족 종사자의 도움을 얻는 자영자로 정의하고 있다(금재호 외, 2009: 1). 이호근(2020)은 이러한 자영업자를 기존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을 통한 보호에서 배제된 자영업자 집단, 저성장 및 고실업의 장기화 국면에서 경기 변동에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 집단, 높은 소득수준과 노동과정에서의 자율성을 갖는 전문직 자영업자 집단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고용주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도움을 얻거나 종업원인 임금근로자를 고용하며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원시적으로는 사업 개시를 의미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구체적으로는 “창업자가 특정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금을 동원하여 특정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원숙연, 2017: 134).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장개척,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우위를 점하는(Ahi, 2006: 599) 창업은 새로운 것의 시도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내포하며(원숙연, 2017),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띤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들의 진취적인 삶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영창업의 의미는 결혼이주여성이 창업,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업 전반을 의미하며 혼자 일하거나 무급가족 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자영자로 정의한다. 또한 연구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이주민)은 모두 자영업자로 창업한 사례이므로 ‘자영창업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여성창업은 그 주체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 이윤을 목적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목표를 세우며, 적절한 시기에 인원, 자본, 원자재, 설비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제품의 생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설립을 의미한다(안상철, 2011). 급변하는 창업생태계에서 여성은 큰 역할을 차지한다. 남성은 이미 경제활동인구로 다수 분포되어 있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여성들을 경제활동인구로 환원시켰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여성의 활발한 경제참여만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다(김윤선 외, 2022; 전해진 외, 2015; 최진숙 외, 2018). 실제로 경제구조의 변화는 여성기업<sup>3)</sup>의 중요성을 증대시켰으며, 국내외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남기정 외, 2019; 원숙연, 2017; 전해진 외, 2015; 홍정임 외, 2021; Cabrera, & Mauricio, 2017; Davis, 2012; OECD, 2016). 이와 같이 여성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성창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창업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 여성의 창업 특성과 함께 그동안 연구된 결혼이주여성의 창업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성공적인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가의 성격특성을 살펴본다.

창업동기는 창업가에게 중요한 창업의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창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크게 긍정적 계기로 시작하는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s)과 부정적 계기로 시작하는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s)으로 구분한다(임이숙, 2020). 여성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s)은 여성 중간관리자들의 승진을 어렵게 하는 유리 천장(glass ceiling)이 있다. 이는 직장에서 차별에 따른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한다. 또한, Brush(1992)는 여성이 직장가 가정의 양립을 위해 창업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직장가 육아, 그리고 가사를 함께 병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하여 여성들은 일과 가사의 균형을 위해 창업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한정화·백윤정(2003)은 문헌고찰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국내 여성벤처기업

3)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조 1항),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와 여성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한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



인의 창업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여성벤처기업가들의 창업동기요인을 토대로 기업들을 유형화하였는데, 이는 분류적 접근법(taxonomic approach)을 기반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의 창업 동기는 독립에 대한 욕구, 자신의 개발 욕구, 호의적 여건 등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개인적인 동기요인을 주로 강조하였다면 우리나라 여성창업에서는 상황적 요인이 매우 주요한 창업동기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성창업가의 창업동기요인에 기초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 세 개의 기업군이 도출되었다. 첫째, 독자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자 창업한 기업군 둘째, 호의적 창업여건에 힘입어 창업한 기업군 셋째, 어려운 창업여건을 극복하고 창업한 난관극복형 기업군 등이었다. 분석결과 여성은 긍정적 창업촉진요인(pull factors)에 의해 창업하는 남성과 달리 부정적 창업촉진요인(push factors)에 의해 창업하리라는 선행연구와(Buttner & Moore, 1997)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여성이 창업을 하는 데는 긍정적 창업촉진 요인과 부정적 창업촉진 요인 모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석(2006)은 여성기업의 창업 동기를 상세하게 분류하였는데 창업기회와 직무에 대한 불만이 동기로 작용될 수 있으며 또한 독립성과 소득보장, 기업가로서의 마인드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역시 창업의 동기가 되었음을 설명했다. 한편 여성창업가의 창업 동기는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의 작용과 함께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이 복합적이고 동시에 작용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업성공의 동기는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성기업의 성공요인은 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 동기가 연쇄적인 작용을 하여 창업의 성공 요인은 물론, 창업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uttner & Moore(1997)는 여성들이 은퇴 및 퇴사 후에 창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도전정신과 자기만족감을 들었다. 이는 여성들이 퇴사 후에도 여전히 일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역시 여성들이 퇴사 후 창업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 또한 여성기업가들의 창업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



업연구원(2007)은 남성기업가들은 사회적 명예나 경제적 부의 추구를 위해 창업을 하는 데 반해, 여성기업가들은 자아실현이 창업의 주된 동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역시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하기보다, 스스로 기업을 이끌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거나, 고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권력의 추구 등의 욕구 등으로 창업을 결심하며, 자아의 실현이나 리더십, 기업가적 충동과 같은 끌어당기는 요인에 의해서도 창업을 시도한다(임이숙, 2020).

여성 사회적 기업가의 창업 동기를 연구한 김학실(2016)은 사회적 기업가의 창업 동기는 취약계층의 문제, 공동체의 활성화 문제, 빈곤의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사회적 문제 인식은 영리 목적을 위해 창업하는 영리기업가들의 동기와 다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들은 빈곤, 일자리,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제와 같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가의 창업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 김학실(2016)은 사회적 기업가의 창업 동기로 자율성과 더 좋은 일에 대한 추구, 도전과 기회, 성격, 자라온 환경적 배경, 종교, 학력, 경력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등을 들었다.

여성창업가의 세부적인 특성과 그들에게 작용하는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탐색연구를 실시한 김운선 외(2022)는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창업동기로 자신 및 세상에 대한 도전정신과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감,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지키려는 욕구를 들었다. 여성창업가들의 창업 태도는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우선시 됐으며, 이는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독립과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으며, 창업에 대한 주변 여건이 지원적이거나 호의적으로 작용해야 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창업의 주된 동기는 남성의 창업동기와 많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직장과의 양립, 일과 가족의 균형 유지처럼 여성적 상황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복잡성 또한 존재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저조한 창업률의 이유는 자금 마련의 문제와 언어문제가 가장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과 가사 및 양육문제, 창업 방법을 모르는 문제 등 다양하다(한국다문화연구원,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창업을 하는 동기로는 괜찮은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여건, 다문화의 특성을 인지하고 유리한 사업기회를 포착,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조상미, 2019) 하는 이유와 사회적으로 성공,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대감,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 전문영역으로 개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기회, 취업의 어려움(한국다문화연구원, 2017) 등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동기가 컸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받는 사회적 차별로 인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창업의 동기를 밝히기도 하였다(박신영, 2017).

충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창업 실태를 분석한 한국다문화연구원(2017)은 결혼이주여성의 창업동기를 사회적인 성공,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삶 찾기, 높은 수익 등으로 지목하였다. 이는 단순히 소득보다는 자기실현이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의미한다. 창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참여경험을 분석한 조상미 외(2019)에서는 한국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다문화의 특성을 살려 유리한 사업기회를 포착, 성공과 인정의 욕구, 경제적 안정의 추구 등의 이유로 창업동기를 밝혔다. 대전지역 이주여성의 창업사례를 연구한 류유선(2021)은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 창업특성 가운데 생계유지, 일자녀 균형, 본국가족 지원, 소속감, 정체성, 사회적 인정, 재미, 노후 준비 등으로 창업 동기를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 여성의 창업동기와 결혼이주여성의 창업동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주’라는 배경에 의해 두드러지게 나타난 차이점이 몇 가지 있었다. 즉 한국에서 괜찮은 일자리의 접근성 어려움, 다문화 특성을 살린 사업기회 포착, 본국가족 지원 등은 이주 배경에 따른 원인으로 결혼이주여성만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선협(2020)은 여성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지표로서 창업만족도에 기여하는 구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창업자 성격특성 Big 5를 활용하였



다. ‘성격특성’은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같은 상황에 대해 사람들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이다(Llewellyn & Wilson, 2003). 심리학자들은 성격특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즉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면서 개인 차이와 포괄적 행동을 보편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김경현, 2005). 다양한 학자들 가운데 Costa & McCrae(1992)가 개발한 성격특성 Big 5 모델(Five Factor Model)은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Judge & Ilies, 2002b). 구체적으로 Big 5 성격모델은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이 있다. 창업가의 성격특성을 주제로 Big 5 성격 요인을 매개로 한 연구는 정대용·박성희(2016), 정대용·채연희(2016), 정대용·정경희(2017) 등이 있다.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셀프리더십에 따른 창업 의도를 살펴본 정대용·채연희(201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창업에 대한 자신감 형성 및 창업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외향적이며 친화적인 성격특성이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특성이 사회적 자본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업 자기효능감이 각각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 정대용·박성희(2016)의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성격특성 중에서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이 사업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가의 동기부여를 위해 창업 만족 요인으로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만족요인이 있는가를 살펴본 정대용·정경희(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성격특성은 직무만족과 심리적 웰빙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직무만족과 심리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체성에 관한 담론

결혼이주여성의 창업동기는 일반 여성의 창업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자기실현, 독립욕구, 개발욕구, 자율성과 더 좋은 일에 대한 추구, 도전과 기회, 개인적 특성 사회적 인정 및 사회적 지위에 따른 권력 추구 등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삶의 개척자인 주체로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간다(김영순, 2020: 134).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은 적극적 행위 주체에 의한 것으로, 이들의 자영창업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주체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1. 주체성에 대한 논의

데카르트(Descartes)로부터 탄생한 주체의 개념은 인류 역사가 진보해 가면서 근대 철학의 칸트(Kant), 헤겔(Hegel)을 거쳐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다르게 변화되어 왔다(김상봉, 2007).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Descartes 이래 형성되어 온 서양의 보편적이고, 고정적이고 일반적인 근대적 주체 개념은 비판받기 시작했다. 데리다(Derrida), 라캉(Lacan), 알튀세르(Althusser), 푸코(Foucault)는 탈근대적 주체 개념을 성립시켜 사회적이고 실천적이며, 상호주관적 개별 행위 주체들의 개념을 구축했다(윤효녕·윤평중·윤혜준·정문영, 2007).

주체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학습자 주도성’, ‘행위주체성’, ‘주도성’, ‘행위자성’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기희경, 2022). 행위자성(agency)은 개념의 모호성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용어이다. 이것은 행위자성 개념 자체가 교육학, 사회학, 철학, 경제학, 인류학, 심리학에 걸쳐 많은 이론을 기반으로 있고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소경희 외, 2018; 유용모,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곽한주(2021)는 주체성을 ‘주체(subject)’의 성격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의



한다. 에드워드 맥거쉰(Edward McGushin, 2011)에 따르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주체성을 “자아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 즉 “우리가 스스로 자아 배려에 헌신할 때 자신을 무엇이라고 여기는가”로 정의한다(Edward McGushin, 2011). 따라서 푸코적 의미의 주체성은 주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이미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푸코의 이미지에 따른 주체성에 따르면 우리는 본래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주체라고 여기는 인간의 이미지인) 주체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면서 주체로 구성되고 만들어진다. 즉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서 복합적인 힘들의 작용 안에서 스스로를 주체라 여기게 되고, 또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개인 주체로서 나의 주체성은 타자들의 주체성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고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한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공유하는 주체 이미지인 지배적 주체성이 형성된다(곽한주, 2021).

주체성은 자신의 삶과 주변에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 주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목표 성취를 위한 시각화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Kundu, 2020). 주체성은 자신의 일상생활,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능동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되는 개인적 요인이다(Bandura, 2001; Tapal et al., 2017). 자율적 의지로서의 주체성을 정의한 하회수(2019)는 인간의 목표와 선택,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실행하고 옮길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체성은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고, 성찰하며 궁극적으로 역량 향상을 달성하는 역할을 한다(이지연·전병훈, 2020). 주체성은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 자신을 포함한 삶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삶의 전반에서 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발현된다(기희경, 2022). 이러한 주체성은 지배권력관계에도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한편 김상봉(2007)은 ‘서로 주체성’과 ‘홀로 주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발전시켰다. 그에 따르면 ‘나는 나’라는 반성적 자기의식은 고립된 자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타자를 객체화하여 지배하거나 배제하고 만남을 거부하는 나르시시적인 주체성을 ‘홀로





주체성’이라고 하였다. 반면, ‘서로 주체성’은 타자적 주체와의 만남을 통해 타자를 껴안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나와 네가 서로 만나 확장된 주체인 우리가 되는 동시에 나아가 나와 네가 동등한 주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홀로 주체성’은 타자가 없으며, ‘서로 주체성’은 타자가 있는 것이다. 즉 타자의 유무에 따라 주체성의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김상봉(2007)은 주체성을 역사성과도 결부 지었는데 이는 인간 존재의 근원을 일깨워 주는 맥락이다. 즉 주체의 자기의식이 역사적 경험 및 역사의식과 따로 분리하지 않는 한, 모든 주체는 역사의 음영 및 흐름을 자기의식 속에 품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체성이란 인간이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일상에 매몰되지 않으며 스스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능동적인 실천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를 변동시키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김정용(2023)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주체성을 정의하였다. 즉 한 존재가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것은 타자와의 관계와 만남이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타자와의 관계와 만남이 없는 고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실현해 갈 수 없다. 주체적 관계는 서로 다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타자성을 수용함으로써 형성되며, 이 주체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타인의 타자성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때 더욱 빛나게 된다. 이러한 주체성의 정의는 김상봉(2007)의 ‘서로 주체성’과 매우 유사하다.

주체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문제 삼으면서 기존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 활동으로써,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전제를 실천을 통해 입증하려는 해방의 과정이다(심승우, 2011). 의식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탐색한 프레이리(Freire, 1978)는 인간은 ‘주체’로서 실재를 변화시키는 행동을 스스로 할 힘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고, 인간 의식을 결정하는 사회적 조건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프레이리는 ‘주체성’이란 의식적 경험을 위해 결정되는 상징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심정보, 2022: 101).

행위 주체로서 사회적 실천과 실천을 통한 주체성 발현은 적극성과 능동성을 요구한다. 즉 ‘능동적 대응’과 ‘상호작용’ 이규호(2005), ‘인간이 역



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일상에 매몰되지 않으며 스스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능동적인 실천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를 변동시키는 힘’ 김상봉(2007), ‘기존의 위계질서를 문제 삼으면서 기존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 활동’, ‘실천을 통해 입증하려는 해방의 과정’ 심승우(2011), ‘삶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삶의 전반에서 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발전’ 기희경(2022),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Kundu(2020) 등은 행위 주체자가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여러 학자들의 주체성 정의 중 대부분의 주체성에 ‘적극적인 실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주체성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주체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주체성은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타자들의 주체성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고 변화한다. 또한 일상에 함몰되지 않으며 스스로 문제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비판적인 사고와 함께 능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 주체의 실천적 삶의 맥락을 고려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주목하여 그 속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주체적 역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주체성에 초점을 맞춘다.

## 2.2. 프락시스와 주체적인 삶

프레이리는 그의 저서 『페다고지』를 통해 실존하는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 즉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주어진 소명(인본주의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하였다. 그의 사상을 궁극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인간화(Humanization)’이다. 인간화는 인간의 존재론적 소명으로서 ‘더 나은 존재’를 지향함을 뜻한다. 소명이나 사명은 선형적이라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구성된다. 역사적이고, 시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화를 위한 투쟁은 필요하다고 하였다(심성보 외, 2023; 프레이리, 2020). 인간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활동, 비판적 의식화를 지향하는



프락시스가 전제된다(김창환 외, 2022; 정지현, 2015).

프락시스는 근본적으로 그 어원에서 덕을 실천하는 시민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서윤경·권성호, 2004: 125). 따라서 프레이리와 마찬가지로 매킨타이어 역시 마르크스주의자였고 지금도 그것에 호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김미영, 2011) 그의 실천 개념을 프레이리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킨타이어는 실천철학자로서 그의 대표 저작 『After Virtue』를 통해 현대의 도덕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으로 덕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김미영, 2011). 첫 단계는 실천(practice) 개념, 두 번째 단계는 개별 인간 삶의 이야기 질서, 세 번째 단계는 도덕 전통에 의거해 덕을 제시한다. 즉 매킨타이어는 사회, 도덕적 삶의 중심 특성을 실천과 삶의 내러티브적 통일성 그리고 전통 세 가지로 보았다(김미영, 2006: 79).

프락티스는 테오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실천으로 번역된다.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반면 테오리는 세상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 질서를 일컫는다. 즉 머릿속 사고의 구조이다. 테오리와 프락티스 이 둘 간의 조화로운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레이리는 바로 이 둘 간의 변증법적 관계와 결합된 모습을 지칭해서 프락시스라는 말을 사용하였다(심정보 외, 2023). 프락시스(praxis)의 어원은 ‘포이에시스(poiesis)’에서 유래한다. 희랍어 ‘포이에시스(poiesis)’의 동사형은 ‘포이에인(poiein)’으로 사물에 관계된 제작(making) 혹은 생산(producing)으로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포이에시스(poiesis)’의 명사형 ‘프라테인(prattein)’과 명사 ‘프락시스(praxis)’는 인간의 자기 주체적 활동으로서의 실천(act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락시스(praxis)는 그 어원 속에 인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서윤경, 2003: 21).

베른슈타인은 매킨타이어의 실천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포에시스(poiesis)와 프락시스(praxis)라 부른 것을 포괄하는데, 어떻게, 왜 포에시스(제작, making)가 덕에 관련되고 요구되는지 분명치 않다.”고 하였다(Bernstein, 1984: 16).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장인의 기술이나 손노동에 특유한 탁월성은 덕성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데, 매킨타이어의 실천은 다른 양상을 띤다. 이에 대해 슈네델바흐(Scheaedelbach, 1987)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프락시스와 포에시스가



다른 것은 두 유형의 인간활동이 완전한 운동과 불완전한 운동을 예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체 안에 자신의 텔로스를 포함하는 운동은 완전하고 텔로스가 외재한 운동은 불완전하다. “수단과 목적의 언어로 보면 행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이자, 목표이지 않은 어떤 목표를 향하고, 반면 어떤 목표를 위한 생산은 한 목표에 대한 수단으로 일어난다. 행동과 생산은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으니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동은 삶에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삶이다. 따라서 그것은 보다 높은 지위를 존재론적으로, 가치 측면에서 차지한다(Scheaedelbach, 1987: 230).” 슈넬델바하의 설명에 따르면 프락시스, 포에시스 구분은 매킨타이어의 내재재, 외재재 구분과 일치한다. 실천에는 내재재, 외재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프락시스와 포에시스 모두 실천일 수 있다. 그러나 내재재로서 덕성은 프락시스로서만 가능하므로 프락시스만이 진정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영, 2006).

이렇듯 프레이리의 프락시스는 프락티스의 중요성을 설명한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 그람시, 칸트, 사르트르 등의 다양한 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심정보 외, 2023). 특히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론이 인간됨을 지향하게 될 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이론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현실을 변혁할 수 있는 물질적 힘이 된다. 그는 이것을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통일로 또한 실천행위(Praxis)라고 하였다. 이론이 실천을 지향하고 있고 실천이 이론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실천과 이론이 통일되는 것이며, 변혁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락시스는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과 성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행동주의가 아니며, 행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지성주의도 아니다(Freire, 1980: 17-26). 행동과 성찰의 변증법적 통일이다(김창환 외, 2022).

인간 존재의 인식과 삶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용어인 프락시스는 이론에 따른 실천, 실천에 따른 성찰, 성찰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이론이 결합된 변증법적 과정이다. 이론에서 실천으로, 실천에서 성찰로, 성찰에서 다시 이론으로 이어지는 이 한 사이클의 어느 순간, 어느 과정적 단계라도 느슨해지거나 헐거워지거나 혹은 빠져있으면 이것은 프락시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프레이



리는 말한다(심성보 외, 2023). 따라서 프레이리는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언어를 진정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행동 없는 이론은 쓸데없는 잡담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고가 부족하게 되면 언어는 행동을 위한 행동, 즉 행동주의로 빠져 진정한 프락시스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김창환 외, 2022). 고양된 사유를 통한 이론의 정립, 정립된 이론에 의한 행동 그리고 행동에 따른 비판적 성찰이 바로 프레이가 추구하는 진정한 프락시스이다. 그래서 프레이리는 프락시스를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경계한다. ‘실천 없는 의식’ 과 ‘의식 없는 실천’ 만으로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창환 외, 2022).

미국의 철학자이며 교육자인 웨버(Weber, 1922: 428) 역시 “진정 가치 있는 모든 지식과 사상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한 지식만이 힘이 될 수 있다.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마친 지식은 강력하지만 아직은 힘이 아니다. 완벽한 지식의 마지막 단계는 실천이다. 실천이야말로 지성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다.” 라고 말하며 이론화된 지식이 진정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실천이라는 언덕을 넘어서야만 한다고 말한다. 결국 실천 활동과 이론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실천 활동을 고려하지 않는 이론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한다(Handsfield, 2015: 정옥년·허준 역, 2020: 5-6). 이론과 실천이 각각 독립되어 존재할 때 어떠한 변화도 이끌 수 없으며, 이론의 완성은 실천과 연결될 때 실천과 성찰의 변증법적 완성, 즉 프락시스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김창환 외, 2022).

프락시스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가 된다. 주체적 삶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적 삶은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태어났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신의 삶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현길언, 2015).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는 상실한 순수성과 자연의 질서를 찾고 회복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자아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필요



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될 때 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가 가능하다.

Lankshear(1993: 95)에 따르면 프레이리가 말하는 인간의 네 가지 존재론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다. 둘째, 인간은 세계의 탐구와 창조적 변혁에 참여할 때만이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프락시스적 존재가 된다. 셋째, 인간은 대화를 통해 인간화되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넷째,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세상과 독특한 방식으로 의식하며, 관계를 맺는다. 모든 인간 존재는 스스로 독보적 존재이다. 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아무개라는 어엿한 사람”, “객체가 아니라 한 주체”를 말한다(심정보, 2022: 109). 또한 인간은 세계와 더불어 살고, 대상에 대해 비판적이며, 부단한 시간적 연속성 속에 존재한다. 의식이란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머물러 있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단순히 말만을 한다고 하여, 그리고 문자해독을 시킨다고 하여 의식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교육으로만 현실이 변혁되는 것 역시 아니다. 인간은 개인과 개인과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비인간화와 소외를 극복할 때 비로소 인간화가 될 수 있다.

프레이리는 프락시스를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자신의 처한 삶의 맥락에서 출발하여 타자와 자신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끊임없는 자신의 인식 수준과 세계와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인식적 수준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즉 이것을 의식화라고 했다. 이 과정은 정치·사회·문화·경제적 관계가 지닌 모순을 의식하고 현실의 억압적 상황에 저항하는 행동을 취하게 한다. 따라서 의식화는 자신과 세계가 맺는 관계를 변증법적이고 발전적으로 그리고 변혁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자신이 어떤 사회적 억압 속에 있는지, 이 억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극복할 것인지 집중해 세계와 맺는 나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의식화이다. 세계는 그대로 있으면서, 나와 맺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대로 둔 채 내 의식만 변화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나의 의식이 각성 되면 동시에 나와 맺는 세계의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고 프레이리는 말한다(심정보 외, 2023). 주체적 삶을 위해서는 의식화를 비롯한 자신에 대한 주체적 인식



이 필요하다. 자기 일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질과 성품을 바르게 이해할 때 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현길언, 2015: 49).

플레이리는 인간의 프락시스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대화를 상정하였는데, 이때 대화는 세계와 결합되어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고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누군가 대화에 참여한다고 할 때는 ‘세계와 결합되어 끊임없이 변혁을 추구하는 사고를 하리라’고 가정하게 된다. 이런 대화의 개념은 플레이리가 제시한 비판적 의식을 형성하도록 하고 교육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 모든 가르침과 배움의 장에서 일어나는 내용, 형식, 관계, 환경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말이다. 즉 대화를 통해 세계를 건설하고, 재창조하고, 인간화하는 역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심정보, 2022: 125).

인간은 필연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완성되지 않으며,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나 계속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세계와 더불어 존재한다. 대화를 통해 비판적이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프락시스에 참여할 때, 실존하는 인간의 궁극적 지향점인 더 완전한 인간이 되려는 소명을 추구한다(Roberts, 사람대 사람 역, 2021: 95). 다시 말해 인간화의 과정은 비판적 의식화를 지향하는 프락시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홍은광, 2003: 44). 이는 끊임없이 세계와 인간에 대해 추구하고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세상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플레이리는 인간은 프락시스적 존재이며, 프락시스로 충만해서 살아갈 때만 진정으로 비판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오직 인간만이 프락시스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를 명백하게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프락시스에 참여하는 능력이다(Freire, 남경태 역, 2007: 129-169). 손종현 외(2023)는 이러한 인간의 프락시스적 존재를, 세계를 성찰하는 능력, 그 성찰에 비추어 세계를 변형할 수 있는 능력, 세계에 대해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존재라고 견지했다. 이때의 프락시스적 행동은 ‘행위자의 모든 것, 즉 그들의 정서, 느낌, 그리고 ‘언어-사고-성찰’을 모두 포함한다(Roberts, 사람대 사람 역, 2021: 98).

플레이리는 비판적 성찰로서 ‘삶’을 설정하였다. 안다는 것은 주체의 임무이지 대상의 임무가 아니다. 한 남자 또는 한 여자가 안다는 것은 주체로



서의 위치이며, 그리고 오로지 주체로서만 가능하다. 배우의 과정에서 배우 것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바탕으로 재창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배우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즉 자기 것이 된 배움을 구체적인 실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Freire, 1978: 126). 이렇듯 삶은 능동적이며 주체의 참여를 요구한다. 따라서 프레이리는 삶의 상황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반드시 ‘의식적인 주체’의 역할이 있어야 하며, 알려고 하고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을 주체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프레이리가 설정한 삶은 실천적 대상이며 정치적 대상이다. 교육은 삶 또는 지식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삶은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삶이란 세계와 직면하는 호기심 많은 주체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심성보, 2022: 127-128).

프락시스는 인간의 주체적 자아를 획득함으로써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프락시스는 인간의 변혁적 주체성을 위한 토대이다(정지현, 2015). 인간이 프락시스의 존재로서 세계를 변혁시킨다는 것은 세계를 인간의 의식적이고 창의적인 현존으로서 충만 시킨다는 것이다(Freire 1980: 49). 이러한 프레이리의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뿐만아니라 사람들은 미래를 만들어야 하고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추구하는 미래가 원하는 형태대로 오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의 미래는 임의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조건과 구체적 현실, 나아가 그들이 지향하는 계획과 쟁취하려는 꿈을 가지고 만들어 내야 한다(심성보, 2022: 516). 다시 말해 프레이가 제시한 희망과 가능성의 요소는 변혁적 주체성을 통한 궁극적으로 해방을 지향한다.

전술한 프락시스의 개념, 의식화, 비판적 사고, 변혁적 주체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프락시스의 개념을 이론에 근거한 성찰과 성찰에 근거한 실천적 행동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순환되는, 인식관심에 의해 주도되는 실천양상으로 보았다. 또한 프락시스는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자아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세계를 변혁시키는,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를 바꿀 수 있게 한다.

주체적 삶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적 삶은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태어났





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신의 삶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현길언, 2015).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는 상실한 순수성과 자연의 질서를 찾고 회복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자아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필요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될 때 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가 가능하다.

자기 일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질과 성품을 바르게 이해할 때 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내가 타자 속에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 제3의 일을 만들어 낼 때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존재 의미가 드러난다. 사람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람은 애초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자질과 기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하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는 것은 내 것을 바로 찾아내고 개발하여, 내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적으로 자기 몫을 평가받을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이는 비판적 페다고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Freire(1993: 96-100)의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는 ‘은행 저금식 교육’에 반대되는 ‘문제제기식 교육’을 통해 ‘인간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화’는 궁극적으로 ‘해방’을 추구하는데, 이는 ‘프락시스’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정소민, 2014). 프레이리(Freire, 2002)에 따르면 침묵의 문화에 빠져있는 피교육자들을 의식화를 통해 주체적인 인간으로 변화시켜 사회적 변혁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으로 길러내는 활동이 교육이라고 하였다(정지현, 2015: 20). 프락시스가 중요한 이유는 의식과 실천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의 재창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심성보, 2022: 177). 이러한 프락시스는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삶을 조절하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통로가 된다. 프레이리는 문화 다원주의 및 다문화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긴장 속의 성장을 이야기했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성찰의 메시지를 남기는 프락시스는 변혁적 주체로서의 삶을 통한 개인과 세계발전을 꿈꾸게 한다.

### 3. 소결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경험은 우리사회 기혼여성들이 처한 보편적인 현실과 더불어 외국 출신이라는 신분적 특성이 더해져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경험되어진다(박미은 외, 2012).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로의 이주에 따른 경험을 누적해 가면서 경제활동 참여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입하고 싶어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재산이나 생활비 등 가족생활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 강화 및 문화활동의 참여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또한 경제적 독립성 확보를 넘어 가족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개선으로 지역사회 및 가족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김효순, 2016: 42)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 자영업체는 대부분 소규모여서 선주민 자영업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자본이 취약하다.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의 무급 노동력 제공이 사업체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에 우선시된다(Desiderio & Salt, 2010). 이들 용어 중 이주민 자영업이 가장 넓은 범위를 반영하므로(장주영, 2018: 2),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자영업체를 이주민 자영업으로 간주한다. 일반 여성의 창업동기와 결혼이주여성의 창업동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주’라는 배경에 의해 두드러지게 나타난 차이점이 몇 가지 있었다. 즉 한국에서 관찮은 일자리의 접근성 어려움, 다문화 특성을 살린 사업기회 포착, 본국가족 지원 등은 이주 배경에 따른 원인으로 결혼이주여성만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주체성은 자신의 삶과 주변에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 주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목표 성취를 위한 시각화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Kundu, 2020). 주체성은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 자신을 포함한 삶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삶의 전반에서 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발현된다(기희경, 2022). 주체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문제 삼으면서 기존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 활동으로써,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전제를 실천을 통해 입증하려는 해방의 과정이다(심승우, 2011). 의식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탐색한 프레이리(Freire, 1978)는 인간은 ‘주체’로서 실재를 변화시키는 행동을 스스로 할 힘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고, 인간 의식을 결정하는 사회적 조건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프레이리는 ‘주체성’이란 의식적 경험을 위해 결정되는 상징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심성보, 2022: 101).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을 사회·문화적 맥락에 주목하기에 이들의 행위성(agency)에 초점을 두고 행위자의 주체적인 실천과 실천 행위가 사회관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변혁적 주체성에 접근하여 탐색한다.

### Ⅲ. 연구방법

내러티브 탐구는 매일의 삶이라는 천을 짜는 실을 해석하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삶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철학과 문화적 표현 그리고 그들이 인식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망과 함께 하는 통찰, 본질, 그리고 공감들을 추출하는 것이다(Barton, 2004: 525).

#### 1. 연구개요

##### 1.1.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는 중요한 지식과 이해의 원천인 살아있는 경험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접근이다(Connelly & Clandinin, 1990). 내러티브 탐구는 의미에 대한 탐구이며, 이러한 내러티브적 의미는 마음의 정신적 영역을 통해 만들어진 의미의 한 유형이다. 주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간 행위와 사건 모두를 통합시켜 작용한다. 따라서 내러티브적 탐구는 궁극적으로 인간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장사형, 2014).

내러티브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와 사건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 각 의미 요소들을 전체적인 맥락 속으로 잘 배열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전체적인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생성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 삶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부분적으로 도울 수 있다(장사형, 2013: 76). 세계를 이해 함에 있어, 인간은 세계를 자신과 분리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계는 인간의 경험 및 역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러티브는 경험을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변형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세계를 구성하고, 타자와 의미를 공유하도록 해준다(Clandinin & Connelly, 2000). 본질적으로 내러티브 탐구는 다른 사람 및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경험의 재구성과 관련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내러티브 탐구는 특정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서, 그리고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참여자들 간의 협동 연구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살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이야기하고(re-telling), 다시 살아가는(re-living) 4단계 과정을 통해 연구의 동반자로 존재하게 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이러한 탐구의 방향성은 경험의 순환적인 재구성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개인적 경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소통을 돕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인간의 경험을 실제적 맥락 안에서 기술함으로써 현상의 전체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의미를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영순 외, 2018; 신경림 외, 2004; 염지숙, 2003; 유기웅 외, 2012; 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의 철학적 토대는 듀이(Dewey, 1938)의 경험 이론에 바탕을 둔다. 듀이는 경험의 속성을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지속성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제시하였다. 경험은 인간의 개인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 사이의 상호교류를 통해 생성되는 상호작용성(interaction)을 가지며 상호작용 속에서 상황(situation)이 발생한다. 인간은 상황 속에 존재하며 각자가 처한 상황, 장소,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각기 다른 경험이 발생하고, 그 경험들은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진다(홍영숙, 2015). 경험의 계속성, 상호작용성, 상황의 속성은 내러티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틀로써 Clandinin & Connelly(2000)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시간성, 사회성, 장소(temporality, sociality, place)’의 기초가 되었다.

Clandinin & Connelly(2000)는 메타포에 관하여 연구했던 철학자 Mark Johnson과의 만남을 통해 개인적·실천적 지식에 관한 난제를 극복하게 되었다. 즉 Mark Johnson은 Alasdair MacIntyre(1981)의 연구를 통해 사고에 있어서의 내러티브 통일성에 관한 견해를 소개하였다. 내러티브 통일성은 개개인의 삶에서 연속성의 일반적인 구인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고 유익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속성은 우리들의 아이디어와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내러티브 구조가 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34-35).

3차원의 첫 번째 차원인 시간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계속성 개념이고, 두



번째 차원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것과 이들의 상호작용 개념이며, 마지막 차원인 장소는 탐구 장면의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으로서 어떠한 내러티브 탐구라도 이러한 3차원적 공간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Clandinin & Connelly, 소경희 외 역, 2021). 따라서 삶의 경험은 시간, 공간, 상호작용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삶의 이야기로 구조화되고 이러한 삶의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축을 중심으로 하여 상황을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로 조명한다(양유성 · 한계수 · 조난영, 2022).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는 이주 이전 경제생활 참여부터 자영창업을 하게 된 계기와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 시간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각각의 자영업체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함께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인식하는 상호작용이 드러나도록 기술하여 사회성과 장소를 통합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첫째, 개인적 정당화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본 연구에서 ‘자신(연구참여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경험이 대단하지 않다면서, 또는 개인적 이유들을 들어 자신의 이야기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과 관련한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구성해 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실제적 정당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사회 현상 및 선행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장에서의 차별 및 일과 가정의 균형 어려움 등 경제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독자들이 더욱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아니라 자영창업을 준비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정당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이 아닌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의 삶의 경험에 주목하여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소외,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한 개입 방안의 필요성과 제언들을 제시함으로써 실천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를 대하는 탐구자는 연구자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 광범위한 사회과학에 유용한 근원으로서의 개인의 체험을 중요시한다. 인간의 경험은 유의미하며, 행동은 이러한 의미로부터 발생하고 이 의미를 통해 형성되면서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행동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경험을 형성하는 의미체계에 대한 탐구를 포함해야 한다(장사형, 2013). 결혼이주와 여성이라는 복합적 특수성을 가진 본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유의미한 경험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는 적절하며, 다양한 해석과 의미 부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일정 부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러티브의 특성은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난 주체성의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은 실천으로부터 기인하며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역동으로 인하여 구성된다. 이를 통한 인간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내러티브 탐색은 경험을 심층적이고 의미있게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을 결혼이주 이전부터인 전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며 그들의 고유한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내러티브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에 바탕을 둔다. 결혼이주여성의 창업이라는 특수성은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경제활동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배경이 된다. 내러티브에는 결혼이주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해는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내러티브를 창조하고, 창조는 실천으로 연결되어 주체성으로 발현된다. 즉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는 해석과 의미 창출 과정으로 이어지며,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에 적용되는 주체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는 현재 결혼이



주여성의 창업사례가 과거의 어떤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각기 다른 경험이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영창업자로서 자신의 행위와 경험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생애 기획과 비전과 의미를 찾게 되고 전문성이 신장될 것이다(Connelly & Clandinin, 1988). 결혼이주여성 전문성 신장은 창업을 꿈꾸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교육의 주체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한 이 연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주체적인 자리로의 위치 지움이다.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젠더 주체를 구성한다(Patai, 1988: 8).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 하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기록하든, 이야기하는 행위는 경험적 주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자아를 해석하는 과정(김성례, 2002)이므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의 활용은 시의적절하다.

## 1.2. 연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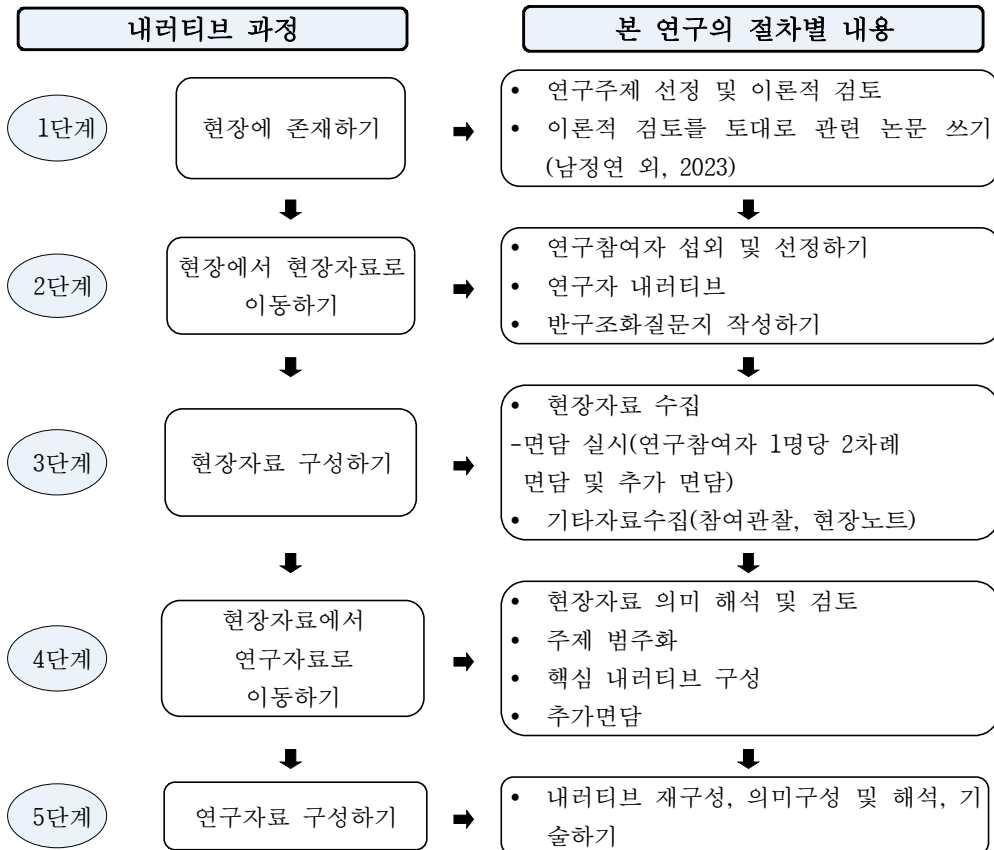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장소 혹은 여러 장소에서,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협력하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자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경험을 연구한다. 이 경험은 삶을 살아가고 말하는 가운데 이야기되는 경험이며, 듣고 관찰하며, 동료 및 연구참여자와 함께 하면서 연구에 관한 텍스트를 쓰고 해석 및 분석하면서 연구된다. 탐구를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변형시키는 방법을 찾는다(Clandinin, 2013: 28).

내러티브 절차에서 내러티브 과정은 연구 설계에서 글쓰기까지의 논문을 작성하는 전 과정이다. 연구참여자와 형성하게 되는 연구 관계와 연구 장



소, 연구참여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것들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또한, 자료 수집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집한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며 서로 중첩되기도 한다(염지숙, 2003).

이 연구는 Clandinin &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과정을 절차상의 순서에 따라 5단계로 적용하였다(Clandinin & Connelly, 소경희 외 역, 2021). 5단계는 현장에 존재하기-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이동하기-현장텍스트 구성하기-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이동하기- 연구텍스트 작성하기이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연구절차



[그림 III-1]에 따라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장에 존재하기’ 단계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로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소경희 외 역, 2021). 즉 연구자가 연구의 동기를 생각하고,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현장을 물색한다. 또한 자료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연구참여자와 만남을 통해 현장에 익숙해지는 단계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의 동기는 대부분 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전문적 지식에서 출발한다(염지숙, 2003). 연구자는 어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의 만남을 계기로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에 기술하였다. 또한 문헌 검토와 연구문제 선정, 참여관찰, 연구참여자 선정을 염두에 두었다. 자료수집에서는 인터넷 신문기사의 문서자료를 비롯한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관한 전 과정을 녹음 및 사진을 통해 기록으로 남겼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문헌검토(남정연, 김영순, 2023)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의 내러티브는 어떠한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서 발현된 주체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문헌검토는 연구에 적합한 연구참여자 선정 및 참여관찰의 중요성 또한 깨닫게 했다. 본 연구는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인만큼, 연구참여자 선정 시 한국 거주기간, 업종, 자영창업 영업 기간 등의 사전 조사가 필요했다. 이처럼 문헌검토 및 사전조사는 무엇을 관찰하고, 어떤 사람들을 면담할 것인지, 연구의 대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박봉수, 2016).

두 번째 단계는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이동하기’ 단계로 연구자가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소경희 외 역, 2021). 이 단계는 내러티브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자료수집을 하며 현장텍스트 작성을 생각하는 단계(양유성 · 한계수 · 조난영, 2022)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친밀해지기와 거리두기를 반복해야 한다(Clandinin & Connelly, 소경희 외 역, 2021). 자료수집 과정은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연구현장에 들어가 참여관찰을 하고 참여관찰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연구자 노트에 기록하였다. 참여관찰일지(field notes), 비형식적 대화,



연구일기(journal entries), 개방적 면담(open-ended interview), ‘기억상자(memory box)’, 다양한 종류의 형식적·비형식적 문서, 사진 등이 내러티브 탐구에서 현장 텍스트(field texts)를 구성하는 자료이다(Clandinin & Connelly, 1994). 연구참여자와 면담은 녹취를 통해 그대로 전사(transcribe)하였다. 전사는 면담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연구참여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음의 부정확성이 나타나 반복하여 들으며 전사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참여자와 공유된 비언어적 소통, 예컨대 연구참여자가 손바닥을 마주치며 웃기,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얘기를 할 때 쓸쓸해하는 눈빛, 몰랐던 내용을 알았을 때 희열감에 “배움이 좋아”를 외치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전사본에 기록하였다.

특히 연구자노트에 작성된 연구일지는 연구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다. 연구일지는 경험을 설명하는 방법이라기보다, 경험을 생각해 내는 방법으로 반성적 속성을 갖는다(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자가 나중에 연구일기를 읽어봄으로써 이전의 생각과 느낌들을 재회상(re-reflect)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연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염지숙, 1999: 66-67). 연구자는 참여관찰 및 면담이 끝난 후 생생함을 기록하기 위하여 인근 카페로 옮겨가 노트에 기록하거나 연구실에 들어와 노트북에 작성하였다. 이때 작성된 연구자노트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인용문으로 주요하게 활용하였다. 한편 현장의 세부적인 기록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사진을 찍었는데, 연구자나 연구참여자가 찍은 사진 역시 현장 노트로 활용된다. 이는 3차원적 탐구 공간에 대한 생각을 연구자가 잊지 않고 ‘어디’에 놓여 있는가(Clandinin & Connelly, 2000: 178)를 인식하기 위함이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 역시 IV장과 V장 기술 시 삽입함으로써 연구현장에 대한 이해와 생생함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단계이다. 현장텍스트란 일반적으로 데이터라 불리는 기록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자서전적 글쓰기, 현장 노트, 편지, 대화, 문서, 사진, 개인적/가족적/사회적 가공물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가치 있는 현장텍스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Clandinin & Connelly, 소경희 외 역, 2021). 따라서 현장텍스트를 구성한다는



것은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양유성, 한계수, 조난영, 2022).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와 동시에 실시되었다. 즉 자료 수집은 자료분석과 함께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네 번째 단계는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이동하기’로서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 단계이다(Clandinin & Connelly, 소경희 외 역, 2021). 이 단계는 내러티브 탐구에서 가장 중심 과정에 있는 단계로 왜 내러티브 연구인가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고(양유성, 한계수, 조난영, 2022) 이론적, 실제적, 해석/분석적 측면을 고려한다(염지숙, 2003). 따라서 연구자는 수집된 현장텍스트를 검토하면서 ‘내러티브 탐구’에서 기술한 정당화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실제적, 해석/분석적 측면과 관련하여 현장텍스트를 읽고 다시 읽으면서 현장텍스트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연구텍스트로 변환하여 분석할지에 대해 내러티브 탐구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료분석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과 글쓰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정한 주제(theme)로 범주화하여 이를 해석하였다. 이때는 면담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은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현장자료와 연구자료를 오가며 경험에 대한 의미 추출 및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논문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의미구성의 범주화는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경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면담 및 전화 통화를 통해 추가 인터뷰하여 보완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방대하여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부적인 집중력으로 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과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질적 자료분석 시스템인 파랑새 2.0을 활용하였다. 파랑새 2.0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었으며(홍은진, 2016: 61) 자료의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자료분석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수집한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한 자료들은 온라인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 입력된 자료를 보거나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연구텍스트 작성하기’로 이것은 글쓰기에 해당한다 (Clandinin & Connelly, 소경희 외 역, 2021). 연구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 참여자의 목소리가 균형을 이루면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가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염지숙, 2003). 이에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다각화하고, 심층적으로 기술하였다. 무엇보다 “타당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Clandinin, 2018: 35) 해석을 제공해야 하므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그리고 멘토가 자료의 분석 및 해석 과정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연구참여자에게 재차 확인함으로써 사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자료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멘토의 논의를 받아들여 수정하였다.

## 2.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 2.1.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

내러티브 탐구의 시작 가운데 하나는 연구자 자신의 진솔한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즉 연구자의 자서전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정당화를 이해하고 명명하게 된다(Clandinin, 2013: 79). 질적연구에서의 자서전적 글쓰기는 저자의 개인적 경험을 사회문화적 맥락에 연결시켜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글쓰기 방식이다(이동성, 2012). 자서전적 글쓰기는 연대기적으로 기술되는 자서전과 달리 특정 시대, 문화, 역사적 사건 등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이동성, 2015). 즉 자서전적 글쓰기는 개인과 문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개인의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의식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Ellis & Bochner, 2000: 739).

연구자는 단편의 자전적인 글쓰기를 통해 연구의 동기 및 연구문제들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수 있었다. 또한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연구자 스스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이동성, 2015: 176)도 느꼈다. 독자 역시 연구자의 삶에 초대되어 독자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결국 연구자와 독자들은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되며(이동성, 2015: 177), 큰 틀 안에서 연구의 출발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연구자의 자전적 글쓰기에 활용되는 장르는 단편적인 이야기, 시, 소설, 장편소설, 수필, 연극 대본, 일지, 사회과학적 산문, 사진 등 다양하며(Ellis, 2004; Ellis & Bochner, 2000), 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나타낸다. 이 중 연구자의 자전적 글쓰기는 수필에 해당한다.

### 필연인 동시에 우연한 만남

이 연구의 동기는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이종일(2004: 104-105)에 따르면 “우주의 만물에는 서로 당기는 힘, 자력(磁力)이 있다. 즉 모든 만물은 아무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력의 영향에 의한 움직임은 통해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우발적으로 보이는 우연의 일치, 우연의 만남이라 하더라도 인과관계와 전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녀와의 우연한 만남은 연구자의 학위논문의 연구문제를 설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일정부분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그녀와의 만남은 필연인 동시에 우연이었다(이종일, 2004: 106).

갓 9월에 들어선 2021년 어느 초가을, 우연히 산자락 아래 위치한 식당에 들르게 되었다. 그곳은 연구자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주메뉴로 삼고 있었다. 열린 폴딩도어 너머로 초가을의 맑고 파란 하늘이 가득 들어왔다. 식당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메타세콰이어 사이사이로 빗살 같은 햇살이 비쳤고, 산 언저리를 돌고 나오는 소소한 바람이 가벼운 눈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작은 산새들은 기꺼이 즐거워하며 지저귀고 있었다. 메뉴를 고르고 주문한 연구자는 그 모든 전경을 바라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정경은 살아있는 행복이었다. 살아있는 삶이란 우리모두가 각자도생의 경쟁적인 삶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아닌 이발사 피가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또 모모가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들길을 걸거나, 우두커니 먼 산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친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눌 때처럼 돌아온다고 박혜영(2018)은 관조적 어조로 말한다.

연구자의 시선을 저편에서 이편으로 거두게 한 말은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라는 섬광과도 같은 말이었다. 능숙한 한국어였지만 모국어 화자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전해졌고, 친절함이 가득 배어난 한 문장의 말이었다. 1인용 돌솥 밥을 손님 앞에 놓으며 직원으로서 건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연구자는 그녀에게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았다. 소설 「7년의 밤」을 쓴 작가 정유정은 타인을 배려하고 연민하는 마음이 공감을 불러온다고 하였다. 또한 공감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지점이며 가장 존엄한 재능이라고 하였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가져야 할 덕목이며 또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지만 기실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기도 한다. 그렇기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민은 가치 있으며, 거기에서 파생된 공감은 존엄한 재능으로까지 위치 지워졌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이 아닌, 그의 내면에 형성된 삶의 습관처럼 어느 순간에라도 흘러넘치는 것이어서 노력과 시간성을 요구한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는 “나도 그랬기 때문에” 라는 반성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즉 공감은 배려를 낳고 배려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의식의 흐름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인간 존엄의 선순환적인 흐름이다.

자석에 이끌리듯 연구자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었으며 이내 결혼이주여성 신분을 추측할 수 있었다. 식사 동안 연구자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그녀에게 향하였다. 식사만 하고 돌아가는 불특정 손님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짧은 인터뷰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접촉할 방법을 모색하고 용기를 그러모아야 했다. 연구자의 머릿속은 식당 밖 나뭇잎 사이를 바빠 오가는 새처럼 분주해졌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에 이르렀을 때 계산대 근처에 선 그녀에게 대뜸 한국에 살며 가장 바라는 사항이 뭐냐고 물었다. “국적 취득요”, 조금은 큰 소리의 주저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신분상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연구자의 추측이 맞다면, 왜 국적 취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녀의 삶과 내러티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궁금증은 아직 잘 알지 못한 그녀를 이해하고 싶어진 데까지 이르렀다.



그녀와 잠시 대화가 가능한지 식당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했다. 바쁜 시간대가 비껴가긴 했지만, 손님이 근무 중인 직원과 사적인 일로 오랫동안 대화하는 건 실례다. 식당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그녀 역시 편한 상태로 면담에 임할 수 있다. 이내 짧은 허락이 주어졌고 테이블에 옮겨 앉아 5분간의 첫 면담을 시작했다. 이후 연구자는 종종 산자락 아래 식당을 둘러 그녀와 라포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라포가 형성되면서 그녀와 연구자는 연락처를 주고받아 그녀의 다양한 내러티브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으로 미취학 어린 남매를 두고 있었다.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연구자와 식당에서 만났던 한 달 전쯤 이혼했으며, 국적 취득이 안 된 상태였다. 물론 그녀는 한국 국적을 무엇보다 원하고 있었고, 그러한 바람 때문에 연구자가 처음 물음을 던졌을 때 주저함 없는 대답을 하였다. 이혼 후 홀로 한국생활을 해나갈 두려움과 두 자녀의 양육에 대한 고민으로 가정을 지키려 했다. 무엇보다 양육권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이혼을 깊이 고민했지만, 남편의 배신은 그 모든 두려움을 능가하게 했다.

이혼 판결 시 남편의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을 명시 받았으나 남편은 잦은 이직으로 돈이 없다며 이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남편의 불성실함과 가시지 않는 배신감은 그녀에게 사람에 대한 불신을 낳게 했다. 베트남의 부모님께는 차마 이혼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1~2개월 동안 낮에 혼자 있어야 하는 큰아이 때문에 부모님께 이혼 사실을 알렸다. 낮 동안 식당 일을 나가는 그녀 대신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을 양육도우미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겪은 복합적인 경험은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선행연구(김태량, 2019; 박미정 외, 2015; 이해경, 2015; 황해영 외, 2018)에서 나타난 다양한 결과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귀화는 일반귀화보다 간소하긴 하지만, 재정 여건과 배우자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국적 취득이 안 된 상태로 이혼하게 된 그녀는 체류자격을 위해 매년 1회 체류 연장을 해야 한다. 국적 취득을 위한 재정 요건은 기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현재는 1억에 가까운 재산 보유를 입증해





야 하므로(조세은 외, 2022)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그녀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 국적 취득은 한국인으로 동화되기를 바라는 열망보다 한국 사회의 온전한 성원권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며,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자 사회적 인정의 지표이다. 또한 이주민으로서의 생활안정이 보장되는 것이다(황정미, 2010). 즉 결혼이주여성에게 국적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징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적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단지 한국아이의 엄마로서 정체성을 가지며 그들의 신분은 불법 체류자 또는 외국인일 뿐이다(이해경, 2015). 국적 취득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와 법적 관계에 있을 뿐인 무자녀 결혼이주여성보다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존재이다(김강남, 2016). 따라서 모순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그녀를 포함한 또 다른 그녀들은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녀처럼 국적 취득이 안 된 결혼이주여성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F6-2 비자 발급이 어렵고, 단기 방문 C-3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거나, 출국했다가 자녀들로부터 초청받아 F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F1 비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 체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합법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020년 12월 21일 법무부에서는 양육권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는 몇 가지의 요건을 갖춘다면 거주 비자인 F2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격요건에 경제적 요건과 한국어 능력 등의 필수요건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한국일보, 2022).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국적 취득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으며,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자녀들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힘이 난다던 모성 강한 엄마였다.

그녀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미용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한부모 이주여성으로 두 아이를 양육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경제적 자립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양육이 해결되어야 하고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높은 욕구는 있으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약이 따른다. 이는 대부분의 직업훈



련이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김혜정, 2020).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목적과도 같은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혼인 파탄이 가져온 삶의 역경에 굴복하거나 침몰되지 않고 곳곳하게 살아가는 그녀는 삶에 대한 주체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그녀처럼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은 더더욱 접근하기 힘든 일일 수 있다. 연구자는 그녀가 하고 싶은 미용업을 하며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희망한다. 자신의 가게가 있다면 양육의 어려움 또한 해소될 것이라 생각했다. 제도적 지원을 통해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연구자의 바람이다.

“모든 생각의 주어. 모든 행동의 목적어. 모든 인생의 서술어. 인생 마지막 날까지 보듬고 가야 할 문장, ‘사람’ ” (정철, 2020)인 그녀가 그곳에 있었으며, 연구자는 그 ‘사람’ 을 우연히 만나 학위논문의 주제에 이르는 필연을 경험했다. 인간 존재의 발달은 언제나 부드럽게 상승하는 진보의 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아우성으로 이루어진 과정이다. 그 파동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다. 다양한 실패와 좌절, 상처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체적 삶으로의 성장 서사를 이루어 나간다. 그러므로 위기의 지점은 결코 위기가 아닌 성장의 지점이다(김미영, 2015; 김영순 외, 2023). 그녀 또한 위기의 지점이 성장의 지점이 되기를 바란다.

연구자는 그녀의 허락하에 연구(‘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연구’)를 진행하여 학술대회 발표를 했다.<sup>4)</sup> 그녀와 연구자 간에 있었던 사건과 행동들이 엮인 타래(weaving) 속에서 언제나 그녀의 꿈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고 맴돌고 있었다. 그러한 현상은 연구자를 긴장하게 했으며 세상을 향해 의미를 형성하게 했다. 소수의 의견이라 백안시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더욱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김영순 외, 2023).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녀를 위해, 그녀로 인해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4) 2022.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2022. 2. 26)



## 2.2.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목적은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질적연구에 적합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적절성’ 및 ‘충분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Creswell, 1998). ‘적절성’은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충분성’은 연구 현상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질적연구가 갖는 타당성, 유의미성, 통찰력은 연구참여자의 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연구참여자가 얼마나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자가 이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Patton, 1990). 즉 연구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라 그가 제공하는 정보, 그리고 연구자의 분석력이 질적연구를 더욱 빛나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연구에 적합한 연구참여자 선정에 대해 연구자는 다양한 현장들을 직접 발품 팔아가며 섭외를 시도했다.

연구의 방향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동향분석(남정연·김영순, 2023)을 실시했다. 문헌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직업, 취업 등 경제활동 경험의 제반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및 제도가 제약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연구자는 ‘발로 뛰는’ 현장연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연구자가 1차적으로 섭외한 연구참여자 및 자영창업장은 일곱 곳이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면담 순서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은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미용실로 지인의 소개로 가장 먼저 섭외되었던 곳이다. 2(‘수원 1’ 5)의 업종은 마사지이며 연구자가 종종 다니던 사우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 사우나와는 독립되어 운영되는 직영점이다. 마사지는 총 3회 유료로 이용하였

---

5) 연구참여자 섭외 시 경기 수원에서 마사지 업종의 연구참여자 두 명을 섭외하였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 ‘수원 1’과 ‘수원 2’로 임의 명명하였다.



으며, 면담은 주로 서비스받는 동안 진행하였다. 마사지숍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 예약은 필수였다. 연구참여자는 직업 특성상 고객과의 대화 상호작용이 많지 않았고, 거의 하루 종일 마사지숍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는 중국 한족 출신 이주여성이었다. 3은 베트남 쌀국수 식당이며, 연구동기가 된 연구참여자가 소개해 준 곳이다. 오산에 자리 잡고 있다. 4는 인도 네팔식당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섭외 목적으로 수원역 근처 다문화푸드랜드를 탐방하였다. 여러 곳에 문을 두드리며 다니던 중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식당 밖에는 출신 국가를 추측할 수 있는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 한 사람만 있을 뿐 식당은 한산했다. 자신을 네팔 출신이라 소개한 남자는 자신은 주인이 아니며, 주인은 A대학교 앞에서 인도네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자가 찾아갔던 곳은 주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분점 같은 곳이었다. 이후 연구자는 그가 알려준 대로 A대학교 앞의 인도네팔 식당을 찾아갔다. 5(‘수원 2’)는 건전 마사지숍으로 연구참여자는 중국 한족 출신이었다. 연구자는 총 3회 이용하며 연구참여자와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6은 시흥시의 핫플레이스에서 베트남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연구자가 한국어 강사 재직 시 만났던 동료 베트남 통역사에게 소개받았다. 7은 연구를 위해 방문했던 다문화가족센터의 센터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연구참여자다.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참여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활한 언어소통은 거주기간과 상관성이 있다. 결혼이주 여성의 창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11년, 평균 운영 기간은 4년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경제활동 참여 경험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거주기간은 평균 9년, 경제활동 기간은 평균 2년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능숙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하여 여러 차례 현장 방문 및 면담 진행을 계획했지만 개방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가 있을 시에는 존중하는 것이 타자지향성임을 확인했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탐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과 향후 정책 수립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졌다.

넷째,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자영창업체를 자랑스러워하며 애정을 갖고 운영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상의 고려할 점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탐구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1) 원활한 의사소통 2) 한국거주기간 및 영업 기간의 고려 3) 라포형성을 위한 타자지향성 발휘 4) 다양한 업종 고려 5) 긍정적인 사업가적 마인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 2.2.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에 적용된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15년 이상이며, 창업 자영업 운영 기간은 3년 이상 된 자다. 이는 위의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에서 1)과 2)를 포함한다.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위한 의사소통과 자영업을 하며 고객들과의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자영업을 운영하며 매일 장시간 고객을 응대하는 연구참여자는 일상언어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성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거주기간과 영업 기간이 길더라도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연구참여자는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숍을 운영하는 중국 한족의 연구참여자 2(‘수원 1’)가 제외되었다. 마사지라는 업무 특성상 고객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던 연구참여자는 한국 거주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숙도가 낮았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정보를 내러티브를 통해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자신의 자영창업체를 자랑스러워하며 좋아하는 연구참여자로 한정한다. 이는 자영창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의 기본적인 마인드일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지속성 및 확장성에도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며 중국 전통 마사지사술소를 운영하는 중국 한족 출신 여성 2(‘수원



2')는 자신의 직업을 남편에게 비밀로 했다. 즉 공장에 다닌다고 하며 남편과 친척들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 주말에는 남편이 있는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남편을 비롯한 친척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위해 '수원 2'가 운영하는 중국전통마사지를 세 번 이용했다. 건전 마사지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한 것은 이면의 사연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수원 2'는 오랫동안 운영해 왔던 마사지 샵을 정리하기를 원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 2'가 제외되었다.

넷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일지라도 현재 배우자가 한국 일반 남성인 연구참여자로 한정하였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염두에 두고 한국 거주 기간 평균 8년 이상 된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아 5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면담을 계획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매번 면담을 거절했으며, 연구자에 대하여 적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연구참여자는 국적 취득 후 이혼하였으며, 재혼 남편은 같은 출신국의 남성이다. 이러한 복잡한 사생활이 결부됐을 시 연구참여자는 손님으로 만났던 처음의 호의와 달리 면담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의 핫플레이스에서 베트남 식당을 운영하는 연구참여자 한 명과, 인천광역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연구참여자 한 명이 제외되었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복잡한 사생활이 없고, 부부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어도 배우자의 출신국이 대한민국이 아닐 시에는 연구참여자 선정 시 고려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네팔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S시 A대학교 앞에서 인도 네팔 음식점을 자영창업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로, 이 여성은 남편과 자신 모두 네팔 출신이다.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후 부부 모두 귀화한 경우다.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를 한국인 일반 남성에 한정하였으므로 연구참여자 선정 시 제외하였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을 단순히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않았다. 삶은 자로 켜 듯 정확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 때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해



은 여성이 한국 일반 남성과 결혼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될 수 있고,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해 와서 결혼이주여성의 신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신분 후 결혼이주여성이 된 경우와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모두를 연구참여자 선정에 포함했다.

여섯째, 특정한 업종을 탐색하는 것보다 다양한 업종을 탐색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성의 사회에서 서로의 기호와 취미는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의 이유 또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의 준비 과정이 업종마다 다르고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탐색하는 것은 유의미다.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지원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총 5명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2023)에 따라 4가지 업종(외국식 음식점업 2, 커피 전문점 1, 두발 미용업 1, 기타미용업 1)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선정 과정은 본 연구자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연구텍스트에서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연구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즉 내러티브 탐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탐구 공간의 세 가지 차원 모두를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내러티브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이야기된 삶의 복잡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순화된 이야기나 커버스토리를 피할 수 있다(Clandinin, 2013). 연구자는 최종 연구텍스트에만 중점을 두기보다 연구활동의 전 과정을 내러티브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연구목적에 더욱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탐구의 복잡성은 독자가 본 논문에 애정 어린 통찰력을 가지고 “세계여행” (Lugones, 1987: 3)을 할 수 있게 한다.

연구참여자의 섭외 및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차 현장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선정 조건에 미치지 못한 연구 현장을 다수 잃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참여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경험에 대한 경험(Clandinin & Connelly, 2000: 189)으로서 연구참여자 없는 내러티브 탐구는 있을 수 없다. 자칫 연구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상이었다. 1차 섭외를 통해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경우는 미용실 한 곳이었다. 과거 연구자



가 한국어 강사로 재직했을 시 베트남어 통역을 담당했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소개해 준 곳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좋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연구자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사례 현장을 소개 부탁했을 때 선뜻 미용실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확인 결과 연구참여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였으므로 연구참여자 A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섭외에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이 연구의 모티브가 된 그녀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다음 만남 때에는 베트남 식당에 가자” 라고 한 연구자의 권유에 “사촌 언니가 베트남 식당을 해요” 라는 말이 돌아왔다. 이렇게 섭외된 연구참여자 역시 연구참여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여 연구참여자 B로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 C는 연구실 동료의 소개로 섭외되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인 지인의 학습자로서 해당 조건들이 모두 부합하였다.

연구참여자 D, E의 경우 인터넷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접하면서 연구자 개인 SNS에 스크랩한 것이 1차 과정이었다(2022년 11월경). 연구참여자로 섭외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주저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섭외의 어려움을 겪는 내내 그들이 생각났고 섭외의 열망은 점점 강해졌다. 기사에 나왔을 정도면 창업 이후 정상궤도에 들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자영창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현장이다. 발품을 팔아가며 섭외했던 연구참여자들 선정 조건에서 부적합으로 결정될 때마다 연구자에게 아쉬움과 불안감이 동시에 엄습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협조 요청을 구하고자 이메일 발송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이 과정은 연구참여자 D, E의 섭외 2차 과정이었다(2023년 4월). 그러던 중 수강하고 있던 수업의 소그룹 모임에서 이러한 진행상황을 나누게 되었고, 그룹의 리더 멘토로부터 신문사의 담당 PD 연락처를 전해 받았다. 전해 받은 연락처는 연구자가 이메일을 보냈던 담당 기자의 연락처였고, 이후 연구참여자 D, E와 사전 연락을 통해 면담 날짜를 잡았다. 이 과정은 연구참여자 D, E 섭외 3차 과정이었다(2023년 4월). 연구참여자 선정 시 다양한 국적의 연구참여자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자격요건 부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필리핀, 중국 한족 출신 연구참여자가 배제되





었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출신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나이/ 출생연도	출신 국적	이주연도 /거주기간	가족관계	창업연도 /창업경력	업종	지역
A	36세/ 1987년	베트남	2008년/ 16년 차	남편, 아들	2021년/ 3년 차	미용실	경기 시흥
B	40세/ 1983년	베트남	2007년/ 17년 차	남편, 아들, 딸	2021년/ 3년 차	식당	경기 오산
C	41세/ 1982년	대만	2012년/ 12년 차	남편, 딸	2020년/ 4년 차	식당	서울
D	40세/ 1983년	베트남	2007년/ 17년 차	남편, 딸, 아들	2021년/ 4년 차	커피숍	경기 부천
E	35세/ 1988년	베트남	2010년/ 14년 차	남편, 딸	2021년/ 3년 차	네일숍	경기 부천

### [1] 연구참여자 A 요약

연구참여자는 1987년 베트남 호찌민에서 2남 7녀 중 7녀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 졸업 이후 새우 손질하는 회사에 취직했다. 일은 고되고 힘들었다. 몇 년 동안 새우 손질 회사에 다닌 연구참여자는 점점 지쳐갔다. 이런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당장 일을 그만두게 하셨다. 연구참여자 바로 위의 언니는 현재 경북 안동에 거주하고 있다. 언니 역시 결혼이 주여성이다. 언니를 방문하기 위해 처음 한국에 들렀던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 마냥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9남매 중 딸로서 막내인 연구참여자는 무엇보다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좋았다. 그래서 한국 남자와 만나 결혼할 때도 외모보다는 인간적이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선택했다. 연구참여자는 남편과 나이 차가 열 살 이상 차이 난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연구참여자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며 낯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연구참여자는 의사소통이 안 되어 매우 힘들었다. 남편과는 눈짓과 통역기를 사용해 가며 겨우 부부생활을 유지해 갔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방문교육지도사 서비스<sup>6)</sup>를 받게 되었고 5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다. 그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는 한국어가 능숙하게 발전하였다. 연구참여자는 7전 8기의 인고 끝에 미용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여러 미용실의 보조를 거쳐 코로나19로 한창 어려운 시기 남편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시흥시에 자신의 미용실을 오픈했다. 초기 자본금 3,700만 원이며, 임대료는 기존 190만 원에서 2023년 이후 10만 원 인상되어 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 [2] 연구참여자 B 요약

연구참여자는 호찌민에서 4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현재 경기 오산시에서 베트남 쌀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가족은 남편을 비롯한 중학생 딸과 아들이 있으며,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가 오산에 식당을 열게 된 계기는 친구를 만나러 오가면서이다.

택배 일을 하는 남편의 외벌이로는 두 자녀의 교육이 힘들다고 생각하였다. 베트남은 돈 있는 가정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학원에 보내지 않아 사교육에 자유로운 편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한국은 돈이 있든 없든 학원은 누구나 다 보낸다는 것이다. 사교육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중학교 3학년인 딸은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하여 현재 미용학원에 다니고 있다. 미용학원비는 월 40만 원으로 연구참여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편의 벌이로만은 자녀의 교육이 힘들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인적자본)을 활용하여 베트남 식당을 창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식당 오픈 시 초기 비용은 남편과 연구참여자가 반반 부담하였다.

6)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임신·출산지원, 자녀한글교육 지원, 자녀교육, 가족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이 방문교육지도사이다(남정연·김영순, 2022: 62).



식당 장소 결정 시 가족이 있는 대전에 오픈하고 싶었지만, 대전은 비용 감당이 안 됐다. 대전역 근처 식당 임대료는 170~180만 원이다. 반면 오산의 임대료는 80만 원으로 대전의 절반에 해당한다.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식당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다. 대전에는 주 1회 기차를 이용해 다녀온다. 버스보다 기차가 편하고, 집 근처에 바로 기차역이 있어서이다.

식당 주방은 가끔 셋째 오빠가 도와준다. 한국에는 연구참여자를 비롯하여 셋째 오빠,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이 나와 있다. 큰오빠는 베트남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둘째 오빠는 아버지와 농사를 짓는다. 형제들 모두 결혼하여 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곳 쌀국수를 좋아하는데, 국물이 시원해서다. 소고기를 넣고 여섯 시간 동안 푹 삶은 육수는 국물 맛이 좋아 특히 술 마신 다음 날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 [3] 연구참여자 C 요약

연구참여자는 1982년 대만에서 1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대학에서 영어 전공 후 한국에 있는 대만 여행사 입사를 위해 2005년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다.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2015년에 결혼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평소 대만 샤브샤브를 좋아했는데 한국에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샤브샤브 식당이 없었다. 이에 대만 샤브샤브 식당 창업을 계획했고, 대만 샤브샤브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무역회사 창업도 병행하게 되었다. 무역회사와 식당은 연구참여자와 남편, 부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식당은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던 2019년 12월에 오픈하였다. 서울 H대 근처에 자리 잡은 식당은 생각보다 보증금이 낮았는데 그 이유는 영업장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이었다. 오죽했으면 인테리어비용이 보증금보다 1,000만 원이나 더 들어갔을 정도다. 코로나19로 초기 식당 영업은 힘들었다. 며칠씩 영업을 쉬는 날이 있었지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연구참여자는 자리를 지키며 4년째 영업하고 있다. 현재 식당에는 연구참여자 부부와 대만 출신 남자 직원 한 명, 총 세 명의 인력으로 운영된다.



자녀는 초등학교 2학년인 딸 한 명이 있다. 딸에게 대만 중국어를 가르침으로써 이중언어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었는데, 대만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 자주 대만에 오가기 때문이다. 딸의 대만 중국어 실력은 현지 어린이의 수준과 비슷하다. 다만 쓰기는 말하기보다 어려워 좀 더 배워야 한다. 딸의 하교 시간에 맞춰 연구참여자는 식당에서 퇴근한다. 식당 일이 덜 바쁜 오전 시간에는 무역회사에 들러 일을 처리하고, 이후 식당에 출근하여 일손을 거든 다음, 딸의 하교 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것이다. 엄마로서, 영업주로서 그 무엇하나 빠짐없이, 손색없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연구참여자의 모습이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자신감이 많이 생겼음을 느꼈다. 위계질서가 있고, 존댓말이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불편함도 있지만,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행복하다. 대만 1인식 샵샵 식당 가맹점을 여러 곳에 내고 싶은 꿈이 있다.

#### [4] 연구참여자 D 요약

연구참여자는 1983년 베트남 호찌민에서 2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베트남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연구참여자는 졸업 후 1년간 회계 관련 직장을 다녔다. 또한 2년간 카페에서 일하며 커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당시 친척 오빠가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연구참여자의 사진을 보고 소개를 부탁했다. 이를 계기로 사업주는 베트남에 가서 연구참여자와 만났고, 연구참여자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 결혼하게 되었다. 한국에 오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며 베트남에는 현재 어머니와 형제들이 살고 있다.

스물다섯이던 2007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들어온 연구참여자는 연년생 딸과 아들을 낳았다. 사업을 하는 남편의 일손을 돕고자 8개월 된 딸과 4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며 출근했다.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 상호문화강사로도 활동하였다. ‘아시아문화인권연대’에 소속되어 인권교육과 베트남 문화 등을 소개한 것이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장이 많은 상권 지대에 커피숍을 차렸다. 초기 자본금 6,000만 원은 전액 대출받았으며,



인테리어는 남편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덕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커피숍 운영은 ‘백조’와 같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하고 우아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바쁜 날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특정 시간에만 몰려드는 손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도 없었다. 연구참여자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밤늦게까지 커피숍을 운영했다. 그러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자 커피숍 운영을 잠시 지인에게 맡겨둔 상태다. 지금은 커피숍 운영보다 자녀 돌봄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고 하였다.

한창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는 두 자녀의 돌봄과 사업으로 인해 지친 남편의 돌봄까지, 가족들은 연구참여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장인 정신으로 연구참여자는 섬세하고 그윽하게 돌봄 향기를 만들어 냈다. 백조는 잠시 날개를 접고 쉬고 있다. 물속에서 부지런히 헤엄칠 것을 대비하여 힘을 비축하고 다시 비상할 그날을 위해 주변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5] 연구참여자 E 요약**

연구참여자는 1988년 베트남 호찌민 인근에서 4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가 다섯 살이던 해 서른여섯의 젊은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큰 슬픔을 겪었다. 아버지는 곧 재혼하셨는데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연구참여자는 이모 댁으로 가서 이모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이모는 엄마와도 같은 존재였고 이모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연구참여자는 2011년 결혼이주로 한국으로 올 때까지 줄곧 이모 댁에서 지냈다.

연구참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다양한 일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 벌기에 매진했다. 엄마의 부재는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고 더욱 열심히 살고자 다짐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연구참여자는 커피숍을 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직원을 고용하여 커피를 내렸고 연구참여자 자신은 관리만 하였다. 그동안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온 연구참여자는 그렇게라도 잠시 자신을 쉬게 하고 싶었다.



2011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들어온 연구참여자는 딸 한 명을 낳고 이혼하였다. 전남편과 딸은 다른 시에서 살고 있으며 연구참여자는 틈틈이 딸을 만나러 간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엄마의 바람이 그대로 전해졌다. 어렸을 적부터 부재했던 엄마의 존재를 딸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다.

연구참여자는 4~5년 전 재혼하였다. 남편과 나이 차가 많아도 ‘오빠’라고 부를 만큼 안정적인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후 어렵사리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한 연구참여자는 경기도 부천시에 11평 남짓한 가게를 개점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의 30년 동안 세탁소가 자리하던 공간에 연구참여자의 꿈을 위한 동지가 들어섰다. 건물 외벽에 딸린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공용화장실로 갈 만큼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연구참여자는 고객들의 예약을 받아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녀의 성실함의 결과로 창업 6개월 만에 초기 비용을 회수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네일아트 작업을 하며 고객들과 많은 대화를 한다. 베트남 고객과는 능숙한 베트남어로, 그 외 외국인 고객들과는 공통어인 한국어로. 서로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소통하기에 더 즐겁고 유쾌하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 3.1. 자료수집

클래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7), 바덴 사빈과 니커크(Savin Baden & Niekerk, 2007)에 따르면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다양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 현장에서 손으로 기술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박봉수, 2016: 65)를 수집해야 할 만큼 다양한 자료수집은 자료 분석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직접적인 기록은 요구하지 않았다. 심층인터뷰와 현장 방문 시 참여관찰을 통해 작성한 ‘연구자노트’, 그

리고 연구참여자 D, E의 인터넷 기사 보도, 현장 사진 등을 수집함으로써 자료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 유형들은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자료수집 유형

### 3.1.1.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목적을 가진 대화’를 뜻하며(Bogdan & Biklen, 1992; Lincoln & Guba, 1985)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 통한다. 특히 연구자가 직접 관찰이 어려운 상황(지나가 버린 사건, 기억)이나 연구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을 위한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김영천, 2007). 또한 대부분의 집단 구성원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지식을 발견하고자 하는 경우, 대단히 복잡한 정서를 동반하는 연구문제일 경우, 동일한 활동 속에 개입되어 있으면서 개개인 또는 집단마다 복잡한 또는 다층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일 때,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면서 깊은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심층면담의 사용은 유용하다(Johnson, 2002: 103).

면담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연구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이명숙, 2002). 이는 연구참여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연구자



료 확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질적연구는 연구참여자가 곧 연구현장이 된다. 따라서 연구의 시작 단계부터 텍스트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원만한 소통을 하며 성공적인 자료 생성에 노력해야 한다(김영천, 2007).

내러티브 인터뷰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바라봄으로써 상호 이해를 가능케 하는 마음의 창으로 볼 수 있다. 즉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성공적인 면담이 이루어진다. 이때 질적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나름의 체계적인 인터뷰 가이드(interview guide)를 가져야 하는데(이동성, 2015: 82) 이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실천하였다. 첫째는 인터뷰의 장소를 연구의 국면에 따라 달리한 것이다. 심층면담은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연구참여자 D의 경우처럼 카페에서 만났을 때는 카페 내부에서 진행하다가 카페 밖 테라스로 옮길 수 있었다. 처음부터 조용한 장소에서 면담이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경우에 따라 공개된 곳에서 은밀한 장소로 점차 이동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녹취의 전천후 실행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식당에서, 미용실에서, 그리고 네일숍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일의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는 모든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시 그들의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였다. 예컨대 미용실이나 네일숍의 경우 서비스 준비를 위해 휴지기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면담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 레코드(voice record)는 항상 켜놓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의 중요한 말이 꼭 본격적인 인터뷰 중에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자는 연구의 마지막 수정 작업까지 전사록을 검토하였으며, 그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비공식적 인터뷰 때 오갔던 자료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인터뷰 현장에 들어서면서 작동시킨 보이스 레코드를 인터뷰가 끝나고 나올 때 종료시키는 것으로 자료수집 확보에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 <표 III-2>는 심층면담 일정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III-2〉 연구참여자 심층면담 일정

참여자	현장연구 및 면담	1차	2차	추가면담
A	2022.12.20.	2023.1.12.	2023.3.17.	2023.9.1.
	통화	미용실	미용실	통화
B	2022.9.8.	2023.3.3.	2023.4.27.	2023.8.23.
	현장연구	식당	식당	식당
C	2023.4.7.	2023.4.12.	2023.7.13.	2023.9.12.
	통화	식당	식당	통화
D	2022.11.11.	2023.4.13.	2023.6.7.	2023.8.8.
	인터넷 기사	연구참여자 자택 인근 커피숍	베트남 커피숍	통화
E	2022.11.11.	2023.4.14.	2023.5.24.	2023.8.8.
	인터넷 기사	네일숍	네일숍	통화

연구참여자 D의 1차 면담을 제외한 모든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 각각의 자영업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했으므로 휴무일을 피해 약속을 잡았다. 또한 각 자영업 현장의 서비스를 연구자가 유료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운영되는 날 방문해야 했다.

연구참여자들과의 라포형성을 위해 연구자는 자영업 현장 방문 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다. 예컨대 롤케이크는 끼니를 놓친 연구참여자들과 연구참여자 자녀들의 간식 대응으로 유용했으며, 선물용 과일 주스는 연구자가 예의를 나타낼 수 있는 소소한 품목이 되었다. 심층면담은 인간과 인간의 진솔한 만남이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청해야 하는 내러티브 탐구의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참여자들과 연구자 간의 라포형성이 잘 되어야 한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감은 라포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심층면담은 2차례의 면담과 추가면담을 포함하여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모두 개별 면담으로 회당 각각 약 60~90분 정도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은 기본적으로 2회로 구성하였으며, 면담을 추가적으로 수행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추가 면담은 대면 또는 전화 통화로 진행하였다.



1차 면담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개인적인 일 상사를 묻는 것으로 이어졌다. “대만 샵브샵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가게는 작지만, 너무 예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국에는 언제 처음 왔습니까?”,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자녀는 몇 명입니까?”,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격증은 언제 따셨습니까?”, “손님은 많습니까?”, “한국 손님이 많습니까? 아니면 (출신국) 손님이 많습니까?” 등의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자영창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의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손님과 면담을 진행하는 연구자로서의 1인 2인 역할을 하는 연구자에게 연구참여자들은 약간의 긴장감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소개받아 방문한 현장에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자신들의 환경을 의식해서라고 판단했다. 즉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아 언어적 소통에서 오는 괴리감과 개인적 상황들이 점철되어 당당함 속에 비친 긴장감이었다. 따라서 2차 면담에서는 현재의 자영업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들음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당당함과 현재의 성공을 의식하게 했다. “장사가 안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격증 딸 때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코로나19로 한창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가게를 개점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사장님의 꿈은 무엇 입니까?”,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였습니까?” 등의 질문을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을 통한 경험과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거주기간은 적게는 10년 이상 많게는 17년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을 한국에서 지냈다. 그런데도 면담 시 연구자가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명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말을 다시 따라 함으로써 확인하였다. 면담이 진행된 매 회기마다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통해 연구 현장의 전반적인 느낌, 연구참여자의 행동, 고객들에 대한 응대 등을 기록하였다. 최대 익일까지 녹취록을 통한 전사록 작성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전사록은 클로바 노트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전사록 작성 시 ‘참여자1’ 과 ‘참여자2’ 로 표시하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를 구분하였다.

### 3.1.2.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세계에 머물면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의미한다(김영천, 2012). 연구자는 ‘연구자노트’ 로 명명된 참여관찰 일지에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느낌, 후기 등을 스케치하듯 메모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자영업체 현장 내·외부를 비롯한 메뉴판 등을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사진을 찍었다. 이때 연구참여자에게서 받은 명함도 따로 관리하여 명함에서 드러나는 연구자의 스타일도 분석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다른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보이는 반응과 고객을 대하는 연구참여자들의 모습을 외부자적 관점에서 관찰하였다.

참여관찰일지 즉 연구자 노트는 면담 당일 연구실 복귀 후 바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최대 익일까지 작성 완성을 통해 현장감을 살리려 노력했다. 연구참여자 D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자택 근처 커피숍에서 면담을 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 자녀들의 하교 시간에 이르러 연구참여자 요구에 따라 종료되었다. 연구참여자가 돌아간 이후 연구자는 커피숍 테라스에 1시간 이상을 머물며 면담을 통해 전반적으로 느낀 점, 연구자의 성찰, 다음 면담 시간에 질문할 것들을 써내려 가며 그때의 강렬한 감정과 기억들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는 일과 반성적 입장을 갖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 텍스트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면담 약속이 있는 날은 습관적으로 현장 텍스트를 기록했다. 현장 텍스트의 구성은 기억으로 구성된 사건 보고서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3.1.3. 문서자료

‘문서(document)’는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록물’이라는 광의적 의미와 상징적 표시를 통해 개인 사고의 표현을 제공하는 일체의 것이라는 세부적 의미를 함께 지닌다(Longman Dictionaries, 1995: 397; Penguin Random House, 2015). 즉 문서는 상징적 표시를 통해 개인 사고의 표현을 제공하는 일체의 기록물로서, 사고가 표현되는 수단이다. 기록물에는 개인의 사고가 담겨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사고의 중요성까지 자서전, 편지, 사진, 출판물, 대중매체, 사이버 문서, 공공 기록, 보고서, 통계자료 등이 연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며(Scott, 2006), 특히 개인에 대한 기록은 ‘후세 사람들의 기억을 위한 기념물’일 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기록의 문서’로 작용한다. 또한 신문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주로 공공의 특정한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의 사회적 영향, 다루어지는 양상 등을 탐구한다(김영천 외, 2017). 연구참여자 D와 연구참여자 E의 문서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sup>7)</sup>

### 3.2. 자료분석

다양한 원천 자료의 수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대화 내용 전사록 A4 350매, 연구자노트 및 비형식 면담 노트 2권이다.

내러티브 탐구의 방향성에 의거하여 수집한 현장 텍스트를 연구 텍스트화하기 위하여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인 시간성, 사회성, 장소’를 분석 준거로 삼아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결혼이주 전 경제생활 참여, 결혼이주 후 경제생활 참여 그리고 자영창업의 준비단계, 현재, 미래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7)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2.2. 연구참여자 선정’ 부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주로 사용했던 양적 연구와는 또 다른 특징과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분석과정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영천, 2012). 또한 연구참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미 한 번 해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그들이 왜 과거를 그렇게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염지숙, 2003).

#### 4. 연구 윤리

본 연구는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인 참여자 연구로 다음과 같은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 소수자라 할 수 있으므로 윤리적인 고려는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2022년 11월 인하대학교 윤리심의위원회(IRB)의 기준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참여자 선정 방법, 연구 절차, 연구의 위험성과 보상, 자발적 참여와 철회의 자유, 비밀보장, 자료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심의를 의뢰하였다. 심의 과정을 거쳐 2022년 12월 28일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221128-9A이다. 심의 후 연구참여자 섭외를 위한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종 섭외된 연구참여자에게는 본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설명문 및 연구 참여 동의서는 인하대학교 기관 생명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본내용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자의 정보, 연구 절차, 수반될 수 있는 위험과 보상, 자발적인 참여와 철회의 자유, 비밀보장, 자료보관 및 폐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참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연구를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연구참여자의 자발성을 유도하였다(권지성, 2007). 면담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후에 녹음을 진행하였다. 영업 공간 및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을 시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으며 연구텍스트에는 인물이나 상호 등에 모자이크 처리하여 나타났다. 연구 진행 시 녹음자료 및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지하였다. 녹음



된 내용은 한글파일로 전사하였고, 전사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연구자가 활용 중인 연구참여자 자료들은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고 연구자의 개인 노트북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사진 및 면담 기록들은 연구가 끝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생명윤리법에 의거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질적연구자의 역량 함양과 본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2021년 7월, 2022년 1월, 2월, 7월, 8월, 2023년 1월, 2월, 7월, 8월 방학 기간에 질적연구방법 캠프에 9회 참가하여 질적연구의 기본을 익히고, 연구자로서의 연구 윤리를 배웠다. 둘째, 2022년 5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 설계와 연구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았으며 이는 논문연구 정규수업과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넷째, 연구자는 연구공동체의 월례발표회, 정기적인 세미나, 정규수업(2022년 ‘다문화융합 질적연구방법론’, 2023년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학위논문 발표회에 참가하여 다른 질적연구자들의 코멘트를 받았다. 특히 수업과 세미나 발표를 통해 동료 박사과정 연구생들과 박사 멘토들의 검토를 받음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논문(남정연·김영순(2023) ‘스코핑 방법 활용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1편을 게재하였다. 여섯째, 연구자는 석사 전공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 취약함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일곱째, 석사 졸업 논문의 연구참여자 역시 결혼이주여성이었다면 만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지식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와 섭외 및 면담 시 연구참여자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연구자료 분석 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상 이해하기 힘든 단어, 맥락 등이 발견됐을 때는 인터뷰를 통해 응답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피드백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자료의 분석과 해



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해석과 결과제시가 맞는지 연구참여자 확인(member check) 과정을 실시하였다(송안나, 2014).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자영창업을 운영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업무적 특성과 언어적 특성으로 문서를 읽고 확인 작업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면담 내용을 다시 묻거나 이야기 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표현 및 기술의 의미가 맞는지, 의견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해석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이경아, 2014). 이러한 확인 과정은 다음 심층면담을 위해 방문했을 때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IV 장의 ‘1.1. 이주 이전 이야기, 1.2. 창업 준비 이야기, 1.3. 창업 이야기’는 연구의 취지에 맞게 구성하였음을 연구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연구자에 의해 치우치지 않고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비교 검증하는 삼각 검증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출처, 다양한 자료, 다양한 연구법으로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연구에 반영했다(김신혜, 2017). 수집된 면담, 연구자 노트 및 성찰, 비형식 면담, 문서자료 등을 비교 검증하며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학위과정 동안 지도교수로부터 연구방법, 심층인터뷰, 질적연구분석에 관한 수련을 받았다.

## IV.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내러티브 읽기

본 연구에서는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발현되는 주체성을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이 아닌 낯선 한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삶의 매우 치열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이주 이전 본국에서의 경제생활 경험, 창업을 준비하기까지의 경험, 창업 및 운영해 나가는 과정과 경험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재현할 것이다.

인간은 사회·역사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살아가며, 그 맥락에 의해 형성되어가는 존재이다(Freire, 남경태 역, 2007: 37). 뿐만아니라 인간이 하는 여러 실천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게 된다면 개인의 선택이라는 자의성에 빠지고 만다. 그것이 질서 있게 배열되려면 그 사람의 삶을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매킨타이어는 인간 행동을 하나의 통일된 내러티브로 이해하면 인간의 삶을 통일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가지성, 가지적 행동, 내러티브 개념으로 인간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나아가 삶을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미영, 2006: 95).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내러티브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자영창업 기점만 파악하는 것보다 결혼이주 이전 본국에서의 경제생활 참여 역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경험을 이주 전 이야기, 창업 준비 이야기, 창업 이야기로 구성하여 각각 기술하였다.

### 1. 미용실 운영자 연구참여자 A

#### 1.1. 이주 이전 이야기

##### 1.1.1. 아홉 형제 중 여덟째, 즐거웠던 유년 시절





연구참여자 A는 1987년 베트남 호찌민 남부에서 5남 4녀 중 여덟째로 태어났다.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지만 딸로는 막내다. 연구참여자 A의 부모님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한 세대여서 자녀 역시 다자녀인 경우가 많았다. 9남매 중 여덟째로 태어난 연구참여자 A는 막내나 다름없이 자랐다.

저 고향은 베트남 호찌민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요. 지금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만 계세요. 아빠는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형제는 오빠, 언니 있어요. 저 아홉 남매예요. 엄마는 열일곱 살에 결혼했어요. 옛날에 베트남에서는 일찍 결혼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자녀가) 10명 넘게도 있어요. 원래 베트남에서 열여덟 살 때부터 결혼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좀 늦게 해요. 요즘에는 25살 넘게(해요). 엄마 지금 70 다 됐어요. 큰오빠는 50 넘었어요. 나는 내가 거의 막내니까 아무도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과거 베트남은 느텨땀, 남텨록(Nữ Thập Tam, Nam Thập Lục)이라는 전통적인 조혼 풍습이 존재하였는데 남자 16세, 여자 13세가 결혼 적령기라고 하였다. 베트남의 조혼 풍습은 농경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일부 신부는 신랑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역시 농경문화에 따른 시댁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졌으나 타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결혼 연령은 여성의 경우 16~18세이며 법적으로는 최소 18세로 정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20~21세이며 법적으로는 최소 2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장준영, 2021).

이러한 조혼 풍습에 따라 연구참여자 A의 부모님(특히 어머니의 경우) 역시 열일곱 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다산(多産)한 것으로 보인다. 열여덟 살에 첫 출산을 한 후 2년의 터울을 셈한다면 연구참여자 A의 어머니는 이후 30대 중반까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셈이다. 연구참여자 A가 즐겁고 ‘아무도 생각 없이’ 살 수 있었던 데는 그녀가 말한 대로 막내와 다를 바 없는 위치뿐만 아니라 베트남 가족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베트남의 부모들은 항상 행복한 가족을 원하며, 자식들이 조화롭게 잘사는 것을 소원한다. 이는 한국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되기 위해



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할 줄 안다. 따라서 부모의 삶은 자녀를 위한 것이며, 자녀교육이 부모의 최우선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김영순 외, 2013).

베트남의 이러한 특징적인 가족문화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그렇지 않은 가족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화목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나친 가족관계를 강화하는(김영순 외, 2013)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는 나라와 민족들이 갖는 고유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A가 여의치 않은 가정 형편과 많은 형제자녀 속에서도 밝게 자랄 수 있었던 데는 베트남의 가족문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 A의 4자매 중 2명이 결혼이주여성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며 그녀의 조카 역시 결혼이주여성이다.

5남 4녀예요. 저 여덟 번째. 안동에서는 일곱 번째. 안동 언니도 있어요. 안동에서 살아요. 친언니예요. 그 언니는 일곱 번째. 저는 여덟 번째. 나머지는 다 베트남에 있고. 언니는 안동에서 회사 다녀요. 한국말도 잘해요(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작년에 큰 언니 (한국) 왔어요. 가평에. 딸 한국에 시집왔어요. 큰 언니는 40대 후반. 딸은 지금 스물여덟(이에요). 언니는 스무 살에 결혼했어요. 조카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아기 낳아서 언니가 애기봐줘요. 지금 10개월(됐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 됐어요(웃음) (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베트남의 조혼 풍습은 큰언니에게도 적용되었는데, 현재 48세인 큰언니는 외손주를 본 ‘할머니’ 이다. 외손주의 돌봄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고 있다. 일곱 번째 형제이자, 연구참여자 바로 위의 언니는 경북 안동에 살고 있는데, 연구참여자가 한국 결혼이주여성인 된 계기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A와 같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데 있어 주변 지인들의 역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박선미, 2023: 204).



아홉 형제 중 여덟째이며 딸로서 막내인 연구참여자 A는 막내와 다름없이 자라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결혼 이주 이후에는 한국에 있는 언니들과 교류하면서 낯선 땅, 낯선 문화에서 오는 문화 충격을 비교적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데 주저하지 않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변모해 가기도 하였다.

### 1.1.2. 어려웠던 가정형편, 아빠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

연구참여자 A의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셨지만, 집안 형편은 그다지 풍족하지 않았다. 우선 딸린 자녀가 많았으며,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맡으셨던 아버지는 그들에게 많은 이윤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A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안타깝고 죄송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아빠가 건설업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다 저렴하게 해요. 너무 비싸게 많이… (안 받았어요). 남은 게…(없을 만큼). 아빠가 사장님 했어도 우리 힘들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홉 남매라서 부자 아니었어요(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아빠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 아빠는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연구참여자 A의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셨지만, 많은 이윤을 취하지 않으셨다. 남는 이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아홉이나 되는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을 터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A의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윤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양심적이고 착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멋진 아버지이다. 물질보다 정신적인 윤택함을 추구하셨던 인간적인 아버지였다. 그런 멋진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 베트남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 이웃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친하고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다. 이웃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방문하여 물



심양면으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정서적 측면이 강하다(김영순 외, 2013).

연구참여자 A의 아버지 또한 이웃의 존재와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윤만 남겼다. 대부분의 기업과 사업가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추구다. 보편타당한 현상이다. 따라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과 많은 자식들을 생각하여 적당한 이윤을 추구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서 연구참여자 A는 아버지의 고뇌와 가장의 무게를 진지하게 느꼈다. “아빠(가)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 안쓰러움과 죄송함과 감사가 묻어나는 이 한마디는 아버지에 대한 헌사다. 한편 건설업을 하셨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연구참여자 A는 후일 자영창업을 하는 데 있어 불안함 대신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 1.1.3. 첫 취업, 삶의 고단함을 경험하다

연구참여자 A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이다. 졸업은 하였지만, 곧바로 취업은 하지 않았다. 이후 스무 살 무렵 첫 직장에 취업하였는데, 첫 직장은 그녀에게 고단함이었다.

베트남에서 우리 옛날 저기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까지(나왔어요). 졸업하고 회사 다녔어요. OO 회사(처음에 연구자가 알아듣지 못해 재차 물어봄). 새우 회사였는데, 그냥 까는 거 했어요. 거기에서 1년 일했어요. 새우 까는 일. 껍질 다 깎았어요(연구참여자 A가 손으로 새우 까는 모습을 보여줌). 1년만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했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엄마가 그만두라고. 그리고 스물두 살 때 결혼(했어요)…(웃음)(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연구참여자 A는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다. 처음 만나는 연구참여자에게 학력을 물어본다는 것은 실례이지 않을 수 없다. 연구참여자 A 역시 머뭇거리듯 대답하였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대체로 학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김현실, 2008), 이들의 61.1%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성훈, 2010). 1986년에 ‘도이



머이(Đoi Moi, 쇄신)정책’<sup>8)</sup> 이후 베트남의 시장경제 확산과 그에 따른 인적자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베트남 국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서흥란 외, 2016).

연구참여자가 스무 살 무렵 가게 된 첫 직장은 새우를 손질하는 곳이었다. 즉 생새우를 일일이 손으로 다 까야 하는 수작업 위주 직장이었다. 이는 비숙련노동이었지만 매우 고된 작업이었다. 고된 작업의 연속으로 연구참여자가 A는 살이 심하게 빠졌다. 딸이 여위어 가는 모습을 본 그녀의 어머니는 퇴사를 권했다. 퇴사 후 집에서 건강을 회복한 연구참여자가 A는 이듬해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왔다.

## 1.2. 창업 준비 이야기

### 1.2.1. 교류와 소통이 없어 숨 막히는 회사

연구참여자가 A는 한국에서 휴대폰 부품 조립하는 직장에 다녔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그녀는 일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늘 답답함을 느꼈다. 연구참여자가 A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며, 자신과 맞는 일을 해야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사는 앉아서 일만 하고 집에 가고, 밥 먹으러 가고, 1시 반에 또 일 시작하고, 답답해서 죽겠어요. 막 사람들이 말을 안 해. 회사에서는 약간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그런 일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 전자 제품 조립하고 하는 그런 일 답답해요. 회사에서 베트남 친구들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는 회사 좋아했어요. 회사 많이 좋아해요. 제가 맨날 그냥 회사 다니지 말고, 기술 배우자고(했어요) (연구참여자가 A, 2차 면담).

8) 베트남어로 개혁을 뜻하는 도이모이(Đổi mới)는, 경제(가격 안정, 국제분업형 산업구조, 생산성의 향상), 금융 면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목표로 내세운 슬로건이다(서흥란 외, 2016).



근데 난 식당이(식당을 운영하는 일) 싫어요. (연구자: 힘들어서요?) 아니 이게 싫어. 싫어해요(웃음). 집에서는 그냥 그래도 남편 오니까 해줘야 하고, 아들도 해줘야 하고. 만약에 만약 내가 혼자 있으면 안 해 먹어요(웃음). 왜 이렇게 요리 싫어해요? (왜 이렇게 요리하기가 싫은지 모르겠다) (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성격이 외향적이고 바깥 활동을 좋아했던 연구참여자 A는 답답한 회사 생활을 싫어했다. 특히 휴대폰 부품 조립 회사 다녔을 때는 사람들과의 소통조차 없어 답답함은 더욱 배가 되었다. 서로 말도 없이 정해진 일과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연구참여자 A는 그만두고 나가고 싶었다. 당시 공장의 동료 중에는 베트남 여성이 2명 있었는데, 연구참여자 A는 그들에게 같이 기술 배우기를 권했다. 부품 조립을 하는 비숙련노동이 아닌 기술을 배워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동료 베트남 친구들은 그녀와 바람과 달리 당시 일에 만족하고 있었다. 사람은 다 제각각이니 하고 싶은 일이 다를 수 있고, 꿈꾸는 미래가 다를 수 있다.

연구참여자 A는 바깥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살아갈 때 삶의 활력을 느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정주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그녀가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였다. 음식 역시 가족을 위해, 즉 남편과 아들을 위해 하는 것일 뿐 연구참여자 자신을 위해서는 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엄마와 다른 언니들은 모두 요리를 잘하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요리하기가 싫은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연구자에게 반문했다. 그래서 자신은 식당 운영은 싫다고 하였다. 하기 싫지만, 가족을 위해서 하는 요리,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외향적인 성향은 그녀의 내러티브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이는 1, 2차 면담과 추가 면담을 통해 여러 번 표현되었다.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연구참여자 A의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다는 거다. 미용실을 하지 않았다면 커피숍, 치킨 가게를 했을 거라는 사장님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은 적성에 안 맞는다고 했다. 답답하고 좀이 쑤시나 보다. 집에 가만있는 것도 답답하다고 했다(연구자 노트).



만약 미용실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카페나 치킨집을 했을 거라는 연구참여자에게서 자유에 대한 의지도 엿보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때 삶의 기쁨과 가치를 더욱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연구참여자 A는 그대로 보여 주었다.

### 1.2.2. 미용 자격증 취득, 7전 8기의 성취

연구참여자 A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직업교육을 받았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미용 자격증이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녀의 자격증 당락을 결정했던 것은 언제나 원활하지 않은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었다.

처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해 학원 다녔어요. 그때는 국비 있어서 돈 안 내고 학원 다녔어요. 전액 다 무료로. 그때는 그 베트남 사람 한 4명 정도 다녔는데 필기 때문에 그냥 다 포기했어요. 저만 남았어요. 저도 필기 어려워서 그때 한국말도 모르고 계속 학원만 다니면서 1년 정도 걸렸어요. 실기는 좀 괜찮은데(연구참여자 A, 1차, 2차 면담).

연구참여자 A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격증반을 이수하면서 미용학원에 다니게 되었다.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증의 시행처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훈련기관은 직업전문학교 미용 6개월 과정 및 여성발전센터 3개월 과정 등이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미용이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피부학, 공중위생법규가 있고 실기시험은 미용작업을 해야 한다. 검정방법은 필기시험이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이고, 실기시험은 작업형(2시간 20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다(감승자·김정원, 2019).

학원비는 국비로 지원받아 전액 무료로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필기시험이었다. 자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치러졌는데 부족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1차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같이 시작했던 동료 베트남



여성 3명은 모두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계속된 필기시험의 탈락과 부담감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 A 역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반복된 탈락에도 굴하지 않고 연구참여자 A는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7번째 도전에서 이뤄낸 결과였다.

연구참여자 A가 자격증 취득을 하기까지 학원장은 많은 격려를 해줬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인턴 과정을 할 수 있는 미용실을 알아봐 주는 친절함도 베풀었다.

필기 때문에 베트남 친구들이 그냥 다 포기했어요. 저만 남고. 원장님이 저한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했어요. 조금 더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원장님한테도 제가 더 한다고(말했어요). 그때 시험 합격하면 원장님이 제일 좋아해요. 딸처럼 생각했어요. 미용실에서 처음 일 한 곳이 학원 원장님 사모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일했어요). 그러니까 잘 해줬어요. 원장님이(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연구참여자 A는 자격증 과정 동안 미용학원 원장님에게 많은 용기와 격려를 받았다. 베트남 친구들이 모두 포기하고 연구참여자 A 혼자만 남게 되었을 때도 원장님은 끝까지 하라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기술과 자격증이 있으면 한국에 정착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동기를 설명해 주었다. 즉해야만 하는 이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당위성 등을 얘기하며 연구참여자 A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 1.2.3. 미용실 구직의 어려움

미용자격증을 취득한 후 연구참여자 A는 지인의 미용실에서 2~3년 동안 인턴 과정을 거쳤다. 또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그녀는 휴대폰 부품 조립 회사에 문을 두드렸고, 소통이 부재한 공간 속에서 답답함을 느껴 스프링처럼 튀어나왔다. 다시 미용실에 구직을 시도하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학원 다니고 회사 잠깐 다녔어요. 그때 회사에서 나와서 다른 미용실 다 알아봤는데 사람 안 써요. 나이 있어서 안 써요. 서른 넘으면 안 써. 진짜. 내가 전화해서 다 알아봤는데, 전화해서 30대는 다 안 받아요. 20대만 뽑아요. 월급 적게 받아도 괜찮고, 왜냐하면 회사 싫어. 회사는 싫고 집에서 놀면 답답하니까 미용실 취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다 안 돼요. 알바 다녀도 그냥 파마 손님 샴푸만 많이 해. 다른 거 안 시켜. (중략) 남편이 다 전화해 줬어요. 제가 전화 안 해요(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연구참여자 A는 다니던 회사를 나와 미용실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일 자리를 알아보았다. 한국어가 서툰 연구참여자 A를 대신해 그녀의 남편이 일일이 미용실에 전화해 채용정보를 파악했다. 그러나 종사원을 채용하는 미용실은 거의 없었고, 간혹 있어도 20대의 젊은 직원만을 원했다. 자격요건이 일의 경력이 아닌 젊은 나이였다. 30대였던 연구참여자 A는 나이로 인한 채용 배제를 경험했다. 실제로 미용실의 각 유형별 종사자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및 미용관련학과 교과과정의 만족도에 관해 연구한 김기운 외(2013)에서도 이를 뒷받침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즉 연구자료에 활용된 설문조사는 경기지역에 있는 프랜차이즈 미용실과 일반 미용실에 종사하는 미용실 직원으로 분류하여 연령에 제한 없이 각각 15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20대가 53.0%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0%, 40대가 12.7%, 50대가 3.7%, 60세 이상이 0.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80.0%, 남성 20%로 나타났다. 30대의 결혼이주여성인 연구참여자 A가 냉랭한 답변을 들었던 데에는 미용업계의 구조적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화로 구직 및 채용 문의 시 연구참여자 대신 그녀의 남편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다. 한편 문의를 받은 미용실 측에서는 연구참여자 A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직원 채용에 있어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 1.3. 창업 이야기

#### 1.3.1. 구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용실 창업

미용실 구직 과정에서 미용실마다 거부당한 연구참여자 A는 상심과 조바심이 교차했다. 구직에 대한 초조함 또한 커져 갔다. 미용실에 채용되더라도 펌이나 커트 등의 메인 시술보다는 손님들의 샴푸를 하는 보조 업무에 더 많이 투입될 것을 예상했다. 채용의뢰를 위해 전화했던 남편은 채용정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떡구름이 드리운 연구참여자 A의 구직현장에서 그녀의 남편은 창업을 도움으로써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감당했다.

좀 미래를 위해 용기 내서 (미용실 창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용기 내기를 잘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미용실에서 사람, 직원 안 써요. 그 손님들도 없고. 이거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이거 미용실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바 다녀도 그냥 파마 손님 샴푸만 많이 해. 다른 거 안 시켜. 그래서 남편이 “알았어. 니가 해.”, “내가 해 줄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용 잘했어요(미용실 창업하기 잘했어요). 손님은 평일보다 주말에 많이 와요.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어요. 손님이 왜 없지? 막...(걱정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 후에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친구들도 오고, 또 단골들도 오고(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미용실에는 손님이 끊임없이 왔다. 특히 주말에는 손님이 더 많이 온다고 했다. 그러나 창업 초기에는 손님이 없어 많이 불안했다고 했다. 창업 초기의 이야기를 하며 연구참여자 A는 많이 웃었다. 이제는 그때를 돌아보며 즐겁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미용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창업 이후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손님들이 꾸준히 오면서 단골이 되기도 하고 친구들도 이용하면서 연구참여자 A의 불안은 사라졌다.

연구참여자의 미용실 인테리어는 남편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따라서 토털 인테리어라기보다 각 요소마다 ‘따로따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여기 가게 처음에 3,7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인테리어는 남편 아는 사람의 따로따로 인테리어 했어요. 가겟세는 지금 올라갔어요. 월 200만 원. 원래 190(만 원)인데 지금은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건물주인이, 건물이 회사였는데 이제 개인으로 넘겨 가지고 그래서 좀 올랐어요. 지난주에 재계약서 썼어요. 관리비까지 하면 250~260만 원 정도 돼요(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연구참여자 A의 미용실은 경기도 시흥시 S시장 입구에 위치해 있다. 건축 연도가 최근인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규모 15평에 천장이 높아 답답함이 없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갖춘 미용실은 월세 또한 비쌌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고정 지출 금액이 260만 원에 달했다. 소규모 자영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월 고정 금액치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인테리어는 남편 지인의 도움으로 비용을 절감하였다.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연구참여자 A의 남편은 인테리어 관련 거래처 여러 곳에 부탁하여 보다 싼 값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다. 사업장의 보증금과 월세 외에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이 인테리어 부분인데, 이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절감했다.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창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가게 이사 결정 시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이전할 가게 위치, 인테리어 등을 도맡아 한다. 또한 이주여성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친정어머니는 식당의 주방을 책임지고,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양육을, 남편은 집안일을 돕는다. 이처럼 이주여성의 창업과 성공은 초국적 협력, 철저한 가족구성원의 분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류유선, 2021: 145). 연구참여자 A의 미용실은 이렇게 남편의 지지와 협조 속에서 창업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의 미용실은 큰 길가에 인접하여 찾기 쉽고,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 고객의 편이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1층으로 올라와 보니 꽤 큰 건물이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브릿지가 연결해 주는 구조였다. 엘리베이터는 그 건물들 사이에 있었다. 즉 중앙 엘리베이터를 향해 양쪽 건물이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건물 코너를 돌아 헤어샵으로 향했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는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았다(연구자노트).

가게 바로 앞쪽에 위치한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니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화장실은 건물 밖으로 나가서 바로 옆 또 다른 건물에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화장실이 깨끗하다. 화장실 이용도 관리비에 포함될 것 같다. (중략) 가게는 기다란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천장이 꽤 높아 꼭 복층을 연상케 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반대편으로 또 다른 출입문이 있어, 그 문을 이용하여 화장실 출입이 가능하다. 후문 옆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곳은 주로 사적 공간 같았다(연구자노트).

아래 [그림 IV-1]은 연구참여자 A의 미용실 내부 모습이다.



[그림 IV-1] 연구참여자 A의 미용실 내부 모습

연구참여자 미용실의 내부는 천장이 높고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쾌적함이 느껴지고 시야 확보에 용이하다. 건물 바로 앞은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이 있어 주차 또한 편리하다. 건물 주차장은 밖으로 나가 연결된 통로로 이용한다. 연구자는 1차 면담 때에는 건물 내에, 그리고 2차 면담 때에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였다. 건물 주차장은 조금 돌아가는 대신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다는 점, 공영주차장은 미용실 바로 앞이라 최적의 동선이지만 별도의 비용이 부과된다는 장단점이 있었다. 소매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설적 요인으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과 주차



장의 편리성으로 나타난 조상문(2021: 40)의 연구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연구참여자의 미용실은 큰길과 시장 인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연계성이 좋은 편이다. 또한 건물 자체 내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기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도 좋다.

### 1.3.2. 다른 나라에 왔으니 성공해야 해

연구참여자 A의 미용실은 현재 안정권에 진입하였다. 그렇게 되기까지 연구참여자 A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으며 열심히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내가 다른 나라에 왔으니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여기 미용실 연 것도 그래서... 멀리 와서 열심히 살아야 해요 (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이 이주여성이라는 신분을 생각하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게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본국에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 그녀는 더 성공하길 원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결혼이주여성, 연구참여자 A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보였다.

우리 미용실에는 외국 사람 50%, 한국 사람 50 와요. 여기 시장 근처인데 근데 여기는 사람 마음이 안 돌아다녀. 요즘에, 왜 이렇게... 이상해요. 여기만 그래. 시장 쪽은 괜찮은데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다행히 친구도 있고(그래서 큰 타격은 없어요)(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연구참여자의 A의 미용실은 베트남과 한국 사람 구분 없이 비슷한 분포로 손님들이 온다고 한다. 실제로 면담 첫째 날 연구자가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 중년 한국 아주머니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으며, 면담이 다 끝나갈 무렵 후문을 이용해 중년 남자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연구자가 미용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외국인인 베트남 이주여성 친구 두 명이 다였고 외국 손님은 없었다. 연구참여자의 A는 미용실이 시장 근처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음에 의아해 있다. 친구나 단골손님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연구참여자의 A의 말에서, 그들이 없었다면 비싼 월세며 관리비를 충당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안도의 한숨이 느껴졌다.

요즘에 바쁘면 OO 언니가 좀 도와줘요. 베트남에서 OO 언니는 (미용일) 조금 배웠어요(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무엇보다 그곳을 소개해준 OO 선생님이 브릿지 역할을 제대로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 와서 건너 건너 알게 된 두 사람은 성격이 잘 맞는지 OO 선생님을 주말 알바로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주중에는 대학교 여학당에서 베트남 통역사로 일을 하며, 주말에는 여기 미용실에 나와 샴푸, 드라이 등을 돕는다고 한다. 다른 베트남 친구들도 많지만, OO 선생님은 다 받아 준다고 한다. 즉 손님이 원하는, 손님이 향의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잘 받아들인다고 연구자는 이해했다(연구자노트).

연구참여자 A의 미용실은 주말 손님이 점점 많아졌다. 혼자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을 주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 지인은 베트남에서 미용 일을 배웠기 때문에 보조로 손색이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인은 손님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응해줘서 신뢰가 간다고 전했다. 따라서 사장인 연구참여자 A의 입장에서는 지인이 유능하고 믿음직한 종사원이 된 셈이다. 미용 산업 분야는 인적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인 종사원의 자질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의존도 역시 매우 높다(김기운 외, 2013).



## 2. 베트남식당 운영자 연구참여자 B

### 2.1. 이주 이전 이야기

#### 2.1.1. 3남 2녀 중 장녀, 책임감을 느끼다

연구참여자 B는 1983년 7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딸 중에서는 장녀이다.

제 고향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좀 아래쪽 켄터예요(연구자가 ‘켄터?’라고 되 묻자, 연구참여자 A가 웃으며 ‘켄터’라고 정정해 주었다). 우리 형제들은 오빠 셋, 딸 둘. 나 큰딸, 동생 막내. 여기 일하는 오빠 우리 오빠예요. 오빠 여기 베트남에 있었는데. 우리 동생 하나 여기 한국에 있어요. 대전 사는데, 야 신랑 때문인데. 그 일 때문에 거기로 이사 갔어요. 그냥 야 신랑 여기 자동차 의사랑 똑같은데, 자동차 고장난 데. (연구자: 자동차 공업사?) 네, 맞아요. 두 오빠는 그냥 여기 베트남. 큰오빠 여기 선생님이에요. 그거 오빠 여기 우리 딸내미 여기 학교 똑같아요. 오빠 한 명은 아버지랑 여기 농사짓고. 여기 오빠 셋째 오빠예요. 오빠들 다 결혼했어요(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옛날 엄마 많이 안 했는데, 이모, 베트남에 이모가 하는 거 봤어요(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연구참여자 B의 고향은 호찌민시에서 1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켄터로, 메콩 삼각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이다. 켄터라는 이름은 금시강(琴詩江) 즉 ‘거문고와 시의 강’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을 정도로 강이 아름다운 지역이다. 켄터는 1년 내내 기후 변화가 거의 없이 연중 습하고 더운 열대 몬순 기후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후는 훗날 연구참여자 B가 결혼이주를 결정한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위로 오빠가 셋이지만 장녀였던 연구참여자 B 역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정(情) 위주로 인간관



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잘사는 사람이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러므로 한국으로 출가를 한 베트남 신부들이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김영순 외, 2013). 이는 물질뿐만 한국에 거주할 통로를 만들어 주는 기회 제공도 포함된다. 연구참여자 B의 결혼이주를 통해 셋째 오빠와 여동생이 한국에 들어왔다.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 장녀로서 책임을 다하고 그들에게 한국 입국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연구참여자의 책임감은 요리하는 데서도 발휘됐다. 즉 가까이 살고 있던 이모가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해 줄 때마다 그녀는 눈여겨보았다. 유교적 문화가 짙은 베트남 사회에서 장녀인 연구참여자가 가족을 위해 도맡아 할 일들이 많았을 것이다.

### 2.1.2. 일찍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하여 이모가 도와주다

연구참여자 B의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이웃에 살고 있던 이모가 자주 오셔서 식사를 대신 준비해 주곤 하셨다.

베트남에는 지금 아빠만 계세요. 엄마는, 옛날에 엄마 나 아가씨 때 엄마 돌아갔어. 엄마 오십사. 심장 아팠어요(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우리 집에 여기 왔다 5분만 밖에 안 나가요(연구참여자 B, 3차 면담).

연구참여자 B의 엄마는 오십 사세의 매우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연구참여자 B가 비록 장녀지만 위로 오빠가 셋이므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줄 수 있는 여자가 없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사람과 달리 핏줄로 이어져 매우 긴밀한 정(情)과 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여 어려움을 당한 형제자매들을 서로 도와주고 배려한다. 이는 국민적 정서와도 관련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모두 정이 깊고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희생정신이 강하다(김영순





외, 2013). 이러한 베트남 사람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특성은 연구참여자 B의 이모에게도 나타났다. 즉 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가까이 살고 있던 동생이 형부와 사촌들을 보살피 주곤 했다. 연구참여자 B는 힘들고 어려웠을 시절을 이모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다.

### 2.1.3. 졸업 후 식당에서 일하다

연구참여자 B는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였다. 고등학교 진학은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큰오빠라도 정규교육을 다 끝마치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일찍 일 했어요. 학교 다 끝났어. 여기…. 16살, 17살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했어요. 그냥 여기 식당 여기 있잖아(식당 서빙 했어요)(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큰오빠 여기 선생님이에요. (연구자: 무슨 선생님요? 초등학교?) 그, 그, 아니야. 그거 오빠 여기 우리 딸내미 여기 학교 똑같아. 오빠 한 명은 아버지랑 같이 여기 농사짓고. 여기 오빠는 셋째 오빠예요(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집안 형편이 어려운 데다 다섯 남매를 아버지 혼자 키우셔야 했으므로 고등교육의 진학은 어려웠다. 큰오빠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중학교 졸업 후 일찌감치 경제활동에 뛰어들어야 했다. 연구참여자 B의 경우 식당에서 일했다. 연구참여자 B의 큰오빠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후 현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연구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냐 물었을 때 자신의 딸과 같다고 대답했다. 즉 중학생 딸과 같은 등급의 학교라는 말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집안의 자녀 모두가 가지지만, 특히 장남의 책임이 가장 크다(김영순 외, 2013). 어려운 가정형편이었지만 연구참여자 B의 큰오빠가 다른 형제와 달리 고등교육을 받았던 것은 베트남의 이러한 유교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여타 개발



도상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베트남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0년 기준 10.1%에 지나지 않아 태국(29%), 필리핀(19.3%), 인도네시아(13.4%)보다 낮다. 베트남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정부가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 2.2. 창업 준비 이야기

### 2.2.1. 결혼이주 초기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다

연구참여자 B는 결혼이주 초기 충북 증산에 살고 있는 시부모님 두 분이 대전 집으로 오셔서 3개월 동안 같이 지냈다. 외국 며느리의 한국살이를 돕기 위해서다. 특히 시어머니는 연구참여자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어머니는 연구참여자들 위해 집안의 모든 사물에 이름을 써 붙여 놓고 한글을 가르치셨다고 했다. 마치 막 글자를 배우는 어린 자녀에게 엄마가 하듯이. 가끔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한테 욕하고 좀 안 좋게 하는 기사를 보는데, 혹시 그런 적은 없었느냐 물으니 절대 그런 적 없었다고 한다. 너무 잘해주셨다고 한다.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들, 딸들은 울지 않는데 며느리가 많이 울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B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을 ‘아버지’, ‘엄마’라고 했다(연구자 노트).

명함에는 나 이름(베트남 이름)은 안 나와. 박 씨는 그냥 우리 시어머니인데, 박 씨인데 나 박 씨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박 씨(예요). 우리 시어머니 좋아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만(계세요). 시어머니 잘 해줘요(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연구참여자 B에게 직접 한글을 가르칠 만큼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애정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B가 한국 이름을 만들 때 시어머니의 성씨를 따라 이름을 지을 만큼 애정에 대한 감사를 느꼈다. 연구참여자 B의 결혼 연도는



2005년으로 당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가 태동하기 이전이다. 결혼이주여성인 연구참여자 B의 한글 교육을 시 어머니가 감당한 사례는 가능한 일이지만 또한 이례적이다.

## 2.2.2. 한국어가 늘지 않는 이유, 주변의 베트남 친구들

연구참여자 B는 베트남 친구들이 많았다. 같은 출신국의 사람들끼리 만날 때는 한국어가 아닌 베트남어로 의사소통하였다. 그럴수록 한국어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우리 여기 OO 친구 많은데 OO 친구 많이 없어. 안 심심해. 그냥 맨날 여기 베트남말 얘기한데(하니까) 한국말 다 까먹어버렸어요. (연구자: 그러니까 서로 한국말 하자고 해요) 안돼. 베트남 말했는데 그냥 한국말 안 나와. 나 옛날 공부 안 했어. 시간 없어서 공부 안 했어. 그냥 그냥 해. 한국어 공부 안 했어(웃음) (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한국어 학습 배경이 약했던 연구참여자 B는 주변의 많은 베트남 출신 친구들과 베트남어로 소통하면서 점점 한국어 의사소통 정도가 낮아졌다. 연구자와 면담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은 되지만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한 결혼이주여성을 상정한다면 기대 수준에 못 미쳤다. 자녀가 어린이집 등 원할 무렵에는 취업해야 했으므로 한국어를 배울 기회는 더욱 없었다.

여기 베트남말 했는데 한국말 몰라 있어요(여기 한국말 못하는 베트남 사람도 있어요) (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연구참여자 B의 주변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베트남 출신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결혼이주여성도 있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부모님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이들의 한국어 의사소통을 돕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훗날 그녀의 식당은 소통창구의 센터가 되었다.



### 2.2.3. 직장에서 차별을 받다

연구참여자 B는 결혼이주 초기 한국어 의사소통에 능통하지 않았다.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그녀의 직장생활 시 차별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 딸내미 조금 커서 어린이집 다닐 때 여기 회사 다녔어요. 그냥 여기 대전에 있는 무슨 약봉지 자르는 회사였어요. 회사 오래 다녔어요. 근데 회사 안 맞아서 바꾸고 또 바꾸고 했어요. 좋으면 한 곳에서 오래 일하는데 안 좋으면 일하기 답답해요. 언니.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한 그 한국 아줌마들, 우리 베트남 사람인데 우리 처음 하는데 함부로 해. 그냥 좋아하면 오래 다녀. 근데 안 좋아서 또 바꿨어요. 옛날 우리 베트남 사람들 한국말 잘 몰라서... 어이구 진짜... 힘들어(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직장생활 당시 연구참여자 B는 많은 차별을 받았다. 외국인이라는 신분과 한국어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손에 익지 않은 처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들은 능숙하지 못하다며 함부로 말을 하면서 언어적 폭력 및 차별을 가했다. 회사 생활에서 배려는 없었다. 외국인 신분이라는 이해도 없었다. 차별과 배제만 있을 뿐이었다. 눈에 훤히 드러나는 차별 때문에 이곳저곳 많은 직장을 옮겨 다녔다. 결국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구참여자는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직장 내 한국인들의 차별과 시선은 연구참여자 B가 자신만의 일을 할 수 있게 한 동기가 되었다.



## 2.3. 창업 이야기

### 2.3.1. 직장의 차별에서 벗어나 임대료 낮은 곳에 식당 창업

연구참여자 B는 경기도 오산시에 식당을 창업하였다.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충청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한 번 왔는데 여기 그냥 생각했는데, 00에서 식당 해도 되는데 그냥 많이 비싸요. 충청도 가게 월세가 170~180만 원 많이 비싼데 여긴 싸요. 80만 원(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연구참여자 B는 오산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몇 차례 방문했다가 그곳 점포 임대료가 자신의 거주지보다 두 배 이상 가량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민 끝에 연구참여자 B는 오산에 식당을 창업했다.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있던 2021년 그녀는 삶에 커다란 도전장을 내밀었다.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영업해야 하고, 코로나로 장사가 잘 안되기도 했지만 쉰 월세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한 모티브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모티브가 됐던 J의 소개로 주소 하나 받아 들고 그 길로 나섰던 1차 방문. 잠긴 가게 창문 너머로 두 손을 얼굴 양옆에 세운 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듯 가게 안쪽을 살폈다. 브레이크타임인지, 잠깐 문을 걸어 잠그고 은행이나 시장 볼일을 보러 갔는지 다양한 추측을 하며 가게 주위를 맴돌았다. 가게 전경 사진도 찍었다가 주변 사진도 찍었다가, 베트남어로 된 가게 간판을 찍어서 무슨 뜻인지 인터넷 검색도 해봤다가 소중한 연구참여자가 될 그를 위해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였다.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급기야 현장을 소개해 준 J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가게 영업하는지 확인 부탁을 했다.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일 년 중 몇 안 되는 휴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허망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괜찮았다.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지만 기약된 만남이기에 마음은 뿌듯했다(연구자노트).

아래 그림 [그림 IV-2]와 [그림 IV-3] 식당 외부와 내부 모습이다. [그림 IV-2]의 식당 전경은 연구참여자와 사전 약속을 하지 못하고 방문했던 날 연구참여자를 기다리며 촬영한 모습이다.



[그림 IV-2] 연구참여자 B의 식당 전면 [그림 IV-3] 연구참여자 B의 식당 내부

[그림 IV-2]는 식당 전면을 찍은 모습으로 한눈에 봐도 베트남 식당인 줄 짐작할 수 있다. 간판에 나란히 붙은 한국과 베트남 국기가 인상적이다. 자신의 고향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나란히 병립시킴으로써 어디에서든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상호 좌우로 삽입된 음식과 베트남 여성의 사진, 출입문 좌우 유리창에 붙여진 음식 사진 그리고 출입구 양쪽에 놓인 자전거와 화분에서 연구참여자 B의 정체성이 느껴진다. 즉 양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소홀함 없이 스스로 정체성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베트남식당 내부는 창업 후 인테리어를 따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페인트, 벽지, 조명 그리고 테이블과 의자 등에서 새로움 대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음식점이라는 동종 업종이 계속 사용되던 곳이라 그런지 연구참여자는 특별한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식당 내의 거의 모든 집기류들이 새것으로 보이는 것이 없었다(연구자노트).



연구참여자 B의 식당은 이전에도 계속 식당으로 사용되던 공간이라고 했다. 그런데 다들 오픈한 지 3개월, 6개월 만에 폐업하는 바람에 영업 지속 기간이 짧았다고 했다. 연구참여자의 쌀국수 식당만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에스닉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과 고객 감정반응 및 행동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김병용·구효진(2012)은 에스닉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민족 음식 그 자체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환경을 동시에 구매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에스닉 레스토랑의 독특한 환경 조성이 고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 B는 식당 집기류에 신경쓰는 대신 베트남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는 간판 및 메뉴판 그리고 제단, 베트남 상품 등을 배치함으로써 에스닉 레스토랑의 장점을 살리고자 한 것으로 보였다. 뿐만 아니라 동종 업종이 운영되던 곳에 창업함으로써 집기류의 재사용이 가능했으며 이는 결국 창업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B의 식당 영업시간은 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다. 12시간을 식당에서 보내며 일을 한다.

### 2.3.2. 일은 힘들어도 내 일 하니까 좋아

연구참여자 B는 식당 창업에 대하여 만족감을 나타냈다. 직장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저기 회사 다녀오면 조금만 힘들었는데 우리 거 천천히 해도 돼. 식당 하면서 힘든 일 많았어요(웃음). 뭐...여러 가지로... 힘들어했는데 뭐 열심히 해야지 뭐(웃음). 나는 그냥 음식 만들어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식당 하고 싶어했어요. 좀 많이 힘들어. 근데 생각했는데 그냥 좋아. 식당 많이 힘들어 언니(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연구참여자 B는 자영업에 만족해했다. 직장업무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아도 책무성을 띠고 있다. 피로감이 쌓여도 쉽게 쉴 수 없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B의 말대로 자영업은 손님이 없을 때는 ‘천천히 해도 돼’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였다. 따라서 창업 준비기를 거쳐 창업하기 까지 또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의 자영업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요즘은 식당 좀 괜찮게 되고 있어요. 우리 식당에는 한국 사람도 많이 먹어요. 처음에 한 번 국수 먹었는데 좋아해서 여기 또 와요. 여기 앞에 농협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점심때 여기 와서 식사해. 그 사람 여기에서 먹으면서 맛있다고 “국물 엄청 많이 주세요.” 그래. 국물이 시원하니까. 옆에 회사 사람들 금요일 저녁때 술 많이 먹어. 토요일 점심때 여기 와서 국수 먹었는데 국물 엄청 먹어요(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연구참여자 B의 식당에는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필리핀, 중국, 한국 사람들이 찾아온다. 쌀국수를 먹으러 왔다가 국물 맛에 반하여 단골손님이 되었다는 농협 직원의 이야기는 연구참여자 B의 자랑이었다. 육수는 연구참여자 B가 소고기를 여섯 시간 동안 직접 끓여서 사용한다.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이곳 쌀국수는 해장국으로도 애용되는 음식이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로 인하여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거주 및 여행 경험이 있는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한국 내 베트남 음식점이 늘어나는 추세며 베트남 음식 문화의 인지도 역시 한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베트남 음식 수요 증대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음식점 창업을 통한 소득 창출의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김주락 외, 2023). 연구참여자의 B의 식당은 이를 방증하듯 회사원, 주부 등 한국 손님들이 많았다.

연구참여자 B의 식당 주변에는 베트남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베트남 상권의 문화적 특성이 연구참여자 B의 식당에도 재연되고 있었다.



가게 한 편을 차지하고 있는 미니 제단. 나무로 만들어진 제단은 본단과 그 아래 서랍식 단으로 되어 있어, 마치 컴퓨터 책상에 일체형으로 붙어, 넣고 빼고 가능한 키보드 단처럼 생겼다. 본단만 봐서는 네모난 괘종시계도 연상된다. 문이 달린 네모난 시계, 그 문을 열면 동그란 숫자판이 놓여 있고 그 위를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멈출 줄 모르고 하염없이 돌아가는. 얼핏 보기에 네모난 괘종시계를 닮은 미니 제단 상부 중앙에는 작은 전구가 있어 불이 들어와 있다. 안에는 풍성한 수염이 난 할아버지가 양쪽에 앉아 있고 그 앞으로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로, 마늘, 엽전을 입에 물고 있는 금두꺼비, 커피, 소금, 과일 등이 놓여 있다. 제단은 30만 원이라고 한다. 한국 내의 베트남 상인들이 이렇게 판매한다고 한다. 장사를 하는 거의 모든 베트남의 가게에는 이 제단을 모셔 놓는다고 한다(연구자노트).

아래 그림 [그림 IV-4]와 [그림 IV-5] 식당 내부에 설치된 제단과 다양한 물품 모습이다.



[그림 IV-4] 연구참여자 B 식당의 제단



[그림 IV-5] 진열되어 있는 물품

연구참여자 B의 식당이 위치한 곳은 경기 오산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근 평택과 동탄 공장으로 출·퇴근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이 퇴근하는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식당 영업이 잘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유사 문화 상권이 잘 발달 되었다.



연구참여자 B의 식당에는 이러한 베트남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제단이 있었다. 베트남은 조상숭배 문화가 잘 발달되어 집안에 반터(ban thờ)라고 불리는 제단이 있다. 규모가 작은 것은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벽에 고정시켜 놓고 부모나 조부모의 사진과 제철 과일, 과자, 술, 밥 그리고 향을 피우는 그릇을 올려놓는다. 제단 양옆에는 꽃병이 놓여 있으며, 베트남 사람들은 꽃을 매우 좋아하여 차례를 드릴 때는 반드시 꽃을 놓는다. 크고 작은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수시로 분향을 한다. 장소가 넉넉한 집은 방 한 칸에 커다란 제단을 설치하여 전용 분향소를 만든다(배양수, 2018). 한편 그림 [IV-4]처럼 연구참여자 B의 식당에 있는 제단은 땅의 신과 운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주로 영업장에 설치한다.<sup>9)</sup> 또한 꽃 대신 화분으로 대처한 것은 연구참여자 B의 융통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5]는 식당 한 칸에 다양한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으로 판매가능하다. 그러나 주로 판매되기 보다는 주로 식당에서 소진한다. 국수, 라면, 연유, 커피, 생선 액젓 등 품목도 다양하다.

연구참여자 B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충청도 집에 최근 들어 격주로 가고 있다. 식당이 바빠져서 틈이 없기 때문이다. 바빠진 식당 일을 일찍 퇴근한 오빠가 와서 일손을 도왔다.

얼마 전에 집에 갔다 왔어요. 애들 보러(웃음).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갔다 왔는데, 아기 봤어. 음식 해놓고 집에 청소하고. 기차 타고 갔다 와요. 기차 타면 한 시간. 버스 빨라 안 해요. 우리 집에 앞으로 타는데 괜찮아(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연구자는 그동안 충청도의 집에 다녀왔었는지를 물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오는 집은 기차를 이용하는데 집 근처에 바로 기차역이 있기 때문이다. 버스는 도로 여건상 막힐 수 있지만 기차는 대부분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 빠르다고 표현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가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았다. 자녀 돌봄과 가족의 밑반찬 준비, 집 청소 등이었다.

9) 베트남 출신 국어교육학과 대학원 석사 지인에게 확인하였음.



가사와 자녀 양육의 의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 자영업자의 직장과 거주지 근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김주락 외, 2023: 69). 그러나 연구참여자 B의 현실은 이와 달랐기 때문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처리해야 할 일 또한 많았다. 다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돌봄이 필요한 중·고생 자녀를 도맡아 준 남편의 지원(김주락 외, 2023)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B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3차 면담 때에 같은 질문을 하니 바빠서 여름휴가도 다녀오지 못했으며 충청도 집도 격주로 다녀온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겠다는 연구자의 말에 연구참여자 B는 “다 커서 괜찮아요”라고 대답했다. 일찍 퇴근한 오빠가 평일에도 식당 일손을 도우러 온 것은 그녀의 말대로 영업이 잘되고 있음을 방증하였다. 여름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연구참여자 B는 9월 중순 무렵 친정어머니 기일에 맞춰 베트남에 다녀올 것이라고 하였다.

### 2.3.3. 머리가 빠질 만큼 힘들었던 일들

연구참여자 B가 식당을 운영하며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식당 위생교육 온라인 이수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으로 인한 매출 저하였다. 이 두 가지는 코로나19와 맞물려 연구참여자 B를 더욱 힘들게 했던 요인이다.

그냥 여기 코로나 때문에 여기 다녀 안 했는데 그 핸드폰, 핸드폰 공부했어요. 그거 일 년에 한 번. 힘들어. 몰라서 그냥 여기 아는 동생 하나 있어요. 옛날 여기 돼지고기 팔았는데, 우리 식당 왔다 갔다 하는, 알았던 동생이에요. 한국 사람. 몰라서 “야 누나 도와줘”하고 말했어요. 그 사람 착해요 언니(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위생교육은 식품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41조 식품위생교육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이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이형국·김지연, 2015).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고 일정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적극행정이 추진되었다. 즉 기존 신규 식품 영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집합교육 형태의 위생교육을 받았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1년부터 집합·온라인(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푸드투데이, 2021).

결혼이주여성인 연구참여자가 휴대폰에 식품위생교육 관련 비대면 온라인 어플을 다운받아 교육을 이수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연구참여자는 단골고객인 정육점 사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정육점 사장 역시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이때 배운 지식을 통해 그녀는 이후로도 온라인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다. 앎은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지식(Freire & Macedo, 1987: 87)이기에 능동적이고 연속적이다.

연구참여자가 겪은 어려움 중 다른 하나는 손님이 줄어 매출이 심각하게 저하된 것이다. 연구참여자의 식당이 위치한 곳은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들 중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있었는데, 단속 강화로 인해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베트남 사람 주민등록증 없잖아. 그 사람들 먹으러 밖에 안 나왔잖아요.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밖에 나가 관찮았는데, 주민등록증 없으면 안 좋아하지(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장사 안 했는데 조금만 생각 많아. 머리 아파. 손님 많으면 그것만 힘들어도 관찮았는데 그냥 여기 사람 없어서 앉아서 생각 많아서 머리 다 빠져요(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 및 보호과정 등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발생을 야기하는데, 실제로 고용허가제 실시 후 2012년 고용허가제 만기도래로 인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였다(유다예, 2015). 또한 코로나19는 의도치 않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



산하는 결과가 되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최영미, 2023). 연구참여자의 식당에 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손님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법’ 이주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경제적 풍요와 소비주의를 몸으로 떠받치고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 체류는 불온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김현미, 2014: 68).

코로나19와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사회적 파장은 연구참여자 식당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손님이 많으면 몸은 힘들지만, 기분은 좋은 법이다. 그러나 손님이 없으면 걱정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였다.

### 3. 대만식당 운영자 연구참여자 C

#### 3.1. 이주 이전 이야기

##### 3.1.1. 1남 1녀 중 둘째, 행복했던 유년 시절

연구참여자 C는 대만에서 1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대만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와 넉넉한 가정형편 속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대만은 조금 자유스러워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나이 구분 없이 다 친구처럼 지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금…. 어른들한테 하는 말도 다르고. 그래서 실수 많이 했습니다(웃음). 근데 사실 존댓말 우리에게 진짜 어려워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아빠는 젊었을 때 공장 차렸어요. 아버지는 자녀를 많이 사랑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아빠가 다 사 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냥 말만 하면 아빠가 몸 움직여요. 엄마는 저랑(성격이) 비슷해요(연구참여자 C, 2차 면담).



연구참여자 C는 대만을 한마디로 자유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쉽게 친구가 되거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였다. 한편 한국은 어른에 대한 존경어가 발달한 나라다. 하여 한국에서 살며 익숙하지 않은 존경어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 C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우리한테” 라는 표현으로 강조했다. 연구자와 면담 중에도 가끔 반말이 나온다고 미안해하였다.

연구참여자 C의 부모님은 공장 운영을 하셨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매우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원하는 것은 언제든 직접 사다 주시곤 했다. 엄마는 연구참여자 C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즉 그녀는 엄마의 성격을 많이 닮은 셈이다.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의 성격을 착하다고 평했다. 실제로 연구자가 면담하고 관찰하며 느낀 결과 연구참여자 C는 착할 뿐 아니라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성격이었다. 연구참여자 C는 비교적 넉넉한 가정환경 속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 3.1.2. 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 ‘매출 여왕’

연구참여자 C는 대학 재학 시절 식당 서빙과 백화점 판매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일은 그녀의 적성에 잘 맞았다. 이때 쌓은 경험은 훗날 대만 식당 창업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저는 그거 원래 고등학교 때 전공 여행업이었어요. 대학교 때는 그거 외국어. 영어 전공했어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의 고등학교 때 전공은 여행업으로 이는 훗날 그녀의 직업이 되는 도화선이 되기도 하였다. 대만의 학제는 한국과 비슷하나 학기 시작 월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만은 학사일정이 9월에 시작되어 이듬해 8월 말에 끝나며 국가 주도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대만의 의무교육은 1968년에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국민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의무교육 기간



은 국민 소학 6년, 국민 중학 3년으로 총 9년이다. 2014년부터는 의무교육 기간에 후기 중등교육 기간 3년을 추가로 포함하여 ‘12년 국민기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대만의 국민 중학 졸업생이 입학할 수 있는 상위학교는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5년제 전문대학, 종합고등학교, 고등 진수학교, 7년제 예술대학이 있다(최인선, 2019).

1982년생인 연구참여자 C의 경우 ‘12년 국민기본교육’이 시행되기 이전 학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C는 의무교육이 아닌 등록금을 지불하며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또한 직업고등학교를 통한 여행업 전공을 하였으며 이후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학교 다닐 때 알바 몇 군데 했어요. 알바 식당도 하고 백화점도 했어요. 식당 알바는 서빙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잠깐 한두 달만 했어요. 백화점에서는 그거 청바지 리, 그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 스펠링을 한 글자씩 읊어주며)엘이이(Lee) 그거 팔았어요. 백화점에서 청바지 판매할 때 매출이 괜찮았어요. 손님들한테 판매하는 거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잘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C, 2차 면담).

연구참여자 C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였다. 두 달 정도의 식당 서빙은 일시적인 아르바이트였고, 이에 반해 백화점에서의 판매는 방학 때마다 정기적으로 했던 아르바이트였다. 기억에 남는 판매는 청바지 브랜드 Lee 매장에서 일인데,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연구참여자 C는 백화점 판매일이 즐거웠다. 판매하는 일은 연구참여자 C에게 잘 맞는 일이었다. 따라서 매출 또한 좋았다. 백화점 매출 경험에 대해 연구자가 엄지를 치켜세우며 ‘매출 여왕’이었냐며 묻자, 연구참여자 C는 웃으며 인정했다.



## 3.2. 창업 준비 이야기

### 3.2.1. 한국 주재 대만 여행사 투어 가이드

고등학교 때의 여행업 전공과 대학교 때의 영어 전공 경험을 살린 연구참여자 C는 졸업 이후 여행사에 취업하였다. 한국 주재 대만 여행사로서 연구참여자 C는 대만과 한국을 오가며 여행객 투어에 앞장섰다. 또한 그녀는 결혼과 이주 이후에도 몇 년간 여행사에 다녔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아가씨 때 아마 200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대만에서 거주 위주야. 우리 남편 그때 일 때문에 알았어요. 우리 다 한국에서 그거 여행사 일 해가지고 그래서 알았어요. 한국에서 여행업(했어요). 그니까 한국에서 그거 한국 온 손님들 이렇게 그거 한국 투어,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그때도 전 한국말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학과 다니다가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연구자: 학과?) 아, 학원. 대만에서 한국어 학원 다녔어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는 한국 주재 대만 여행사에 근무하였지만, 거주지는 대만이였다. 업무로 인해 한국과 대만, 대만과 한국을 자주 오가야 했던 그녀는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도 필요했다. 따라서 대만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웠다. 연구참여자 C의 남편은 여행사 재직 시 같은 회사의 한국 동료였다. 배려심 많은 한국 동료에서 남편과 동업자로 역할이 변경되었다.

결혼 이후 창업을 하기 전까지 연구참여자는 남편과 함께 여행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결혼 이후에도 계속 여행사 다녔어요. 남편이랑 함께. 그래서 좀 오래 다녔어요. 여행사를(연구참여자 C, 추가 면담).



연구참여자 C는 결혼 후 다른 직장에 다니는 대신 꾸준히 같은 여행사를 다녔다. 대학 졸업 이후부터 결혼 후 창업하기 전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한 여행사에서 해외여행인솔자로 근무하였다. 여행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여행자와 상호작용하는 국외여행인솔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여행기간 동안 여행사를 대표하는 종사원으로서 여행자의 성공적인 여행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편의에 신경을 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는 여행인솔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처럼 국외여행인솔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들의 서비스는 중요한 핵심 상품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이석훈,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랜 시간 동안 동일 여행사에서 근무하였던 연구참여자의 국외여행인솔 능력을 인정 받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외여행인솔자는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전문성, 용모와 태도, 여행해설능력 등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이석훈, 2013). 여행을 다니며 익힌 다양한 역할과 노하우는 무역회사 및 대만식당을 창업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3.3. 창업 이야기

#### 3.3.1. 그리운 맛, 식당 창업

연구참여자 C의 대만 음식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식 확인하던 바로 그즈음 “코로나랑 같이” 오픈하였다.

2019년에 그 크리스마스 때 연말에 시작했어요. 코로나랑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확진자 많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때 잠깐잠깐 우리 그거 문 닫았어요. 우리 여기 가게 보증금이 여기 4,000만 원인데 그때 우리가 그거 너무 좋을 때 들어와가지고. 근데 우리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인테리어 많이 들었어요.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5,000만 원 들었어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식당이 위치한 곳은 서울 OO구다. 식당 주변에는 여러 대학교들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식당 내부는 이용한 지 오래된 공간이어서 손볼 데가 많았고 코로나의 영향이 있기도 했다. 창업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의 타격을 많이 받았다. 코로나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정상 영업하지 못한 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가의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젊은 층을 주된 고객으로 확보하고자 내부 인테리어를 비롯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가 식당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였다. 전날 면담 약속 시간이 그 시간이었으므로. 식당에 들어서자 손님이 세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구참여자가 C와 그의 남편, 그리고 대만 출신 남자 직원 한 명이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메뉴는 역시 샐러드였다. 식당 주변 상권은 주로 술, 식당, 커피숍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젊은 층들의 이용객이 많을 것 같았다. 대만 음식점 역시 주 고객층이 젊은 층인 듯 식당 내부가 카페 같은 분위기였다. 주차장은 따로 완비되지 않아 조금 불편하였다(연구자노트).

전날 연구참여자가 C와 면담 시간을 오후 3시로 약속했다. 늦은 점심을 여유롭게 즐기는 젊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식당은 카페를 연상케 했다. 도로를 향한 한쪽 벽은 넓은 창으로 되어 있었고, 벽 곳곳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입구에 설치된 아이패드에서 흘러나오는 대만 가요가 그 공간을 에워싸고 있었다. 상업 공간은 소비자들의 욕구와 생활방식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공간으로 다양한 공간의 표현이 요구된다(최계영 외, 2013).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 특성상 식당이 갖는 일반적인 이미지만으로는 고객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렸다.

아래 [그림 IV-6]과 [그림 IV-7]은 대만 식당 내부의 모습이다. 오후 3시가 훌쩍 넘어 점심식사 하는 손님은 많지 않았다. 손님이 없는 때를 이용하여 식당 운영자 및 종업원이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림 IV-6] 연구참여자 C의 식당 중앙 [그림 IV-7] 연구참여자 C의 식당 입구

위의 [그림 IV-6]는 식당 홀의 모습으로 한쪽 면이 모두 창으로 되어 개방감을 더해준다. 실내등 및 조명등은 길게 드리운 구(球)형 및 라인 등이 설치되어 있다. 빛은 하나의 대상을 전혀 다르게 드러낸다. 단순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존재를 새로운 목소리로 들려준다. 무엇을 ‘본다’는 표현은 빛이 가진 힘을 시각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빛을 통해 보지만 그 바라봄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과 다름없다. 빛은 갖가지의 감성적 느낌과 심미적 경험을 창조한다. 빛은 공간을 경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공간에서의 감성의 속성은 현상과 기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상은 시각을 통해 표현되고 기억은 개인의 경험과 심리를 통해 발현된다. 그래서 동일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조명효과에 의해 인간의 심리는 달라진다(강운숙 외, 2012). 이렇듯 빛은 공간과 만났을 때 다양한 변화와 창조 기억으로의 초대를 이끌어 내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림 IV-6]에서 화면 오른쪽 여성이 연구참여자 C이며,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을 이용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식당 입구를 나타내는 [그림 IV-7]은 벽에 고정된 선반에 대만 음료와 아이패드가 놓여 있다. 아이패드에서는 발라드풍 대만 가요가 나오고 있었으며 대만 식당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C가 대만 음식점을 창업한 데는 이유가 있다. 연구참여자 C는 또한 대만 음식점 메뉴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한국의 식사 문화와 함께 비교하였다.



제가 샤브샤브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맛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리워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대만에서는 거의 다 1인식이예요. (중략)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다 똑같이 이렇게 먹잖아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는 대만 샤브샤브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나 한국의 어느 샤브샤브 맛집을 가더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이 직접 창업하여 마음껏 향유하기로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 연구참여자 C가 운영하는 대만 샤브샤브는 이러한 연유로 창업되었다. 대만 샤브샤브는 1인식 위주다. 많은 국물에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어우러진 외향이 얼핏 한국의 찌개와 비슷하다. 그러나 먹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즉 찌개는 하나의 냄비를 사이에 두고 여럿이 같이 먹기 때문에 위생적이지 못하다. 반면 대만 1인식 샤브샤브는 말 그대로 1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위생 차원에서 안전하다. 다만 요즘은 한국에서도 개별접시를 사용하여 위생적이긴 하다.

연구참여자 C는 대만 샤브샤브에 대한 장점을 다양하게 짚어줬다. 개인의 취향을 살리고 존중하면서 먹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우리는 1인식이니깐. 따로따로 나오고요. 친구랑 같이 왔어도 따로따로 이렇게 시켜 먹으니깐,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육수 세 가지 이렇게 다르잖아요. 만약에 친구 같이 와서 내가 매운 거 먹고 싶으면 마라 먹고, 친구는 매운 거 못 먹으면 다른 육수 선택하고(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의 대만 샤브샤브는 1인식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여러 명의 친구가 함께 방문했어도 매운 국물을 먹고 싶은 사람은 ‘마라귀’ 를, 맵지 않은 육수를 먹고 싶은 사람은 ‘타이웨이샤브 육수’ 나 ‘치즈우유’ 를 선택한다. 개인 취향과 선호를 잘 살려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 때문에 영업의 호황을 누린다고 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연구자 또한 면담이 끝나갈 무렵 1인식의 샤브샤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메뉴판을 보며 육수와 고기 라인을 소개해 주었다. 연구자는 맵지 않은 육수와 소고기를 골랐다. 연구참여자가 소고기의 부위까지 상세하게 묻자, 연구자는 ‘맛있는’ 부위라고 대답했다. 메뉴판을 유심히 보던 연구참여자는 “혹시 부챗살 괜찮으세요?”라며 의향을 물었다. 채소와 주식도 기본으로 포함되는데, 주식은 밥, 우동, 대만 당면 중 손님이 고르면 된다. 연구자는 우동으로 선택했다(연구자 노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추천하에 대만 샤브샤브를 이용하였으며, 1인식이 라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IV-8]은 연구자가 직접 체험해 본 샤브샤브 내용이다.



[그림 IV-8] 연구자의 대만식당 식사 이용

위 [그림 IV-8]에서 보듯이 테이블에는 샤브샤브를 이용할 수 있는 인덱션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 구 또는 여러 구의 인덱션이 모여 있는 구조였다. 즉 연구자처럼 혼자 오는 고객은 한 구의 인덱션 및 테이블을 이용하고, 일행이 있는 고객은 여러 개의 인덱션이 설치된 테이블을 이용하는 식이다. 일행이 있어 같은 테이블에 착석하더라도 인덱션이 각기 설치된 구조므로 취향대로 메뉴 선택이 가능하다.



### 3.3.2. 초국적 손님들

연구참여자 C의 식당에는 여러 나라의 손님들이 온다. 대만 사람과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그 외 다양한 국적 출신 손님들이 찾아온다.

우리 식당에는 대만이나 한국 사람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와요.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사람들 자주 와요. 베트남 사람은 아주 가끔씩. 영어나 한국어로 소통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어서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해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의 식당에 자주 오는 외국인 손님들의 분포가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이다. 지리적 특성상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인지도 있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어 전공자였던 연구참여자에게 영어권 손님들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근데 영어 지금 많이 잊어버렸어. 잘 안 쓰니까. 지금 외국 사람 만나면 긴장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 계속 한국말만 나와. 이렇게 됐어요(웃음). 한국 사람 이렇게 대화하면 한국어도 잘 못하지만... 서양 사람 만나면 영어 나와야 하는데 계속 한국말만 나와요. 여행 갔을 때도 그렇고...(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만나면 한국말이 먼저 나온다고 하였다. 외국 여행지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신이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큼 잘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환경적 요인이 크게 좌우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C가 식당을 운영하며 가장 힘들 때는 매출과 관련성이 크다. 월 임대료 또한 250만 원으로 적은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손님들의 유동성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거 식당 하면서 좀 불합리하거나 안 좋은 일을 겪은 적은 없어요. 정 말 거의 없어요. 손님 없는 것만 힘들었어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는 한국인 남편과 식당을 공동 운영한다. 그렇기때문에 그녀의 말대로 특별히 어려웠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었던 적은 없었다. 손님이 없어서 힘든 점은, 영업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포인트다.

### 3.3.3. 식당 원재료 유통을 위해 무역회사 창업

연구참여자 C는 대만 식당 외에도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식당과 별개로 독립된 건물에 있으며 식당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우리가 여기 쓰는 재료들은 다 우리가 직접 수입해가지고(사용해요). 우리가 무역회사(해요). 무역회사는 제가 운영해요(웃음). 처음에 식당 하기 전에 무역회사 먼저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재료들은 원래 원재료니까 다 있으니까 그래서...(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의 샵브샵브에 들어가는 음식 재료는 거의 모두 대만에서 직접 들여와 사용한다. 선 원재료, 후 식당이었기 때문에 무역회사 설립이 우선시 되었다. 이는 원활한 원재료의 유통을 위해서도 직접 운영하는 무역회사는 필요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의 등교를 도운 뒤, 무역회사로 출근한다. 업무가 끝나면 샵브샵브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 영업을 위해 남편과 함께 준비한다. 무역회사는 식당과 도보로 이용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연구참여자 C는 대만에서 수입해 온 재료들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우리 '마라'는 일반 마라탕에 들어가는 것과 조금 달라요. 왜냐면 마라탕은 중국이랑 대만하고 향이 조금 달라요. 사실 중국은 조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먹으면 대만은 향신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한국 사람 입맛에 더 맞아요. (중략) 재료도 다 우리가 직접 수입해서 써요. 야채, 고기만 빼고. 완자류도 수입해요. 한국에는 완자가 없고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만 거는 품질이 더 좋아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는 대만산 원재료와 맛에 대한 자부심이 깊었다. 예컨대 육수 재료 마라 경우 대만 산(産)은 향이 진하지 않아 한국인 입맛에 맞는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완자도 거의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어서 연구참여자 C는 대만에서 들여온 완자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신선식품인 고기나 채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음식 재료를 대만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C의 샤브샤브는 대만식 맛을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무역회사를 병행한 사례는 대전지역의 이주여성 창업사례를 연구한 류유선(2021)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에스닉 식당의 경우 식재료 공급을 위한 무역회사 병행은 고객과 경영자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무역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이 직접구매를 할 수도 있었다. 아래 [그림 IV-9]와 [그림 IV-10]은 각각 메뉴판과 무역회사 홍보를 알리는 배너이다.



[그림 IV-9] 연구참여자 C의 식당 메뉴판

[그림 IV-10] 무역회사 홍보 배너

테이블 매트는 또 다른 메뉴판이었다. 크게 제작되어 앞접시와 수저를 놓기에 편리했다. 또한 메뉴에 글자와 사진 모두 삽입되어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C의 친절함이 느껴졌다. 언어는





한글과 대만식 중국어 등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IV-10]은 식당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역회사 홍보 배너이다. 음식 이용 후 원재료 구매 의사를 밝힌 손님에게 구매 대행을 해 주거나 바코드를 찍고 직접 무역회사에 접속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연구참여자 C의 무역회사 명함을 건네받고 상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명함 왼쪽 상단에는 ‘OOMIT OO 엠아이티’ 라는 로고와 영문, 한글이 나란히 박혀있었다.

OO는 처음 제 영어 이름(이니셜)이에요. 저는, OO는 ‘프라다’, 엠아이티(MIT)는 ‘Made in Taiwan’이라는 뜻이에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의 이니셜을 무역회사 상호로 당당히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대만산이라는 원재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거래의 공정성 및 법적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 3.3.4. 파인애플과 망고 수입 및 국내 유통

무역회사에서는 샵샵에 들어가는 음식 재료뿐만 아니라 열대과일도 수입한다. 열대과일은 경기도의 한 도시 마트와 유통 협약을 맺게 되었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 무역회사에서 대만 파인애플, 애플망고 수입해요. 그래서 마트도 들어가고 작년에 우리 수입한 과일 경기도 OO까지도 가고 그랬어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매년 6월, 7월 달에 그거 대만 애플망고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울 OO 호텔에 가서 홍보 행사 하고 왔어요. 저 혼자 아니고 대만 거래처에서 직원들 오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랑 같이 홍보 행사했어요(연구참여자 C, 2차 면담).



우리나라의 열대과일 수입량은 2000년 20만 7,000톤에서 2016년 45만 8,000톤으로 120.7% 증가하였다. 이는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해외여행 확대와 대형 유통매장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수입 열대과일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1991년에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이 개방되었고, 2000년대부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통해 망고 등과 같은 다양한 과일 수입이 확대되었다. 열대과일 전체에서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가 차지하는 수입 비중은 99.1%로 매우 높아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주요 열대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신유선, 2018).

이러한 양상은 연구참여자 C의 무역회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7월 13일은 전국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연구참여자 C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된 파인애플, 애플망고 홍보 행사를 진행하는 책임감을 보였다. 서울 OO호텔에 마련된 행사에는 대만 거래처 직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저녁에 연구참여자 C와 ZOOM 미팅을 통해 2차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참여자 C는 피곤한 기색이 없었고 씩씩함마저 느껴졌다.

## 4. 커피숍 운영자 연구참여자 D

### 4.1. 이주 이전 이야기

#### 4.1.1. 2남 5녀 중 막내 아이, 배움을 좋아하다

연구참여자 D는 1983년 베트남 호찌민에서 2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형제가 많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로 대학 교육까지 받았다.

형제 일곱 명이에요. 일곱 명 중의 막둥이(웃음). 언니 네 명에다가 오빠 둘 있어요. 다 베트남에 있어요. 저만 한국에 있어요. 부모님이 막내인 저를 한국으로 보내서 아쉬워하셨어요(연구참여자 D, 1차 면담).



저는 하노이에서 전문대 다녔어요. 전공은 저기 회계요. 회계 전공. 하노이에서 학교 다닐 때 한국어 조금씩 배웠어요. (연구참여자 D, 1차 면담).

일곱 형제 중 막내였던 연구참여자 D가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결정했을 때 부모님은 반대하셨다. 자주 만나지 못하고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할 딸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한편 연구참여자 D는 하노이에 있는 전문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였다. 대학 재학 시절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했다. 배움을 좋아한 연구참여자는 결혼이주 이후에도 다양한 배움을 실천하였다.

#### 4.1.2. 진한 단맛의 베트남 커피를 내리다

연구참여자 D는 카페에서 2년 동안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커피는 친숙하고 이용량 또한 많다. 카페에서 일하며 연구참여자 D는 커피에 대한 기본기를 다졌다.

카페에서 2년 동안 직원으로 일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지금) 하는 것도 있어요(연구참여자 D, 문서자료).

연구참여자 D는 졸업 후 커피숍과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안정적으로 일하였다. 커피숍에서는 2년을, 전공을 살린 회계업무 담당 회사에서는 1년을 근무하였는데, 공부할 때와 달리 회계업무가 참여자 D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커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베트남의 커피 산업이 오늘날처럼 발달한 데에는 해외 유입에 따른 베트남의 성공적인 정책이 한몫했다.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든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다(Jolliffe, Kwan & Yen, 2010). 베트남 커피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커피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맛과 추출기법으로 유명하다. 베트남 커피는 진한 단맛을 갖는데 여기에는 프랑스 식민 시기의 배경이 있다. 19세기 시작된 커피 생산은 이후 소비가 늘면서 하노이(Hanoi)와 사이공(Saigon), 달랏 등 프랑스인이 선호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유럽식 카페문화가 발달하였다(김이재, 2015).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은 2001년 커피 생산국 1위인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의 생산량을 기록할 만큼 압도적이다. 베트남의 주요 생산물으로써 경제적 가치 또한 높다. 베트남 통일 이후 33년에 걸친 경제개혁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유무역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베트남 커피 산업은 경제성장에 한 축이 되었으며, 커피 산업의 발달은 베트남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레티웬트엉, 2019).

이러한 베트남의 커피 산업은 연구참여자 D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었으며, 취업이 근접한 업종의 하나였다. 카페에서 재직했던 연구참여자 D는 2년간 경험을 쌓으며 베트남 커피의 맛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섬세한 추출기법의 노하우를 다졌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녀의 커피 창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 4.1.3. 다양한 방법으로 배운 한국어

하노이에서 전문대학교를 다닌 연구참여자 D는 대학교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한국어를 배웠다. 즉 한국어 유학생과의 친분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

하노이에서 학교 다닐 때 한국어 조금씩 배웠어요. 처음에는 학원도 조금 다녔고. 20년 전에. 근데 그때는 학원비가 좀 비싸요. 그래서 좀 다니다가 책 보면서 공부하고, 한국 유학생들 좀 만나면서 배웠어요. 그때 한류 열풍 있었어요. 주변에 한국 회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한국어 배웠어요)(연구참여자 D, 1차 면담).



당시 한류 열풍과 국내 대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로 취업 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한국어는 베트남인들에게 인기 있는 외국어로 인식되던 시기였다. 1992년 베트남과의 수교를 통해 한국 기업의 투자가 시작되었다. 한국 기업의 진출과 함께 1997년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은 베트남 내 한국의 인지도를 높였다. 한국 기업과 한국인의 증가에 따라 한국어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취업의 언어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언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즉 한국 기업 및 공장, 식당 등 한국 관련 경제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업종이 다양해졌으며 취업 기회 역시 많아졌다. 또한 드라마와 K-pop으로 대표되는 한국문화상품 역시 한국어 학습욕구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베트남 내 한국어 열풍은 한국어 교육시설의 대폭적인 증가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내 한국학 한국어과는 10개 대학에 신설되었다. 이렇듯 베트남에서 한국어 수요의 증가와 한류의 영향에 따라 사설어학원도 대폭 늘어났다(육수현, 2015).

이처럼 배움을 좋아하였던 연구참여자는 한류열풍에 따른 한국어 역시 열심히 배우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학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웠으나 차츰 비싼 학원비가 부담된 연구참여자 D는 책을 사서 독학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D가 대학을 다니고 있던 하노이 지방은 1993년 하노이 인문사회 대학교에 한국학과가 부전공 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며, 2002년에는 하노이대학교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육수현, 2015: 234, 238). 연구참여자 D의 이주 이전 한국어 배움은 학원, 독학, 유학생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층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 4.1.4. 흥미를 느끼지 못한 회계업무

연구참여자 D는 일반 회사에 취업하여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하였다. 즉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1년간 재직하였다.



베트남에서 학교 졸업하고 1년 정도 회계 일했어요. 저 전공이 회계였어요. 그런데 숫자(회계)가 싫었어요. 회계 싫어서 신랑 만나게 돼서(결혼했어요) (연구 참여자 D, 1차 면담).

연구참여자 D는 회계학을 전공했지만, 전공과 관련된 일은 1년이 전부다. 이에 관련하여 그녀는 “숫자가 싫어서” 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 D의 성격적 특성과 업무적 특성의 괴리감이 커서다. 즉 연구참여자 D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발한 여성이다. 일하면서 본인과 맞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시키지 않고 차라리 혼자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또한 배움과 관련한 일은 쉬지 않고 배우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늘 외부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즐겨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어 통역 봉사도 하였다. 이렇게 외향적이며 사람들과 소통하기 좋아하는 연구참여자 D가 사무실에 앉아 숫자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따라서 회사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고 마침 친척 오빠의 소개로 한 남자를 알게 되면서 퇴사를 결정하였다.

## 4.2. 창업 준비 이야기

### 4.2.1.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손 돕기

연구참여자 D는 결혼이주 이후 센터 활동을 통한 배움과 남편의 사업장에서 틈틈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저는 한국에 와서 다른 일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 다니지 않았고 그냥 뭐 공부하고 배우고... 다녔어요. 한국어센터 좀 다니고. 요즘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데 옛날에는 그냥 OO에서 청소년 센터.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문화가족 센터 되지 않았어요. 거기 잠깐 다니다가 애도 생기고 그래서. 그냥 애만 키우고 신랑 일 도와주고 그랬어요(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연구참여자 D는 배움에 대한 끝없는 추구를 보였다. 특히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신인 청소년 센터를 다니며 한국어를 배웠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후 동법 1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김정훈, 2017). 따라서 2007년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한 연구참여자 D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신에서 여러 가지 배움을 이어 나갔다. 배움은 생각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재발명·재창조·재저술이며, 그리고 객체적 작업이 아닌 주체적 작업이다(Freire, 2003: 50, 53). 연구참여자 D는 센터에 다니며 배우면서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재창조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 D의 결혼이주 초기 경제활동 참여는 구직활동을 통한 경제활동이 아닌 남편의 사업장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근무 양상을 보인다. 즉 기계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남편의 공장이 바쁘거나 일손이 부족할 때 연구참여자 D는 일손을 도우며 경제생활에 참여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D의 근무 형태는 종일제라기보다 파트타임제였으며, 파트타임 시간대 역시 규칙적이지 않았다.

#### 4.2.2. 미용자격증과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배움에 대해 늘 적극적이었던 연구참여자 D는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자격증은 당장 사용하거나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실행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증서와 같은 것이다.

저도 미용실 자격이 있어요. 10년 전 오자마자 땀쫓. 바리스타는 2019년에 자격증 땀어요(연구참여자 D, 1, 2차 면담).

지난 2019년 국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카페 운영할 준비를 차레차레 했다고 전했다(연구참여자 D, 문서자료).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여 자격증 취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연구참여자 D는 대학시절부터 시작한 한국어 공부를 결혼이주 이후 지역의 센터를 통해 꾸준히 익혔다. 덕분에 그녀는 이주 초기 “오자마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19년에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은 커피 열풍이 불면서 커피 전문점이 급증하였고 커피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 역시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커피 관련 민간 자격 수도 증가하였다. 바리스타 관련 자격증 시험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관리 기관<sup>10)</sup>에서 뿐만 아니라 자격관리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일반 카페 등 어디에서나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 대체로 쉽다(김수정 외, 2021).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의 용이성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 D의 베트남 카페 근무는 자격증 취득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 4.2.3. 좋은 일이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연구참여자 D는 지역의 이주민 단체에 가입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였다. 정주민과 이주민 간의 문화소통자, 문화교류자 역할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회의 추구를 위한 몸짓이었다.

지난 2020년부터 학교를 돌면서 '아시아문화인권연대' 인권교육, 베트남 문화 소개 등을 하는 상호문화강사로 활동하는 000(40) 씨가 00에서 카페를 차렸다(연구참여자 D, 문서자료).

아시다시피 저도 인권 강사 나갔어요. 자연스럽게 살려고 노력했죠. 근데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알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그래요. 근데 애들이 개념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10) 2021년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바리스타 관련 자격은 366건이며 자격관리 기관은 협회,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총 324개 기관이다. 이 중 협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김수정 외, 2021).





아시아인권문화연대(아연대)는 2000년 경기도 김포에 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4년 다문화인권교육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상호문화교육활동(다문화인권교육), 인권문화활동, 지역공동체활동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상호소통의 중요성과 그 실천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단체이다(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인터넷 홈페이지). 연구참여자 D는 아연대 소속으로 관내 학교에서 상호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을 하였다. 상호문화교육은 문화들 사이의 연관성, 즉 상호작용을 목표로 학습자가 모문화를 인식하는 가운데 타문화와 관계를 이해하는 방향(오정미, 2020)의 교육이다. 예컨대 일반 학급을 대상으로 베트남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두 문화 간의 비교 및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된다. 다문화인권교육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며 차별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의식을 바꾸는 교육(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으로 이주민들의 차별 방지와 권리에 대한 교육이다.

연구참여자 D가 이렇게 상호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을 하는 데는 자녀들이 ‘다문화가정 자녀’ 라는 프레임에 갇힐 것을 염려하는 이유도 있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차별이 없는 인권의 평등함을 누리며, 보편적 가치가 실천되는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소망이다.

연구참여자 D는 먼저 온 이주민으로서 나중 온 이주민에게 도움을 건네는 봉사활동도 하였다. 이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것을 좋은 삶,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 환원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역하는 봉사활동도 했어요. (이주)노동자들도 통역했고(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사람들이 이주여성들한테 뭐 좀 정보 같은 거 알려주고 통역해주고 그런 거, 저는 그런 게 좋은 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못 벌지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웃음)(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오랜 한국어 학습과 거주기간에 따라 연구참여자 D의 한국어는 더욱 능숙해졌다. 한국어 능숙도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며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 요소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자국 출신 이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통역을 담당하던 그녀는 일을 즐거워하였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자들에게 정보 찾기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였다.

연구참여자 D와 같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해 통번역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이었다는데, 이는 외국인의 취업 요건이 엄격했던 한국의 이민정책 특성에서 비롯된다. 즉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이지만 유일하게 정주를 인정받으며 동시에 취업 제한이 없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시기에 통번역사로 취업 및 봉사가 가능했다(김경희·허영숙, 2014).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에게 통역을 했던 연구참여자 D는 일을 통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김경희·허영숙, 2014: 104), “못 별지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외향적이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이다.

### 4.3. 창업 이야기

#### 4.3.1. 자신 있는 아이템으로 커피숍을 창업하다

연구참여자 D는 코로나19 시기에 창업했다. 창업 초기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탐색하고자 한다.

2019년에 자격증 따가지고 오픈했어요. 카페는 제일 쉬운 거예요. 바리스타 자격증 따면 되니까(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은 평일 하루 평균 50여 명. 그러나 주말에는 상권 주변이 공장지대라 쉬는 사람들이 많아 이용객이 20~30명으로 푹 떨어진다(연구참여자 D, 문서자료).



연구참여자 D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베트남에서 2년간 카페 직원으로 일했던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 커피가 익숙했고 그랬기 때문에 커피 아이템은 큰 부담이 없었다. 커피 추출이나 커피에 관한 기본 상식은 익히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커피 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그만큼 커피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친근하며 다가가기 쉬운 소재이다. 그런데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자영창업을 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커피숍 위치가 주택가나 상가가 형성된 곳이 아닌 남편의 공장이 있는 공장지대에 위치해서 주말 운영은 더더욱 어려웠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커피숍을 창업한 연구참여자 D는 저당 잡힌 삶이 아닌 도전하는 삶의 면모를 보이는 여성이었다.

카페 창업 시 지인의 도움으로 인테리어를 마감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을 막음으로써 창업 초기비용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자본금 6,000만 원 들었어요. 그 정도는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한 것들도 있어요. 사람 막 쓰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우리 도와주는(업체) 같이 하면서 비용 좀 줄였어요. 우리 카페가 19평인가 봐요. 근데 그 인테리어 하고 이 시설 보면 보통 8천만 원 들어가요. 우리 신랑 공장 쪽에 또 뭐하고 같이하는 업체들이 많이 도와줬어요)(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가게 월세는 120(만 원 나가요). 관리비에 그냥 고정비용을 거의 200이 있어요. 보험, 세금, 등비(전기요금) 다해서(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연구참여자 D는 창업 당시 남편 지인의 도움으로 인테리어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연구참여자 D의 배우자는 인테리어 관련 거래처 여러 곳에 부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사업장의 보증금과 월세 외에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이 인테리어 부분 인데(이주현, 2009), 이 부분을 해당 지인들의 도움으로 절감하게 된 거다. 연구참여자 D는 이렇게 하여 2,000만 원의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창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가게 이사 결정 시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이전할 가게 위치, 인테리어 등을 도맡아 돕는다. 또한 이주여성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친정어머니는 식당의 주방을 책임지고,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양육을, 남편은 집안일을 돕는다. 이처럼 이주여성의 창업과 성공은 초국적 협력, 철저한 가족 구성원의 분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류유선, 2021: 145).

창업 자본금은 전액 대출을 받았으며 이 역시 남편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장지대에 커피숍을 오픈한 지리적 선정 이유 역시 남편의 제안으로 선택하였다. 유동 인구나 공장지대의 특성을 파악하기 쉬웠던 연구참여자 D의 남편은 자신의 공장 근처에 카페가 없는 것을 파악했고, 카페 창업을 원했던 아내를 위해 창업 자본금을 마련해줬다. 19평 되는 카페는 월 임대료가 120만 원이다. 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의 고정비용까지 계산하면 매달 200만 원이 지출된다. 카페는 그만큼 영업이 잘됐으며 연구참여자 D는 몹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 4.3.2. 고객들이 좋아해 주는 커피숍

연구참여자 D의 카페는 근방의 공장지대에서 활력소와 충전소 역할을 했다. 쉼터였고 다양한 인종, 피부색들이 만나는 접경지대가 되었다.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고 부러움의 대상,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장사는 잘됐어요. 사람들도 많이 와서 좋았어요. 지금도 왜 안 나오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카페에 사람들이 와서도 잘했다고, 성공했다고 막 한국 사장님들이 앞에서 또 막 따라 하려고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안 나오니까 또 문자로 또 안 나오냐고 하고(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연구참여자 D의 카페에는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 이용한다. 그곳은 곧 문화 접경지대가 되어 다양성을 드러낸다(김현미, 2014: 33). 연구참여자 D가 커피숍을 오픈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상인들은 연구



참여자 D의 카페 인테리어나 판매 음료의 제조 방법을 묻기도 했다. 현재는 사춘기 두 자녀의 돌봄을 위해 지인에게 커피숍을 맡겨놓았다. 여성에게 있어 자녀 양육의 문제는 자영창업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Brush, 1992), 연구 참여자 D의 경우처럼 자영창업 이후 잠깐 내려놓게도 하는(한국다문화연구원, 2017)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3.3. 우아하면서도 치열한 백조를 닮은 커피숍 업무

카페 업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D는 유머러스한 비유를 하였다. 그 비유가 연상되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D는 한참 동안 웃으며 면담을 진행했다.

카페는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어떤 사람 말로, 뭐 그냥 저기 어떤 것 같이, 백조, 백조(물 아래에 바쁘게 헤엄을 치는 백조 흉내를 내는 연구참여자). 사실은 아주 할 일이 많아요. 공장지대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사람이 이렇게 싹 한꺼번에 몰리니까. 한 시간 두 시간 사람을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커피숍은 길에서 보기에는 유유자적해 보인다. 깨끗한 실내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여기저기 기분 좋게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손님들이 상상되는 장소다. 이는 커피숍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의 감정적 반응과 관계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재방문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장은주 외(2017)의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 즉 고객이 지각하는 커피 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은 고객의 감정적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미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쾌적성, 편의성, 청결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피숍의 심미성이 높으면 고객들의 즐거운 감정의 반응이 보이며, 편리한 시설 역시 즐거운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커피숍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건물의 외관과 시설의 장식 등에 많은 신경을 쓴다. 반면, 종사자의 분주함과 부지런



함은 간과하기 쉽다. 겉에서 보이는 아름다움과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 종사자들이 노력하는 수고는 연구참여자 D가 말하는 것처럼 백조의 헤엄치기와 같다. 물 밖 위에서는 우아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물 아래에서는 부지런히 헤엄치고 있는 백조의 모습. 연구참여자 D는 그러한 백조 모습을 두 팔 벌려 흉내 내었다.

또한 공장지대에 위치한 커피숍은 점심시간 근로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다. 그럴 때면 연구참여자 D는 손도 마음도 바빠져 정신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한두 시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는 것은 비용 발생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는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많은 손님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한 것이 큰 스트레스였다.

#### 4.3.4. 커피숍 참여관찰

연구참여자 D와의 1차 면담은 그녀의 자택 근처의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그녀가 자영창업한 커피숍은 현재 지인이 임시운영 중이며, 연구참여자는 자녀돌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가 현재 그곳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창업한 카페였고 복귀할 예정이므로 참여관찰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래 내용은 카페 관찰일지 중 몇 가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내용이다.

1.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다. 카페는 왕복 2차 도로에 접해 있으며, 입구 오른쪽에 두 개의 나무 테이블 세트가 있다.
2. 내부에는 7개의 테이블이 있으며, 여성 외국인 손님 2명과 한국인 손님들이 있다.
3. 여성 직원과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분주하다.
4. 쇼케이스에는 G7 커피가 진열되어 있으며 판매 및 매장 내 음료 주문이 가능하다.
5. 담소를 방해할 만큼 제빙기 소리가 요란하다.
6. 인테리어는 짙은 녹색과 흰색이 주를 이룬다.
7. 바닥의 커다란 정사각형 타일은 희고 깨끗하고 반질반질 윤이 난다.
8. 몬스테라, 고무나무, 뱅골고무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식물 화분들이 있으며, 테이블 위에는 작은 초록 화분들이 놓여 있다.
9. 세련되지도, 촌스럽지도 않은 중간 수준의 인테리어는 세련미를 추구하지만, 미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전해진다.
10. 1시

가 지나니 카페의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연구자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11. 잠시 후 다시 손님들이 들어온다. 장사가 꽤 잘된다. 12. 카페 입구에 드리워진 길고 넓은 차양 덕분에 아늑함이 든다. 13. 카페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은 회색빛 우울함과 벽오동 나무의 한적함이 공존한다. 14.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음만 아니라면 오래 머물러도 좋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15. 길가와 공장지대에 위치한 이유로 손님이 수시로 왔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take out 손님이다. 16. 테이블과 의자 구성이 아쉽다. 라탄 의자가 몇 개 놓여 있긴 하지만 테이블과 의자에는 투자하지 않은 느낌이다. 17. 프런트에 단골손님을 위한 쿠폰 스탬프가 마련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D 카페 관찰일지 中)

연구자가 커피숍을 방문했던 시간대는 점심시간으로 손님들이 많았다.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기보다 테이크 아웃(take out)하는 손님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림 IV-11]과 [그림 IV-12]는 카페 내부의 손님들과 G7 커피 모습이다.



[그림 IV-11] 카페 안의 손님들



[그림 IV-12] G7 커피

[그림 IV-11]의 손님들은 테이크 아웃 음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주문한 커피가 나오자 이내 자리를 떴다. [그림 IV-12]는 베트남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유명한 쩡응웬 커피<sup>11)</sup> 회사에서 만든 인스턴트 커피 G7을 쇼케이스에 진열한 모습이다.

11) 베트남의 유명커피업체인 쩡응웬(Trung Nguyên)에서 생산하는 커피. 한국에는 주로 커피믹스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커피믹스 브랜드 뿐만 아니라, 직영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위키백과, 자료검색일: 2023.11).

다음 [그림 IV-13]과 [그림 IV-14]는 커피숍의 내부와 외부 모습이다. 인근의 많은 공장 속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공간이다.



[그림 IV-13] 카페 내부



[그림 IV-14] 카페 외부

한쪽 벽면이 초록색으로 마감된 [그림 IV-13]은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벽쪽에 놓인 의자가 라탄이다. [그림 IV-14]는 카페 외부에 마련된 나무 소재 테이블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 카페 점포의 이전 업종은 편의점이었는데, 당시 담배 인수권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카페에서는 담배를 팔고 있었다.<sup>12)</sup> 연구자가 두 시간가량 카페에 머물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담배를 사러 온 고객이 매우 많았으며, 이들은 담배뿐만 아니라 커피도 함께 주문했다. 따라서 카페는 음료와 담배의 이중 수익성을 갖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5. 네일숍 운영자 연구참여자 E

### 5.1. 이주 이전 이야기

#### 5.1.1.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4남 1녀 중 넷째 아이

12) 직원의 허락하에 담배 진열장 사진을 찍었지만, 카페에서의 담배 판매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담배 진열장 사진은 본 연구에 삽입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1987년 베트남 호찌민에서 4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여자 형제가 없었던 연구참여자 E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고향은 호찌민 쪽이에요. 오빠 세 명, 네 명 있고. 오빠 3명, 남동생 1명. 언니는 없어요. 딸은 저 혼자만. 그냥 막내 가까워요(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서른여덟인가 여섯인가 됐을 때. 저 다섯 살. 그래서 기억 안 나요. 보고 싶어도 (얼굴이 생각) 안 나. 언니(연구자) 엄마 1월에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겠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얼굴도 기억나니까(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연구참여자 E가 다섯 살 어린 나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는 서른 중반의 이른 나이였다. 엄마 얼굴이 생각나지 않은 연구참여자 E는 연구자에게 공감과 부러움을 드러냈다. 연구자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기억은 물론이고 함께 보내온 시간, 공유된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E는 면담 도중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자신의 존재 근원이지만 기억에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리움이 크다고 전하였다.

### 5.1.2.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다

어린시절 연구참여자 E에게 변화가 생겼다. 아버지의 재혼은 그녀의 삶을 많은 부분 바꿔놓았다.

아빠는 재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모랑 같이 살았어요. 오빠들은 아빠랑 새엄마랑 같이 살고... 나는 새엄마랑 같이 사는 거 싫었어요(약간 계면쩍게 웃음)(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이모는 날 딸처럼(키워 주셨어요). 엄마 같죠. 이모부가 좋아요. 친구 같은 이모부니까. 베트남 갈 때 항상 이모 찾아가요. 아빠한테는 안 갈 때도 있는데 이모한테는 항상 가요(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연구참여자 E는 엄마 얼굴이 생각나지 않지만, 늘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웠다.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재혼하셨지만, 새엄마가 싫었던 연구참여자 E는 한집에 살기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그녀는 이모의 집으로 옮겨서 생활하게 되었다. 오빠들과 남동생은 이전처럼 아버지와 함께 지낸 한편 연구참여자 E는 집을 떠나왔다. 엄마의 여자 형제는 이모 한 사람밖에 없었다. 다행히 이모는 좋은 사람이었고 이모부 역시 친구처럼 대해줬다. 딸처럼, 친구처럼 대해준 이모와 이모부에게 연구참여자 E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

이모에게 안정적인 사랑을 받고 지내지만, 연구참여자 E의 마음속엔 언제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엄마에 대한 부재는 그녀에게 헛헛함을 느끼게 하였다.

저 원래는 친엄마 없어서 그래서 돈 버는 거 좋아요. 돈만 생각하는 여자 했어요. 돈만 생각하는 여자 씨. 돈 없지만 돈 벌어야 돼 (연구자: 아, 그래서 돈을 일찍부터 벌었구나. 와... 생활력이 강하다 사장님. 멋져요). 근데 돈 벌고 다 써요. 모아놓은 거 없이 잘 쓰고 (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연구참여자 E는 그 헛헛함을 돈 버는 것으로 채웠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자신을 ‘돈만 생각하는 여자’, ‘돈만 생각하는 여자 씨’ 라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다.

베트남에서 과일 조금씩 떼서 팔았고, 한국 마트에서 이런 거 알바하잖아요. 저는 베트남에서 로또 파는 것도 팔았어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때 꽃다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런 날 며칠 전에 준비하고 그날 장사하면은 돈 많이 벌어요. 그때는 나이 어렸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하는 거지. 잘해서 한 건 아니고 내가 잘살라고 그런 거지. 여러 가지 알바 많이 했어요(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연구참여자 E는 다양한 장사를 했다. 그녀 말대로 ‘잘 살라고’ 더욱 열심히 돈을 벌었다. 과일이며 꽃, 로또복권까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려고 했다. 특히 축제 때마다 꽃은 빠지지 않는 소품(김영실 외, 2020: 51)으로 등장하였는데, 많은 꽃이 나는 베트남에서는 누구든지 꽃을 좋아하였고, 기념일에는 꽃의 수요가 더욱 많아서 연구참여자 E는 이를 잘 활용하였다. 그녀가 말한 대로 ‘잘 살라고’ 노력하다 보니 주변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5.1.3. 커피숍 사장님이 되다

연구참여자 E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끝으로 커피숍을 오픈하였다. 나이가 어렸고 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아 이모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였다.

베트남에서 저 커피숍 했어요. 직접 사장. 근데 커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웃음). 커피는 일하는 사람이 했죠. 저는 잘 몰라요. 그때는 나이 좀 어리니까. 좀... 내가 좀 옛날에 좀 고생해서 다른 거는 그게 만드는 것까지...(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은 안 배웠죠(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연구참여자 E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거쳐서 커피숍을 오픈했다. 운영만 했을 뿐 실질적인 카페 업무는 직원이 맡아서 했다. 가게를 내고 영업함으로써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의 전환이었다. 베트남에서 커피숍을 오픈하기까지 연구참여자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는 그녀의 내러티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옛날에 좀 고생해서” 이제는 즐기면서 일하고 싶었기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는 공부하고 싶지 않았다. 커피에 관한 실무 담당자를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참여자 자신은 ‘직접 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 5.2. 창업 준비 이야기

### 5.2.1. 내게 맞는 일이 없었다

연구참여자 E는 한국에 와서도 다양한 일 경험을 하였다. 주로 파트타임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에서 단순노동이나 비숙련노동을 하였다.

아니 회사 그냥. 회사, 왜냐면 저도 회사 다녀야 했거든요. 자동차 부품회사. 아이바로(아르바이트로).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회사에 말고도 여러 일 했죠. 근데 내가 맞는 일 없고(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연구참여자 E는 한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했다. 그녀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순노동이나 비숙련노동으로 선택의 폭이 좁았다. 이러한 일은 그녀에게 흥미를 주지 않았고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실태를 연구한 윤자호(2022)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갖는 직업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4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다음은 서비스·판매종사자(22.8%),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22.7%),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7.7%), 사무종사자(3.6%), 농림어업숙련종사자(2.9%) 순이었다. 베트남에서 다양한 장사 경험과 커피숍 운영 경력이 있었지만,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원활하지 않은 언어소통은 단순노동이나 비숙련노동 현장으로 이끄는 주된 원인이 되었고, 그녀가 출신국에서 무엇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가 느꼈을 무력감이 담담하게 전하는 내러티브에 흐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대화는 지속적인 대화 속의 다양한 목소리로 구성되기 때문이다(Bakhtin, 1984).

### 5.2.2. 직장에서 차별당하다

연구참여자 E는 직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차별을 받았다.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사회 구성원임에도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는 차별을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하니까 사람이(내가) 외국인이지않아. 다 그런 거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는 걸 느끼니까. 차별. 이제 차별하고. 한국 사람은 약간 가벼운 일 시키고, 일 많이 안 시키고 천천히 해도 되고. 우리한테는 빨리 빨리(하라고). 그렇게 돼 가니까(일하기가 힘들죠)(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보통 외국사람들 돈 벌잖아요(벌려고 하잖아요). 일도 많이(하고). 외국인 여자들이 결혼을 해도 안 해도 그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차별해요(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연구참여자 E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외국 출신 종사자에게 드러나게 차별을 하였다. 예컨대 한국인 종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힘든 일을 시키며 천천히 진행해도 되는 관용을 베풀지만, 외국 출신 종사자에게는 이와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며 재촉하는 ‘사장님 나빠요’의 태도를 보인다. 이주노동자들과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점을 악용한 일부 비윤리적인 업주들로 인해 많은 외국 출신 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였다. 그들에게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모두가 ‘외국인’으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직장생활을 경험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고용인에게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항의하지 않는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뿐더러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채용관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박미은 외, 2012: 227).

### 5.2.3. 힘들게 취득한 네일미용 자격증

연구참여자 E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회사, 차별과 배제를 느끼게 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저는 그때 어차피 국적이 나왔으니까 그냥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고용노동부 통해서 자격증 공부했어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다니면서 하루 종일 수업 들었어요. 엄청 힘들게 배웠어요(웃음).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돈 들어가는 거는 많이 없고 연습 많이 해야 하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아마 20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실기는 쉬운데 필기시험 너무 어려워서 7번 만에 합격했어요. 저 약간 돌머리라서 그런지 저 원래 공부 잘 안 돼요(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연구참여자 E는 지역의 고용노동부를 통해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증<sup>13)</sup> 학원에 다녔다. 3개월 동안 일주일에 주말만 쉬며 공부하는 매우 촘촘한 과정이었다. 학원비는 그리 비싼 편은 아니었지만, 업종의 특성상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다. 월 100만 원 가까이 재료비가 소요됐다. 다양한 색깔과 디자인을 매칭시키며 네일아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 과정이 필요했다. 미싱을 구입하여 딸에게 원피스를 만들어 입힐 정도로 손재주가 남달랐던 연구참여자 E는 네일아트에 자신감이 있었다. 이렇게 네일아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연구참여자 E도 넘기 어려운 산이 있었으니 바로 필기시험<sup>14)</sup>이었다.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는 필기시험의 잇따른 과락의 원인이 되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 출신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필기시험을 연구참여자 E는 “돌머리”라서, “원래 공부를 잘 안 해서”라며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말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녀가 원하는 네일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학원 과정이 끝나고도 연구참여자 E는 더욱 다양한 네일아트 경험을 쌓기 위해 지인이 있는 대구로 내려갔다. 지인이 운영하는 네일숍에서 3개월 동안 훈련 과정을 거치며 열정을 쏟아부었다.

13) 2014년도부터의 시행은 되었으나 상시로 필기만 치르는 상태였고, 2016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변경되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국가기술자격증 명은 미용사(네일), 면허증명은 미용사(손톱·발톱)으로 지정되었다(감승자, 2016; 문아영, 2017).

14)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택 일형으로 60문항(60분)이고, 실기시험은 작업형(2~3시간 정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합격 기준 60점이다. 필기과목의 주요항목은 화장품학, 공생위생 관리학, 피부학 등이 있다(감승자, 2016; 문아영, 2017).

### 5.3. 창업 이야기

#### 5.3.1. 직장의 차별에서 벗어나 내게 맞는 일을 하다

연구참여자 E는 배우지 않았지만 미(美)에 대한 감각이 탁월했다. 색감이며 디자인 등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다. 돈을 생각하면 미용실도 괜찮은 업종이지만 자신은 네일아트의 색감이 너무 좋이라며 네일아트를 결정했다고 했다.

아는 베트남 언니들도 오픈했잖아요. 지금 3~4년 정도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처음 배울 때부터 가게 오픈할 것을 생각하고 공부한 거죠. 여기가 시장인데 요즘 약간 경기 안 좋아서 문이 많이 닫아있어요. 나는 코로나 엄청 심한 때에 가게 열었는데 진짜 다행이었어요(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연구참여자 E는 네일미용 자격증을 공부할 당시 대구의 지인을 롤모델로 삼았다. 지인의 네일숍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을 보며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자격증 과정에 임하였다.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막상 오픈 때에는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컸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E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네일숍 오픈을 감행하였다. 그녀는 “처음 배울 때부터 가게 개점할 것을 생각하고 공부” 를 했다. 이는 스스로 다짐하며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 거다. 신뢰에 관하여 연구한 캐서린 홀리(K. Hawley)는 자신에게 한 말을 이행하는 사람은 곧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사회 환경에서, 그리고 공동 프로젝트의 협력에서 신뢰는 필수이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역시 신뢰다. 이렇듯 신뢰는 어떤 관계에서든 기본이다. 기본이지만 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또한 신뢰이다. 따라서 신뢰가 있다는 건,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다(Finn, Suki, 2022: 215). 말한 대로 실천하리라는 연구참여자 E는 “코로나 엄청 심한 때에” 네일숍을 오픈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그녀의 네일숍은 건재하다. 그래서 오픈하기 “진짜 다행” 이었다. 신뢰를 토대로 자신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는 도전하는 즐거움을 아는 자이다.



연구참여자 E가 네일숍을 창업한 동기는 중첩적이다. 그 중 직접적인 동기는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즉 외국인 출신이 가장 컸다.

자격증 너무 고생해서 났고 그리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만약 내가 다시 회사 가면은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아깝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 계단을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그 자격증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데. 여기 하는 거 아니면 또 저는 회사 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나이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내가 외국인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네일숍에서 채용 안 해주니까(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연구참여자 E는 연구자와 인터뷰 중 자영창업 이전의 직장생활 경험을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그때의 생활이 “한 단계 아래” 라고 까지 표현했을 정도다. 반면 네일미용 자격증은 다음 단계를 향해 넘어설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는 이 매개체를 이용해 자신이 꿈꾸는 단계로 넘어서길 원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연구참여자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선택한 탁월한 자존감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 출신 이유로 타 네일숍 채용의 어려움을 자각한 비판적 성찰의 모습도 보였다. 삶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할 목적과 가치가 있기에 연구참여자 E는 네일숍을 창업했다.

연구참여자 E의 네일숍은 시장 초입에 위치하였다. 창업 초기 자본금과 월 임대료를 생각하면 입지 좋은 곳만 고를 수는 없었다. 연구참여자 E는 집과 가까우면서도 이주민들의 거주가 많은 곳을 선정하였다.

월세는 얼마 안 돼. 40만 원. 이거 원래는 세탁소라서 오래 돼가지고. 제가 수리 다 하니깐. 인테리어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음 이거 할 때 25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하다가도 또 들어가는 가니까. (연구자: 그렇죠. 사장님 보니까 전등에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요? 여기는 이런 거 다 하니깐. (원래) 그래서 저 정도는 원래 안 비싸요(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연구참여자 E의 네일숍은 이전까지 세탁소로 사용 해오던 곳으로 30년 된 건물에 임대해 있다. 실내인테리어 중 연구참여자 E가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은 조명이었다. 서비스 업종과 조명은 상관관계가 깊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의 창업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했다. 창업비용은 연구참여자 E 스스로 마련하였다.

### 5.3.2. 창업 6개월 만에 창업비용을 회수하다

연구참여자 E는 영업 수완이 탁월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이 아무리 늦더라도 그들의 요구에 맞춰줬다.

저는 이 사업이 딱 6개월 만에 그 돈을 다 받았어요. 내가 밤까지도 일해요. 새벽 2시, 3시까지 다 해주니까, 손님 있으면 다 해 주잖아요. 야간까지 다 해 주고. 그래서 6개월 만에 회수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600만 원 주고(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연구참여자 E는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손님이 원하면 그 시간이 새벽 시간대여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손톱 위에 젤과 큐빅을 올렸다. 네일숍 창업 당시 초기자본금이 2,500만 원가량이었는데, 6개월 만에 회수하는 열심을 보였다. 월세와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를 제하고서라도 반년 만에 초기자본금을 상환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참여자 E의 네일숍을 찾는 고객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 지원금도 한몫했다.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침체와 악화, 실업자 증가, 소득 양극화,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와 같은 국가적인 사회경제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명목의 금전적 급부 제공을 통해 코로나19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을 시도하였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20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고 주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신정규, 2021). 특히 4차 추경예산 중 최대 규모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폐업점포 재기 지원금(3조 4천억)으로 편성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294만 명에 대한 소득 보상(1백~2백만 원)이 이루어졌다(최진희, 2023). 이처럼 연구참여자 E는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초기 자본금을 회수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 5.3.3. 네일 아티스트로서의 전문가

연구참여자 E가 네일미용을 하게 된 동기는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다. 평소 자신의 손톱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한 그녀는 네일을 즐겨하고 좋아하여 네일숍 창업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녀는 네일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원래 손이랑 발 내가 직접 다 해요. 근데 시간 없어서 엄지(발톱)만 했어요. (중략) 저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주름 많아요. 손톱이 길어서 좀 예뻐 보지만 손톱이 없으면 이상할 거야. 언니 손톱이 이렇게 정도(손톱이 짧으면)면 약간의 주름 더 보여요(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네일 아티스트인 연구참여자 E는 전문가답게 자신의 손톱·발톱은 직접 관리한다고 밝혔다. 2차 인터뷰 때에는 슬리퍼 사이로 엄지발톱 위의 페디큐어 된 모습이 보였다. 자신이 손이 안 예뻐서 네일미용을 시작했다는 연구참여자 E는 네일미용을 하지 않으면 손이 예뻐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또한 네일미용을 함으로써 손에 있는 주름이 상대적으로 덜 보인다고 전문가다운 소견을 밝혔다. 손톱이 짧은 데다 네일미용까지 하지 않은 손은 주름이 많이 보여 나이 들어 보이고 예쁘지 않다는 게 연구참여자 E의 지론이다.

손 지저분해지는 거는 손님들 발 각질 관리하면서, 이거 하다가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약간 예민했죠. 다른 사람 발 만지는 것도 이거 하다가 익숙해지고...(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이 각질 관리하면 3개월 정도 가요.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해요. (중략) 시원한 물은 발은 약간 힘들어요. 겨울에도 어쩔 수 없이 찬물로 해요(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연구참여자 E와 1차 인터뷰 약속했을 당시 미리 발 관리 시술을 예약했다. 네일숍에서 시술하는 발 관리 서비스는 발을 치장하고 꾸미는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 최근 네일숍에서는 문제성 발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즉 무좀이나 내성 발톱과 같은 문제성 발톱을 비롯하여 발 각질로 인한 백선을 관리하는 것이다(최경, 2022). 발 관리 서비스가 끝난 후 연구참여자 E에게 물었다. 손보다 발 관리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거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고객의 발을 관리한다는 게 “약간 예민” 하였지만 일을 하면서 점차 익숙해졌다고 하였다. 네일 서비스 종사원의 인적 특성이 신뢰 및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윤 외(2016)는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점포 신뢰보다는 종업원 신뢰가 높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네일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의 외적인 이미지와 고객을 응대하는 태도와 행동 예절 등 종업원의 역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고객의 발 관리 서비스가 예민함에서 익숙함으로 변화된 연구참여자 E는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아래 [그림 IV-15]와 [그림 IV-16]은 고객 응대 중인 연구참여자 E와, 발 관리 중인 연구자의 모습이다.



[그림 IV-15] 고객 응대 중인  
연구참여자 E



[그림 IV-16] 발 관리 중인 연구자

[그림 IV-15]의 고객 응대 중인 연구참여자는 고객과 면대면 상호작용을 한다. 네일숍은 조명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좁고 오래된 건물을 인식하여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IV-16]은 각질 제거용 소금을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다음 기구를 이용하여 각질을 제거한다. 이후 찬물을 넣어 행구는데 이는 연구참여자의 말에 의하면 “발이 약간 힘든” 과정이다. 발 관리 순서는 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각질을 제거할 발을 풋 샴푸로 세정한다. 2. 깨끗한 발을 족욕한다(10~15분). 이때 아로마오일 또는 족욕 솔트 등 첨가 가능하다. 3. 연화제의 흡수를 돕기 위해 스크래치를 내준다. 4. 각질 정도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며 힐스킨 리무버를 충분히 뿌려준다. (굳은살이 심한 경우 코튼패치나 화장솜 도포 시에 랩을 감고 붙여준다. 권장시간 10분) 5. 발의 각질을 울커터를 이용해 제거한다. (리무버가 마르면 수시로 뿌리며 제거 가능) 6. 스크럽을 이용해 발의 각질을 문질러 제거한다. 7.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낸 후 발에 스킨 스크럽을 적당량 문혀 마사지하듯 문질러 잔여 각질까지 제거한다. 8. 온타올 또는 물로 씻어낸 후 발 전체에 보습제를 도포한다. 9. 힐밤으로 발 전체를 마사지하듯 문질러 발의 피로를 풀어준다(최아영, 2021).

#### 5.3.4. 운영 중 겪은 어려움

연구참여자는 창업체를 운영하며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창업 초기 겪은 샵 홍보에 관한 문제이다. 즉 인터넷 SNS에 샵을 홍보하고 싶어도 미흡한 한국어와 방법의 부재로 답답함을 느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처음에 네일숍 시작했을 때도 샵을 오픈하고 홍보 같은 거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못했거든요. 제가 외국인이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중략) 지금은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저 공부 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올렸어요 사실은. 원래는 저 잘 모르는데 신랑이 직접



해보라고 (말했어요). 원래 사진도 잘 안 찍거든요 저는. 하도 울고 울고 계속 그러니까 신랑이 조금 (도와줬어요). 근데 저 같이 도와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배우는 건데. 뭐 모르면 좀 물어보고(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이러한 문제는 창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을 분석한 조상미(2019)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창업체를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도움을 구할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 E처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을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러한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혹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의 남편은 자립 차원에서 연구참여자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힘들어하는 연구참여자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 또한 남편이 회사 업무로 힘들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스스로 공부하면서 배우고 익혔다.

또한 주차 문제로 이웃과의 마찰을 겪기도 하였다. 2차 면담이 끝나고 차량으로 가려던 연구자에게 연구참여자가 말했다.

근데 이 동네가 몇 군데 아줌마가 무서워. 주차하면은 손님 주차하잖아. 그럼 나한테 혼내는 거야. 저한테 와서는 “야! 여기는 내가 주인이지, 왜 손님 차를 대?” 그 사람들 저한테 진짜 무섭게 해요. “나 돈 냈어. 나는 여기 돈 내는 사람이야. 얼마나 내는지 알아?” 이래요. (중략) ‘거주자 우선 주차?’ 참 좋아 이거. 너무 기분 좋아. 몰라서 몇 번 욕 먹었어요. 신고한다, 뭐 차를 가져간다 이러는 거야. 진짜 배움이 좋아(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연구참여자 E의 네일숍은 시장 내에 자리 잡고 있다. 1차 인터뷰를 위해 방문했을 시 가게 앞에는 주차할 데가 없었다. 주위를 몇 번 돌던 끝에 근처 아파트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2차 방문 때는 연구참여자 E에게 아파트 주소를 부탁하여 차량 내비게이션에 찍고 바로 아파트로 향하였다. 인터뷰가 끝나고, 주차 관련 아파트 언급을 하자 연구참여자는 주차 민원을 이야기했다. 즉 네일숍 손님 차량이 주차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주인’ 이라며 연구참여자 E에게 와서 항의와 욕설을 한다고 하였다. 차를



견인해 간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연구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 설명해 주고 일정 시간에는 타인의 주차 가능함을 알려주었다. 연구참여자는 몰랐던 사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까닭 없이 부당하게 욕을 먹었다는 억울함에선지 “참 좋아 이거. 너무 기분 좋아. 몰라서 몇 번 욕먹었어요.” 라며 속 시원함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거지역의 복잡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거지역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하고, 주거지역 거주자와 주변 상업시설 상근자에게 일정사용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시간은 전일(0시~24시), 주간(09시~18시), 야간(18시~익일 09시)으로 구분된다.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다(김성희 외, 2019). 따라서 주간에는 이용요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은 타 차량일지라도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권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은 연구참여자 E가 외국인 출신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언하고 마치 땅의 주인인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였다.

## 6. 소결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에 나타나는 주체성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거주 기간 평균 15년 이상이고, 자영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와의 면대면 심층면담, 전화통화를 비롯한 카톡, 문자, 블로그 등 SNS, 그리고 인터넷 신문 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의 내러티브는 어떠한가?’를 탐색하기 위해 이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에 나타나는 경험과 주체성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내러티브 읽기’라는 IV장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 5명의 ‘이주 이전 이야기’와 ‘창업 준비 이야기’ 그리고 ‘창업 이야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의 자영창업 경험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A, B, D, E) 4명, 대만 결혼이주여성(C)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중 3명은 매매혼을 통해, 나머지 1명은 소개를 통해 한국에 이주하였으며, 대만 결혼이주여성은 자유 연애를 통해 결혼이주하였다. 특히 베트남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고향이 호찌민 및 인근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는 베트남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기보다 대규모 중개업체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는 데에서 기인함을 시사한다. 즉 한국으로의 결혼이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중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베트남 북부의 하노이 인접 지역과 남부 호찌민 인근의 메콩 델타 지역이다(이지연 외, 2019).

연구참여자들의 업종은 미용실(A), 베트남식당(B), 대만 1인 샵브샵브식당 & 무역업(C), 커피숍(D) 그리고 네일숍(E) 등이다. 각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 내러티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A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미용실을 창업했다.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기에서 계속 떨어져 여덟 번 만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미용실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용실에서는 대부분 20대의 젊은 미용사만 구인하고 있었다. 코로나19라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까지 중첩이었지만 연구참여자 A는 창업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하였다. 미용실은 복합쇼핑몰 내 1층에 위치하였다. 크기는 15평이다. 창업비용은 3,700만 원 소요됐으며 인테리어는 남편의 지인들을 통해 저렴하게 할 수 있었다. 190만 원이었던 월 임대료는 올해부터 인상되어 200만 원이다. 미용실이 위치한 건물의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월 임대료가 비싼 편이었다. 운영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로 영업시간이 비교적 탄력적이다. 손님은 베트남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손님들도 많이 오며 특히 주말 손님이 많다. 이에 따라 베트남 지인을 주말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여 손님 샴푸와 드라이를 맡긴다. 연구



참여자 A는 “다른 나라에 왔으니” 성공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미용실을 창업하지 않았다면 커피숍이나 치킨집을 창업했을 거라며 창업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연구참여자 A의 내러티브는 ‘미용실 운영자 연구참여자 A’로 정리되었다.

연구참여자 B는 지인을 만나러 경기도 오산에 방문하였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게 임대료가 낮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리하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낮은 타 지역에서 식당을 창업했다. 식당은 37평으로 이전에도 식당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로 하루의 12시가량을 식당에서 보낸다. 식당 창업을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타지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가사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 월 임대료는 80만 원이다. 식당이 위치한 곳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많아 주변에는 베트남 마트, 중국 식당 등 외국인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지는 평택이나 인근의 다른 도시다. 거주 임대료가 낮은 오산에서 거주지를 정해놓고 출퇴근하는 형태다. 따라서 저녁이나 주말 손님이 많은 편이다. 손님은 외국인 손님을 비롯하여 한국 손님도 많다. 정성을 다해 육수를 우려낸 연구참여자 B는 음식 맛에 자부심이 강하다. 그래서 아무리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식당이 위치해도 음식이 맛없으면 손님이 없고, 반대로 유동 인구가 적어도 음식이 맛있으면 손님은 많으며, 식당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철학을 밝혔다. 음식 맛이 좋아 식당 영업은 점점 잘 되고 있다. 집에 다니던 횡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에서 격주로 늘어날 만큼 연구참여자 B는 바빠졌다. 연구참여자 B의 내러티브는 ‘베트남식당 운영자 연구참여자 B’로 정리되었다.

연구참여자 C는 대만 샤브샤브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공급을 위해 무역회사를 먼저 설립하였다. 이후 대만 샤브샤브 식당을 창업하였는데, 창업시기가 코로나19와 겹쳐서 창업 초기에는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한 날이 많았다. 식당은 점차 회복기를 거쳐 현재는 2호점을 계획할 만큼 영업을 잘되고 있다. 식당 창업 비용은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250만 원이다. 식당은 서울 H대학교 부근에 있어서 다양한 외국 손님들이 많다. 대만 손님을 비롯하여 미국,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가끔은 베트남 손님들도 있다. 한국어가 능숙한





연구참여자 C는 손님들과의 대화도 한국어로 한다. 무역회사를 통해 식당의 원재료뿐만 아니라 대만의 파인에플과 애플망고를 수입한다. 수입한 과일은 평택에 있는 대형마트와 계약 체결을 맺어 국내에 유통한다. 2023년 8월에는 대만 과일 회사의 임직원과 함께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홍보하기도 하였다. 무역회사와 대만 샵샵브 식당, 두 개의 창업체 운영을 통해 연구참여자 C는 더욱 자신감이 확대되었다. 연구참여자 C의 내러티브는 ‘대만식당 운영자 연구참여자 C’로 정리되었다.

연구참여자 D는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왔던 사촌오빠를 통해 남편을 소개 받았다. 베트남에서 커피숍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남편의 공장 근처에 커피숍을 창업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터라 공장 사업의 원활하지 않았던 연구참여자 D의 남편은 창업 비용을 전액 대출받았다. 커피숍의 창업비용은 6,000만 원으로 이마저도 인테리어비용은 남편 지인의 도움으로 2,000만 원 절감하였다. 월 임대료는 120만 원이며 관리비 포함 매월 200만 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된다. 연구참여자 D의 커피숍 창업에 대해 주변 한국 상인들의 축하와 벤치마킹 시도도 있었다. 공장지대에 위치한 커피숍은 주말에는 손님이 없었다. 대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과 모임을 갖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고향 사람들과의 정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D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초청하여 소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는 사촌기 연년생 두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지인에게 잠시 커피숍을 맡긴 상태다. 바쁜 커피숍 업무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에 우선은 자녀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D의 내러티브는 ‘커피숍 운영자 연구참여자 D’로 정리되었다.

연구참여자 E는 처음부터 네일숍 창업을 위해 네일미용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어려운 한국어로 인해 필기시험에서 계속 떨어져 자격시험 시도 여덟 번 만에 합격할 수 있었다. 창업 과정은 힘들었다. 입지 선정부터 홍보를 위한 모든 것들이 외국 출신이었던 그녀에게는 만만치 않았다. SNS 홍보 계정을 위해 울며 혼자 인터넷으로 독학했던 연구참여자 E는 현재 SNS와 전화로만 예약 손님을 받을 만큼 활성화되었다. 또한 창업 6개월 만에 초기비용을 회수할 만큼 고객관리에 신경 썼다. 고객이 원하면 새벽이라도 예



약받아 네일 관리를 해준 성실함이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 E의 네일숍은 시장 입구의 30년 된 건물 1층에 자리하고 있다. 11평의 비교적 적은 평수지만 내부 인테리어는 화이트와 밝은 조명으로 실평수보다 넓게 느껴진다. 오래된 건물, 적은 평수로 인해 월 임대료는 40만 원으로 연구참여자 5명 중 가장 낮은 금액이다. 창업 비용은 2,500만 원으로 이 역시 5명 중 가장 적게 소요됐다. 이 창업비용은 연구참여자 E의 부채 없는 순수한 자기 자본금이었다. 연구참여자 E는 성실함의 결과로 현재 네일숍 2호점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E의 내러티브는 ‘네일숍 운영자 연구참여자 E’로 정리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창업 비용은 위치한 지역과 건물의 낡음 정도, 그리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 났다. 서울은 창업비용이 으뜸이었다. 비슷한 평수여도 건물의 낡음 정도에 따 월 임대료가 5배 정도 차이 났다. 베트남 연구참여자들 4명 중 3명은 남편 지인의 도움으로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연구참여자 배우자들의 직업에서 기인한다. 즉 3명의 배우자들 중 2명은 기계 관련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1명은 기계 설계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다. 이들은 주변 상권과 형성된 협력과 소통으로 인테리어 부분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B의 베트남에서의 식당 아르바이트, 연구참여자 C의 한국 주재 대만 여행사 재직, 연구참여자 D의 베트남에서의 커피숍 직원, 연구참여자 E의 베트남에서의 다양한 직종의 아르바이트 및 커피숍 운영 등은 그들의 자영창업에 직간접적인 동기부여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서사적 통일성 및 초국가적 경험은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체와 연결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베트남 이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Bui et al(2023)은 출신 국가에서 식당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영업을 첫 번째로 선택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연구참여자 B의 경우 이주 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은 있었지만, 자영업은 없었다. 그러나 식당 아르바이트 역시 경험 과정에서 쌓은 다양한 자원화로 인해 이주국에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데 첫 번째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체 입지 선택에 있어 자신에게 익숙한 동네 지역(A, C, D, E)이나 임대료가 저렴한 곳(B)에 개업한 것은 김주락 외(2023)의 연구결과와 상통한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이전에 거주했던 곳처럼 일상적 경험이 이루어진 지역이 개업 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입지가 된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 역시 장점으로 꼽힐 수밖에 없다(김주락 외, 2023: 68).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난 공통적 특징은 이들의 개업 시기가 모두 코로나19라는 것이다. 이 기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공실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게 임대가 수월(김주락 외, 2023)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 V. 자영창업 내러티브에 나타난 주체성의 의미

본 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서 발현된 주체성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V장에서 기술된 각각의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녹취록과 전사록을 재확인하며 자영창업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주체성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어느 한 과정만 다루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구획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에 나타나는 행동의 특성은 의도를 도외시한 채 파악될 수 없고, 그 의도는 행위자 자신과 타인에게 가지성을 부여해 주는 무대장치(setting)와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다. 이때 무대장치는 제도일 수도 실천일 수도, 환경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역사를 가진다는 것이다(MacIntyre, 1997: 108). 따라서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자영창업 전후의 맥락 파악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은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은 도전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주체성 즉 자신과 세계가 맺는 관계를 변증법적이고 변혁적으로 만들어 가는 변혁적 주체성의 관점에서 차시별 전사록을 읽으며 코드를 부여하고 범주화 작업을 통해 주제를 생성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난 주체성의 의미는 총 4개의 의미영역과 8개의 상위범주, 16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4개의 의미영역은 ‘비판적 의식’, ‘삶의 전환’, ‘상호문화소통’, ‘정체성 형성’이다. ‘비판적 의식’의 상위범주에는 ‘비판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봄’, ‘삶의 목표 의식’이 나타났다. 그에 따른 하위범주로는 ‘차별을 인식하다’, ‘타문화를 통해 자아성찰하다’, ‘성공해야 하는 이유, 꿈을 갖다’, ‘미래를 계획하다’로 도출되었다. ‘삶의 전환’ 상위범주에는 ‘도전과 실천의 자세’, ‘몰입을 통한 개인의 성장’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하위범주로는 ‘기술 습득을 통해 나를 업그레이드하다’, ‘가



계의 주인이 되어 자유를 향유하다’, ‘일을 통해 성장하다’, ‘역량 발휘를 통한 자신감이 생기다’로 도출되었다. 또한 ‘상호문화소통’ 영역의 상위범주로는 ‘고객과의 상호작용’, ‘열린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하위범주는 ‘손님의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다’, ‘타 국가 외국인들과 소통하다’, ‘고향 사람들에게 익숙함을 주다’, ‘지역주민들과 연대를 희망하다’가 도출되었다. 마지막 ‘정체성 형성’ 영역의 상위범주로는 ‘여성으로서 정체성’, ‘언어문화로서 정체성’이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하위범주는 ‘자녀에게 더욱 집중하다’, ‘남편과의 갈등극복을 위한 모색’, ‘이름으로 나를 알리다’, ‘모국어는 고향이다’가 도출되었다.

의미영역과 상위범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은 일반 여성의 그것과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외국인이라는 점과 원활하지 않은 한국어로 인한 차별은 연구참여자들을 자아성찰하게 했으며 비판적인 의식을 기르게 하였다. 또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또 다른 외국인들과 소통함으로써 초국적 경계를 확장해 나가기도 하였다. 선주민과 이주민과의 연대를 꿈꾸기도 하고 언어문화를 통한 정체성 형성 및 재협상을 해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점들은 자아실현이나 경제적 이유가 우선인 일반 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나는 주체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귀납적 도출에 따른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그리고 의미영역을 나타내면 다음 <표 V-1>과 같다.

〈표 V-1〉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의 의미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의미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에서 차별받다</li> <li>도움 요청을 외면당하다</li> </ul>	차별을 인식하다	비판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게 맞지 않은 일, 내게 맞지 않은 맛</li> <li>다른 나라에 왔으니 성공해야 해</li> </ul>	타문화를 통해 자아성찰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다</li> <li>자녀의 진로를 위해서라면</li> <li>차별 없는 다음 세대를 꿈꾸다</li> <li>창업으로 노후를 준비하다</li> <li>2호점을 계획하다</li> <li>양국 간의 문화소통자가 되다</li> <li>돈 많이 벌면 베트남 가서 살고 싶어</li> <li>끝없는 도전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다</li> <li>나는 사장님이다</li> </ul>	성공해야 하는 이유, 꿈을 갖다	삶의 목표 의식	비판적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니까</li> <li>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자기 배려다</li> <li>운영 중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다</li> <li>미용 전문가로서 코칭하다</li> <li>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li> <li>그냥 쌀국수 먹어요 언니</li> <li>네일 안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 좀 그렇긴 하죠</li> <li>다양한 나라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다</li> <li>먼저 온 이주자로서 나중 온 이주자에게 도움을 주체 되기</li> <li>고향의 맛을 전하다</li> <li>지역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되다</li> <li>자녀돌봄을 위해</li> <li>이혼 후 따로 지내는 딸을 위해</li> <li>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li> <li>스타일 좀 바꾸면 예쁘겠어</li> <li>명함에 나의 이름을 새기다</li> <li>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편한 모국어</li> </ul>	미래를 계획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습득을 통해 나를 업그레이드하다</li> <li>가게의 주인이 되어 자유를 향유하다</li> </ul>	일을 통해 성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량 발휘를 통한 자신감이 생기다</li> <li>손님의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다</li> <li>타 국가 외국인들과 소통하다</li> <li>고향 사람들에게 익숙함을 주다</li> <li>지역주민들과 연대를 희망하다</li> <li>자녀에게 더욱 집중하다</li> <li>남편과의 갈등극복을 위한 모색</li> <li>이름으로 나를 알리다</li> <li>모국어는 고향이다</li> </ul>	물입을 통한 개인의 성장	고객과의 상호작용	상호 문화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향의 맛을 전하다</li> <li>지역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되다</li> <li>자녀돌봄을 위해</li> <li>이혼 후 따로 지내는 딸을 위해</li> <li>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li> <li>스타일 좀 바꾸면 예쁘겠어</li> <li>명함에 나의 이름을 새기다</li> <li>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편한 모국어</li> </ul>	지역주민들과 연대를 희망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에게 더욱 집중하다</li> <li>남편과의 갈등극복을 위한 모색</li> <li>이름으로 나를 알리다</li> <li>모국어는 고향이다</li> </ul>	여성으로서 정체성	언어문화로서 정체성	정체성 형성

## 1. 비판적 의식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 대하여 비판적인 방식을 갖고 살아간다. 즉 자신이 마주치는 현실을 ‘반성’을 통해 파악하며 깨달아 간다(Freire, 1978: 11). 반성과 행동은 언제나 변증법적 결합관계에 있다. 프레이리가 말하는 ‘이론적 실천’이란 실천과 의식의 깨어있는 고양의 과정이다. 이는 인간과 세계를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결합시키고 문제인식을 갖게 하며 ‘이론적 실천’을 하도록 지향함을 의미한다(심성보, 2022: 493).

사회 변화가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 ‘비판적 태도’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프레이리의 변혁적 교육학은 인간의 창조성, 자율성 그리고 사회정의를 촉진했다. 프레이리의 비판적 교육학의 프락시스는 학생과 교사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Apple & Au, 2011: 31).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참여자들은 비이성적인 사회변화를 감지하여 행동으로 나섰다. 즉 자신들만의 고유한 창조성과 자율성 나아가 사회정의를 위해 자영창업이라는 핵심적인 테제를 선택함으로써 주체성을 발현하였다. 이때 연구참여자들은 현실 직시와 비판적 검증을 통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을 수행한 행위자(심성보, 2022: 499)가 되었다.

인간이 인간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끝없는 사유와 변혁적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실천적 모색은 인간 해방을 위한, 인간화를 위한 삶의 과정이다. D. Belle(1990)은 여성의 자립에 있어서 여성의 억압과 차별에 대한 의식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은 물론 여성 일반에 대한 비하나 이중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필수라고 주장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비판적 의식 경험은 ‘비판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봄’, ‘삶의 목표 의식’의 2개의 상위범주 아래 ‘차별을 인식하다’, ‘타문화를 통해 자아성찰하다’, ‘성공해야 하는 이유, 꿈을 갖다’, ‘미래를 계획하다’의 4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V-2>와 같다.

〈표 V-2〉 연구참여자들의 비판적 의식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에서 차별받다</li> <li>• 도움 요청을 외면당하다</li> </ul>	차별을 인식하다	비판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게 맞지 않은 일, 내게 맞지 않은 맛</li> </ul>	타문화를 통해 자아성찰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나라에 왔으니 성공해야 해</li> <li>•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다</li> <li>•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라면</li> <li>• 차별 없는 다음 세대를 꿈꾸다</li> </ul>	성공해야 하는 이유, 꿈을 갖다	삶의 목표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으로 노후를 준비하다</li> <li>• 2호점을 계획하다</li> <li>• 양국 간의 문화소통자가 되다</li> <li>• 돈 많이 벌면 베트남 가서 살고 싶어</li> </ul>	미래를 계획하다	

### 1.1. 비판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봄

억압받는 상황을 좀 더 비판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억압받던 사람이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투쟁에 있어서 세계를 바꾼다는 희망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는 사회에서 자신이 위치한 곳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비판적 사고는 현실이 고정적인 실체가 아닌 과정과 변혁으로 인식한다(Freire, 1980: 81). 비판적 사고는 그러한 인식을 넘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고 통제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결정하는 힘을 길러 준다(Freire, 1985: 106).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비판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직장 내 차별과 타문화의 경험을 통한 자아 성찰이다. 이에 대한 주제로 ‘차별을 인식하다’와 ‘타문화를 통해 자아 성찰하다’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변혁적 삶으로의 초석이 된다.





### 1.1.1. 차별을 인식하다

#### *직장에서 차별받다*

연구참여자들이 깨어있는 의식 즉 비판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인식한 것은 직장에서의 차별이었다.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한 그 한국 아줌마들, 우리 베트남 사람인데 우리 처음 하는데 함부로 해. 그냥 좋아하면 오래 다녀. 근데 안 좋아서 또 바꿨어요. 옛날 우리 베트남 사람들 한국말 잘 몰라서... 어이구 진짜...(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한국에 와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도 일하고 여러 일 했죠. 근데 내가 맞는 일 없고. 그리고 일하니깐 내가 외국인이잖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차별. 이제 차별하고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는 걸 느끼니까. 한국 사람은 약간 가벼운 일 시키고, 일 많이 안 시키고 천천히 해도 되고.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빨리빨리 하라고. 그렇게 돼 가니까 회사가 싫어졌어요. 근데 보통 외국인이면 돈 벌잖아요. 일도 많이(하고) (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직장생활 당시 연구참여자 B는 많은 차별을 받았다. 외국인이라는 신분과 한국어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처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동료들은 함부로 말을 했다. 회사 생활에서 배려는 없었다. 외국인 신분이라는 이해도 없었다. 차별과 배제만 있을 뿐이었다. 차별 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직장을 옮겨 다녔다. 결국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구참여자 B는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었다.

한국 직장에서 다양한 일을 해봤던 연구참여자 E는 자신에게 맞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다. 견디기 가장 힘든 것은 직장에서의 차별이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공장에 취업하여 돈을 버는 구조였으므로 직장에서 차별 정도는 흔하게 이루어졌다. 가령 한국인들에게는 쉬운 일을 시키거나 재촉하는 법이 없는 것과 달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다. 또한 늘 “빨리 빨리”를 외치곤 했다. 그러한 직장생활에 연구참여자 E는



회의감이 밀려들었다. 아무리 ‘돈 벌기 좋아하는 여자’였지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았다.

연구참여자 B와 E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직장 내 한국인들의 차별을 인식하였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및 귀화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 낮은 임금을 어려움으로 지적한 비율이 10.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이 9.1%로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여성가족부, 2021). 원활하지 않은 한국어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한편 직장 내 차별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차별과 배제는 2015년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5),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서의 다양한 차별 경험을 연구한 김희정·조영아(2017)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희정·조영아(2017)에 따르면 한국인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종족의 차별 수용도가 다르다고 밝혔다. 즉 서구권 출신의 백인 이주민에 대해서는 한국인은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아시아권이나 비서구권 지역 이주민에 대해서는 배타적 태도를 보인다. 연구참여자 B와 E는 모두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그들이 한국에 초기 입국하였던 시점을 상고하면 이러한 연구결과와 연구참여자들의 차별과 배제 경험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 **도움 요청을 외면당하다**

직장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마친 후 다니던 학원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인식한 경우도 있다. 혹 자격증 이수 과정 중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및 배제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 또한 윤리적으로 대두되어야 할 문제이다.

처음에 네일숍 시작했을 때도 샵을 오픈하고 홍보 같은 거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못했거든요. 제가 외국인이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선생님도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별로 안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걸 느껴서(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연구참여자 E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네일미용 학원에서도 차별을 경험하였다. 이때의 차별은 무관심과 배제에 가까운 차별이다. 네일숍 홍보를 위해 학원 측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응답과 무관심이었다. 외국인 여성이라는 신분이 어딜 가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차별 앞에 멈춰 서게 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삶 속에서 ‘젠더’의 요소는 여성들에게 억압과 소외를 가져다주는 불평등한 구조이자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역할도 부여된다(김경민, 2018).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생활 참여 경험은 젠더 연구, 이주 연구 나아가 다문화가족연구 등의 교차적 위치에 서 있다. Tajfel(1970)은 내집단이 외집단에 대해 갖는 심리적 편견은 뚜렷한 이유 없이 발생하며, 편견을 갖게 하는 요소로 인종, 국적, 종교 등의 차이를 지목하였다. 이러한 편견은 집단 간 사회적 심리적 갈등을 양산하고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편견이 심리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라면, 차별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김지영 · 이윤석, 2022).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차별 경험은 인종적인 요소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의 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덜 존경받는 것, 식당이나 상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악한 서비스를 받는 것, 똑똑하지 못하다는 취급을 받는 것, 두려움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것, 정직하지 못한 취급을 받는 것, 하대 받는 것, 이름이 불리거나 모욕적인 호칭으로 호명되는 것, 위협을 받는 경험(Williams, Yu, Jackson & Anderson, 1997)을 포괄한다(김지영 · 이윤석, 2022). 일상에서 만연한 차별을 경험한 연구참여자 B, E는 본국과의 동일시를 강화하며 동시에 한국 사회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B는 결혼이주 초기 한국에서 힘들 때마다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이 너무 보고 싶어 울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 사고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았다. 이로써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함 즉 차별을 인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타자와 더불어 상호작용하고 세상에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며(심성보, 2022)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였다. 의식화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구성하는 것이다(심성보, 2022).



### 1.1.2. 타문화를 통해 자아 성찰하다

#### 내게 맞지 않는 일, 내게 맞지 않은 맛

자아 성찰은 일반적으로 계기를 필요로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거주국의 문화 즉 한국문화와 접촉 또는 그것을 경험한 후 자신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다.

회사는 앉아서 일만 하고 또 집에 가고. 밥 먹으러 가고. 1시 반에 또 일 시작하고. 답답해서 죽겠어요. 막 사람들이 말을 안해.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 조립하는 회사였는데 서로 말을 안 하고 답답해요. 회사에 베트남 친구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회사 좋아했어요. 회사 많이 좋아해요. 제가 맨날 그냥 회사 다니지 말고, 기술 배우자고 해도 친구들은 회사 계속 다녀요(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제가 (대만)샤브샤브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맛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리워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대만에서는 거의 다 1인 식이에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성격이 활발하고 바깥일 하기를 좋아했던 연구참여자 A는 직장생활이 맞지 않았다. 소통이 없는 직장생활이 그저 답답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대화 없이 일만 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고 다시 시간 되면 또 일하다 퇴근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숨 막혔다. 암울한 회사 생활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부품 조립하는 일은 단조롭기만 하여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 변화가 필요했고 꿈꿨다. 동료 베트남 친구들에게 퇴사하여 다른 기술을 배우자고 권했지만, 친구들은 안정적인 회사를 더 좋아했다.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깨달았고,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 즉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에 반응하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자격증 과정이라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지만, 한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맛과 음식을 위해 직접 자신이 창업한 경우이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겪으며 자신의 원하는 바를 더욱 뚜렷이 깨닫고 이에 대하여 숙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성찰은 삶의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하며 삶을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실천적 키를 가지고 있다. 타문화와 접촉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포기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나와 세계가 맺는 관계를 변혁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깨닫고 침묵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 진정한 자아 발견은 우리의 일상에서 실존적 현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발생한다. 성찰과 행동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식화가 이루어진다. 비판 의식의 발달은 자신을 알고 타인을 알고 세계를 아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유와 유연하고 객관적인 사고가 습관화되어야 한다. 사고는 반성을 통한 주위 환경과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anner, H, 2004).

## 1.2. 삶의 목표 의식

### 1.2.1. 성공해야 하는 이유, 꿈을 갖다

#### *다른 나라에 왔으니 성공해야 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유 또한 명확하였다. 이는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티브로 작동되기도 하였다.

내가 다른 나라에 왔으니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여기 미용실 연 것도 그래서... 멀리 와서 열심히 살아야 해(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힘드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여기 베트남 사람 대단한 사람 많아요. 장사도 다 잘하고, 미용실도 차리고. 미용실 사업하는 친구 가게도 1억까지 한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했죠(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연구참여자 A와 E는 자신들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를 결혼이주여성으로 타국에 온 이유를 꼽았다.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은 욕구, 그런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각오를 다짐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연구참여자들이었다. 주위의 본국 출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그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비교의식 또한 있었다. 이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때야 비로소 자각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삶의 목표 의식 또한 생긴다. 또한 이때의 비교는 건강한 비교의식에서 출발하였으므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에서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우리 삶을 사랑한다면, 삶의 과정 즉 성장과 발전, 자각을 통한 깨우침의 과정이 어떠한 기계적 실행이나 성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Fromm, 2022: 40).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자각하고 또한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려 애쓰며 노력하는 연구참여자들이야말로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전의 직장생활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접 함으로써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이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제가 많이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많이 성공하면 자기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너무 좋아요. 2호점 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략) 사람 구해지는 거 봐서 2호점 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C, 2차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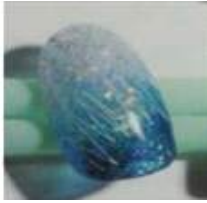
제가 제일 좋아하는(하고 싶은) 거는 일본 가서 손톱 하고 싶어요. (연구자: 일본이 네일 아트를 잘해요?) 잘하는 거는 모르겠고, 내 눈에서는 나랑 맞아요. 내 눈에서는 잘하는 거 모르겠고 나랑 스타일이 맞아서. 왜냐하면 이런 거는 어디가 잘하고 이런 거 별로(의미 없어요). 내가 스타일 좋아 해야 되니까. 일본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 화려해. 화려하고 아트 많이 해요(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대만 샵샵 식당과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C는 사업의 성공과 함께 자신감이 상승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이 창업한 식당을 2호점 계획까지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이유 또한 명확했다. 즉 일본 네일아트의 화려함이 자신의 스타일과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 현지에서 네일 관리 받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일본은 고대부터 빨간색에 대한 강한 집착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카와 나라 시대에 건축 재료의 빨간색 염료인 홍각(紅殼)을 이용하여 이마나 입술 및 손톱에 빨간색 물을 들였다. 즉 일본은 고대부터 네일관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네일아트의 다양한 변천사를 거치다가 1940년대의 에나멜(Enamel) 수입으로 네일아트 문화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지현숙·김은실, 2017). 반면 한국의 네일 미용은 1990년부터 시작하여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다(신지연·원윤경, 2013). 양국의 네일미용 및 네일아트의 역사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일본 네일의 축적된 역사만큼 다양한 문양 및 디자인은 예측 가능하며, 연구참여자 E는 네일미용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일본 네일에 대한 역사와 특성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 네일아트의 F/W 경향은 꽃과 같은 식물을 모티브로 한 자연문과 추상문이 동시에 나타난 복합문의 형태나 체크패턴을 모티브로 한 기하학문과 리본을 모티브로 한 인공문과의 복합문 형태가 두드러진다. S/S 시즌에는 보석류와 같은 장식의 디자인이 주를 이룬다(지현숙·김은실, 2017).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의 네일아트 디자인과 연구참여자 E가 즐겨 사용하는 그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그림 V-1]은 일본 네일아트 디자인이다.

S/S 시즌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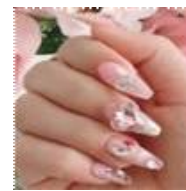
F/W 시즌 문양



[그림 V-1] 일본 네일아트 디자인

자료: 지현숙 외(2017)

일본 네일아트 디자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연문양과 추상문양이 복합되어 나타난 복합문양이 많다. 또한 비즈와 같은 장식을 이용한 디자인은 S/S나 F/W 시즌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한편 연구참여자 E가 주로 사용하는 네일아트 디자인은 다음 [그림 V-2]와 같다.



[그림 V-2] 연구참여자 E의 네일아트 디자인

자료: 연구참여자 E의 SNS





위의 [그림 V-2]에서 보듯이 연구참여자 E는 복합문을 사용하되 비즈를 이용한 장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네일아트 디자인에 비하면 화려한 면이 많지 않다. 네일의 색상 및 디자인은 고객의 취향 또한 반영해야 하므로 연구참여자 E의 개인적인 취향만 내세울 수 없다. 따라서 화려한 네일아트를 좋아하는 연구참여자 E는 개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일본 네일아트 디자인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와 맺는 세상을 끊임없이 의식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데서 비롯된다. 목표 의식은 꿈이 있을 때 더욱 선명해진다. 연구참여자 E가 창업을 통해 성공해야 하는 이유로 자아실현을 꼽은 것은 여성창업의 동기 및 특성에서 논의한 자아실현(중소기업연구원, 2007)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라면

한편 연구참여자 E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로 분석된 내러티브 중 하나는 자녀교육이다.

사장님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으세요? 나 아기 두 명 있어요. 애들 학원 다녀요. 돈 많이 들어가요. 신랑이랑 같이 일했는데 아이고 맨날 애기 돈 나가는데 힘들어요. 우리 딸내미 지금 열일곱 살인데 미용실 학원하고 싶었대. 미용사 하고 싶어해 언니(웃으며 한숨 쉬). 지금 다니는데 학원비가 한 달 40만 원이에요. 언니. 우리 아들 학원, 딸내미 학원 뭐 돈 열심히 했는데, 그 힘들었는데 혼자 살기 힘들어. 베트남은 학원 보내는 사람 보내 있어, 안 보내는 사람 있어요. 왜냐면 그냥 돈 있는 사람은 보내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그냥 해요. 근데 한국은 돈 있어 돈 없어 다 해야 돼요(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OO이가 대학을 대만으로 가게 되면 그때 나도 같이 갈 생각이예요. 이제 OO이가 대학을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따라가야죠(연구참여자 C, 2차 면담).



연구참여자 B는 남편과 함께 다니며 택배 업무를 도왔다. 그러나 비싼 사교육비로 인한 중·고생 두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수입이 부족했다. 예컨대 미용학원에 다니고 있는 딸의 학원비는 만만찮다. 베트남에서는 형편이 허락되는 사람은 사교육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통념이기 때문에 비록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사교육을 시키므로 어쩔 수 없이 합류해야 하는 현상이다. 연구참여자 B 역시 한국의 비싼 사교육 시스템에 불멘소리를 내지만, 딸의 진로를 위해서는 보낼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겪는다. 연구참여자 B는 중·고생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힘들어도 열심히 일한다고 전했다. 그녀에게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곧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었다.

연구참여자 C는 초등학생 딸의 향후 대학 진로를 대만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 그녀는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딸에게 이중언어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다. 연구참여자 C는 확실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위의 연구참여자 B와 C에게 성공해야 해야 하는 이유로 작동되는 기제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자녀교육이었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학력과 무관하게 자녀교육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김유진·오성배, 2013; 최승은, 2019).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역시 중학교 졸업자인 연구참여자 B와 대학교 졸업자인 C는 그들 자신의 학력과 무관하게 자녀교육에 열정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은 이전의 직장생활보다 더 나은 수입 즉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자녀교육에 더욱 뒷바라지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 **차별 없는 다음 세대를 꿈꾸다**

연구참여자들이 성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녀의 학교에서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어서 우리 애들이 그런 걸로 좀 신경 쓰고 그래서 처음엔 좀 걱정했죠.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저도 뭐 인권 강사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알긴 했는데 근데 저도 그만큼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중략) 저도 왜냐하면 애들이 어린이 집에 갔는데 어떤 환경도 막 참석하고 학교에서도 초록색 엄마도 하고 봉사활동 있잖아, 행사는 다 참석했어요. 일단은 잘못하지만 그냥 일단은 노력했고 애들도 (엄마의) 그런 모습 보면 좋아하고. 다른 엄마와도 같이 잘 지내니까 애들은 어쨌든 우리 엄마가 내 학교 와서 다른 엄마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나한테 관심 보여주고 그러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 많은 자리에서 완벽히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일단은 그냥 무조건 좀 참석했어요. 좀 컸으니까(지금 은 안가죠) 중학교부터 안 가는 거지 초등3, 4, 5, 6학년까지는(봉사활동 다 했어요). 도서도...(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연구참여자 D는 자녀들이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것을 걱정하여 인권강사를 자처했다. 특히 첫째인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자신이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인지한 사실에 연구참여자 D는 놀라움과 염려로 고민하였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자신이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엄마인 자신 때문에 자녀가 친구들과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하기도 한다(최승은, 2019). 자녀가 원만한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봉사활동과 학생들에게 상호문화를 알리는 것이었다. 등하교 시 교통지도와 도서관 사서 활동 및 교실에서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학부모 공동체 내에서 오가는 의사소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연구참여자 D는 오직 자녀들을 위해 학교와 학급 활동에 최선을 다하려 했다. 자신의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과 같은 위치에서 평등하게 교육받길 원하고(최승은, 2019), ‘왕따’라는 차별과 배제가 없는 학교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꿈은 하나의 요구이고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미래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물질적 조건과 구체적인 현실 그리고 지향하는 계획과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



다(프레이리, 2020: 195).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확실한 목표와 꿈이 있었다. 그 꿈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바를 알고 있었고 성실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 1.2.2. 미래를 계획하다

### *창업으로 노후를 준비하다*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배우자와 나이 차가 많다는 것이다. 평균 열 살 이상의 차이로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장기 거주화<sup>15)</sup>와 함께 노후대비라는 새로운 국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열다섯 살 이상 차이 나요. (중략) 만약 창업하는 (이주여성) 있으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라고 해 줄 거예요. 남편이 도와주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열심히 알아서 해야 해요(웃음) (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우리 신랑 지금 쉰셋이에요. 열세 살 이상 차이 나요. 남자들도 갱년기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해요(연구참여자 D, 1차 면담).

우리 남편 나이 많아요. 어차피 오빠 나이 많으니까 약간은 사춘기 오춘기 이런 거 생기겠지. 그래서 그냥 서로가 맞춰 가는 거지 뭐. 남편은 도면 그려요. 도면 하니까 베트남도, 미국에도 다녔어요. 전에는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잘 안 가요. 몸이 좀 안 좋아서(연구참여자 E, 1-2차 면담).

15) 결혼이주여성·귀화자 중 39.9%가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며 10~15년 미만 거주자가 28.9%, 5~10년 미만 19.2%, 5년 미만 12.1%로 15년 이상 거주자가 40% 가까이 되며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70%에 이를 정도로 장기 거주자의 비중이 크게 차지한다(여성가족부, 2021).



연구참여자 A와 남편의 나이 차는 열다섯 살 이상이다. 이는 부부의 노후 준비 및 가정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바뀔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스코핑 방법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연구 동향을 분석한 남정연·김영순(2023)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언을 함으로써 현안에 관한 시사성을 강조하였다. 즉 다문화가족의 높은 부부 연령차는 노후 준비와 연결된다. 다문화 부부의 24.8%가 10세 이상 남자 연상 부부이다. 이 가운데 결혼생활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된 가족은 2021년 기준 38.7%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결혼지속기간의 증가에 따른 남편의 소득 활동은 반비례한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노후 준비는 경제활동 정책으로서 잘 준비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 A의 자영창업 역시 노후 준비 및 향후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한 경제활동의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와 나이 차가 적게는 열 살, 많게는 열다섯 살 이상 난다. 특히 미용실을 운영하는 연구참여자 A는 40대 초반으로 남편과는 열다섯 살의 나이 차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인 친언니에게 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그녀는 이후 매매혼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되었다. 미용실 창업은 남편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남편 도움이 없을 경우라면 “열심히 알아서 해야 한다” 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즉 남편의 도움이 없어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열심을 다 하라는 의미다. 연구참여자 A의 이 고백은 창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결혼이주여성에게 선배 창업자로서 전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간 연령 차이가 5~10년 미만은 21.9%, 10~15년 미만은 15.8%를 차지하였다. 한편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연령대는 30대(36.4%), 40대(24.0%)였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 배우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5.1%)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40대(33.6%)로 40대와 50대의 중장년층이 68.7%에 이르며 30대(15.3%) 60대 이상(13.7%), 20대(2.3%) 순이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30대(17.5%), 40대(44.0%)는 2.2%p, 10.4%p 각각 감소하고, 20대(2.0%), 50대(27.6%), 60대(8.9%)는 각각 0.3%p, 7.5%p, 4.8%p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40대와 30대 배우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20대, 50대, 60대 배우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연령대(40대)와 그들 배우자의 연령대(50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남편과의 연령차가 한국인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족원의 수입이 조기에 끊길 우려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공적연금 혜택이 적고,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을 더욱 열악한 위치로 몰아넣을 수 있다(성지혜, 2015).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차별적 위치는 생애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격차를 악화시킨다. 결혼이주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임서연·황선재, 2022).

연구참여자 A의 자녀는 아들 하나로 현재 중학교 1학년이다. 아직 어린 자녀에게 앞으로 들어가야 할 교육비 명목은 다양하다. 사교육비를 비롯하여 대학교 정규 과정을 계획한다면 금액 또한 적잖은 비용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연구참여자 A의 남편은 50대 중장년으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및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마련의 시간적 여유가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참여자 A의 미용실은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뿐더러 나아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 D와 E는 배우자의 갱년기를 옆에서 함께 겪고 있었다. 남성의 갱년기는 주로 50대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잦은 피로감, 성기능 감퇴, 안면 홍조, 기억력 감퇴, 우울증 등의 복합적인 증상들과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저하 되어 있는 임상적, 생화학적 증후군을 의미한다(이경수 외, 2015). 연구참여자들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배우자들을 이해하고 맞춰주려 노력하였다. 부쩍 스트레스가 많아진 연구참여자 D의 배우자, 주로 해외 현장을 다니며 도면 그리는 작업을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근래에는 그 횟수가 부쩍 줄어든 연구참여자 E의 배우자, 이들은 40대 초반인 연구참여자와 달리 갱년기를 겪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E와 남편은 재혼 커플이다. 현재 둘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이전 배우자를 통해 낳은 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의 노후 준비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참여자 E가 많은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구참여자 D는 연구참여자 A와 마찬가지로 아직 어린 자녀



의 교육과 남편의 근로 여건이 상충되어 연구참여자 D의 자영업체가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는 52.1%에 불과하고, 은퇴를 앞둔 60세 이상 층은 40.2%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 따라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은 이러한 실태에 기반하여 적극적인 노후 대책 마련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가치기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은 노후 준비의 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희망의 교육학」에서 사회경제적 구조와 관련된 우리의 현실을 들춰봄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지식을 얻게 될 때 비판적 지식 그 자체가 현실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 하였다. 즉 비판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억압받았던 사람이 해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이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폭로, 성찰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신을 비롯한 세계변혁에 대한 희망이 필요하다(Freire, 2020: 74-75).

## **2호점을 계획하다**

자영창업체가 안정 궤도에 들어선 연구참여자들은 분점을 계획했다. 또 다른 실천을 앞둔 연구참여자들은 심사숙고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C는 매우 진취적인 여성이다. 사업하는 것을 좋아하며 사업을 통해 성취감을 얻는다. 성취감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2호점 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알바 한 명만 남았어요. 근데 직원 계속 구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바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식당 영업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월급 진짜 엄청 많이 줘야 돼요. 사람 구해지는 거 봐서 2호점 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C, 2차 면담).



그냥 자기의 지금 지금 사업하는 거는 이미 취미예요. 많이 성공하면 자기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너무 좋아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는 대만식 샤브샤브가 자신의 식당 말고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분점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직원 충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식당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12시간에 다다르는 긴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있을 직원이 없을뿐더러 있다고 해도 급여 문제가 따른다고 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고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 측면에서는 파트 타임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러한 직원 충원의 문제로 연구참여자 C의 2호점 계획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식당 운영을 ‘취미’ 라고 표현한 연구참여자 C는 그만큼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였다. 면담 내내 풀어내는 내러티브며 재료 소개 시 거침없는 목소리는 그러한 자신감의 한 예가 되었다. 대만 샤브샤브 분점 계획을 세울 만큼 식당은 운영이 잘 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E는 영업 수완이 탁월했다. 덕분에 네일숍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연구참여자 E의 계획이 생겼다.

새로 사업할 장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두 번째 샵. 여기는 그냥 어차피 시간 지나서 어느 정도 자리 잡혔으니까 다른 샵을 조금 일하는 사람으로... 여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여기도 손님이 있으니까. (연구자: 사장님이 1, 2호점에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있다가 거기 갔다가. 그때는 이곳에서는 예약 손님만(발췌) (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열 평 남짓한 네일숍에는 연구참여자 E의 애정이 곳곳에 묻어있다. 힘든 시기에 어렵게 창업하여 일궈놓은 자식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네일숍은 시장 입구의 오래된 건물에 임대되어 있다. 차량 진입과 가게 내의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 확보를 위해서라도 연구참여자 E는 변화가로 옮겨가길 원했다. 그러나 애정이 담긴 현재의 네일숍을 포기할 수 없어서 따로 2호점을 계획하고 있다. 미용실 개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인과 협의하여 미용실 내 네일숍을





두는, 샵인 샵 형태로 계획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될 시 2호점에는 직원을 채용하여 상시 근무하게 하며, 1호점은 기존 단골들의 예약만 받으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녀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유쾌한 자세는 언젠가 꼭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낳았다.

### 양국 간의 문화 소통자가 되다

연구참여자 C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고 가족 행복 추구가 우선이었다. 이는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저는 돈 많이 벌면 먹고 살아야 돼요(웃음). 저는 그냥 가족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지금처럼). 대만 가족들과 지금 우리 가족 다요(연구참여자 C, 2차 면담).

대만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식구들같이 해서. 거의 두 달? 두 달에 한 번(씩 다녀와요) (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의 샵브샵브 식당과 무역회사는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할 만큼 안정적이고 탄탄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C는 “돈 많이 벌면 먹고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걱정을 드러낸다. 한편 가족의 행복을 그 무엇보다 바라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망 속에서 역으로 그녀는 지금 매우 행복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대만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다녀온다. 그래서 딸의 이중언어교육 역시 꾸준히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기적인 대만 방문과 딸의 이중언어교육은 한국과 대만, 대만과 한국 간 문화소통자가 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상호소통은 사업에 있어서나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기한테는 그거 이중언어교육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자주 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 중국어 해요. 왜냐면 애기는 어릴 때부터 나랑 같이 이렇게(대만 말로 얘기를 해서). 지금 아기는 중국어는 쓰기만 배우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거 그리고 저기 거의 대만 아기 비슷해요. 그래서 글씨 쓰는 거 배워요(연구참여자 C, 2차 면담).

연구참여자 C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대만에 데리고 다니며 대만어로 소통하였다. 지금 자녀의 말하기 수준은 대만 출신 또래 아이들과 비슷하다. 이러한 자녀의 이중언어교육 즉 대만 중국어의 능숙한 사용은 향후 진로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OO(딸)이가 대학을 대만으로 간다고 하면 대만으로 보낼 계획은 있어요. 당연해요. OO이 위주로 결정(할 생각이예요) (연구참여자 C, 2차 면담).

저 이중국적 가지고 있어요. 이중국적 불편한 거 없어요. 그냥 그거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 이렇게 생활하고 인천공항 나가면 대만 것(대만 여권)도 쓸 수 있어요. 세금은 양쪽 나라에 다 내긴 하는데, 근데 그거 지원도 있고. 다 받고 유치원은 양쪽 다 받고. 그래서 불편한 거 없어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C가 딸의 대학 진학을 대만으로 염두에 둔 것은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금 차원에서는 납세보다 지원받는 폭이 더 커서 오히려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구참여자 C의 사업 번창과 가족 행복의 중심에는 남편의 도움이 있었다. 남편은 연구참여자 C와 일곱 살 연상이었다. 연구참여자 C는 남편에 대한 호칭을 ‘오빠’라 하였고 남편은 그녀에게 이름을 부르는 다정한 사이였다.

(연구자: 사장님은 제가 아는 결혼이주여성 중에 가장 많이 성공한 케이스 같아요.) 아뇨... 아직. 남편 많이 도와줘요. 남편이 대만 중국어도 잘해요. 그래서 대만 갈 때도...(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실제로 연구참여자 C는 연구자가 만난 많은 결혼이주여성 중 성공한 사례에 해당하였다.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기에 더욱 가능했다. 연구참여자 C의 남편은 그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남편은 연구참여자 C를 배우자로, 자녀의 어머니로, 사업 상대로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으로 섬기고 있었다.

### **돈 많이 벌면 베트남 가서 살고 싶어**

연구참여자 B는 베트남 가족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때에는 딸과 함께 베트남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함께 가지 않은 아들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드러냈다. 본국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는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으로 이어졌다.

나 여기 옛날에 코로나 많은데 베트남 한 번 갔다 왔어. 그냥 식당 때문에 저 안 갔어. 그때 우리 딸내미랑 갔어요. 아들 안 가.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랑 같이 가야 돼. 안 가. 베트남말 몰랐잖아. 한국말만 알았는데 그냥 베트남 가서 싫어. 그냥 한국에 친구 많이 있어. 야 지금 컷어. 엄마랑 같이 안 가. 따라 안가(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연구참여자 B는 식당 창업 전 바로 딸과 함께 베트남에 다녀왔다. 고등학교생인 아들은 자신과 함께 갔으면 좋았겠지만, 베트남말을 몰라서 가기 싫었을 거라며 이해한다. 아들은 이미 다 커버렸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나서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B는 이럴 때를 대비하여 모국의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했지만 때가 많이 늦었다고 하였다.

아기들한테 베트남말 얘기 해줬는데 공부 안 했어요. 지금 얘기했는데 엄마 베트남말 얘기했는데 시끄럽다고 얘기해. 언제 15일 동안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 조카랑 놀면서 한꺼번에 배웠어. 와서 또 말 안 해. 조금만 공부해도 베트남 말 관촬았는데, 한국 오니까 또 베트남 말 안 해(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연구참여자 B와 함께 베트남에 간 자녀는 베트남에 있는 동안 사촌과 어울리며 베트남말을 금방 배웠다. 그러나 한국에 오자마자 베트남말을 다시 잊어버렸다. 언어는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후 연구참여자 B가 자녀들에게 베트남 말을 가르치려 하였지만, 자녀들은 배우려 하지 않았을뿐더러 시끄럽다고까지 하였다.

연구참여자 B의 베트남 가족들과의 교류는 엄마의 제사료까지 이어진다. 즉 2023년 9월에 있을 엄마 제사 때 여동생과 함께 베트남에 간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와 조상숭배 문화가 이어져 내려온 나라라 제사 역시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타국에 있는 자녀가 부모님의 제사를 위해 출신국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 돈 많이 벌어 베트남 가서 살면 딱 좋은데 돈 없어서 못 살아(웃음). 아직 생각 없어 (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연구참여자 B는 베트남 가서 살고 싶은 소망을 내비쳤다. “돈 많이 벌면 무엇을 하고 싶냐?” 는 연구자의 사전 질문도 없이 문득 꺼낸 말이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려움 없었던 연구참여자 B가 베트남 회귀로의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돈이 없어 생각(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 2. 삶의 전환

연구참여자들은 의식화를 통하여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즉 삶의 긍정적 자세로의 전환이다. 이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헤겔(G.W.F. Hegel, 1770-1831)은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 장(章)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다루고 있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논의는 자의식으로 시작한다. 헤겔은 자의식을 욕망으로 간주한다. 즉 타자를 지양하여 자기 확신을 얻고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욕망



으로서의 자의식이 갖고자 하는 자립성은 다른 자의식의 인정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 헤겔은 결국 자립성 확립을 위해 목숨 걸고 자의식을 고수하여 승리한 의식을 주인이라 명명하고, 반대로 생명에 집착하고 죽음이 두려워 굴복한 의식을 노예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주인은 자립적 의식이고, 노예는 비자립적 의식이다. 인정투쟁에서 패배한 노예는 이제 자신을 살려 준 대가로 주인에게 봉사 의무를 갖는다. 이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연속을 넘어선 향유와 노동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제 노동은 노예에게 생존 방식으로서 주인의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과 자연의 저항 속에서 고통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다.

이러한 노동의 과정에서 노예는 자립적 의식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즉 주인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노예는 ‘죽음이라는 절대적 공포’가 ‘절대적 주인’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노예의 노동은 주인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 노예는 자신의 삶과 죽음의 관계에서 노동하는 자의식인 것이다. 결국 노예는 외적 강제성에 의해 행하는 노동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능력과 진정한 자립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반면 주인은 노동하지 않고 노예에게 의존함으로써 자립성을 상실하게 된다. 주인은 ‘노예의 노예’가 되고, 노예는 ‘주인의 주인’이 된다. 즉 자립적 의식과 비자립적 의식이 전도되는 변증법적 과정을 겪게 된다. 헤겔의 자각적 의식은 곧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추동하고 발전시키는 기제가 된다. (우기동, 2008).

파울로 프레이리는 『희망의 교육학』에서 ‘희망은 존재론적 요구’이며, ‘존재론적 요구로서의 희망이 역사적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Freire, 2020: 20).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비자립적 의식에서 자립적 의식으로 전도되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희망이 역사적 실체가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실천은 삶의 전환을 불러일으켰으며, 연구참여자들이 관계 맺는 세상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삶의 전환은 ‘도전과 실천의 자세’, ‘몰입을 통한 개인의 성장’이라는 2개의 상위범주와 ‘기술 습득을 통해 나를 업그레이드하다’, ‘가계의 주인이 되어 자유를 향유하다’, ‘일을 통해 성장하

다’, ‘역량 발휘를 통한 자신감이 생기다’ 등의 4가지 하위범주로 나타났  
 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V-3>과 같다.

<표 V-3>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전환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 끝없는 도전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다	기술 습득을 통해 나를 업그레이드하다	도전과 실천의 자세
• 나는 사장님이다	가게의 주인이 되어 자유를 향유하다	
•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니까 •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자기 배려다 • 운영 중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다	일을 통해 성장하다	몰입을 통한 개인의 성장
• 미용 전문가로서 코칭하다	역량 발휘를 통한	
•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신감이 생기다	

## 2.1. 도전과 실천의 자세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이 인식했던 세상의 부조리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즉 그들은 힘겹지만 결국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에 성공한다. 이를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조우하기도 한다. 또한 자영업 운영하면서 자신의 역량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삶의 행복을 누렸다.

### 2.1.1. 기술 습득을 통해 나를 업그레이드하다

#### **끝없는 도전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전문적 기술 습득을 원했다. 즉 자격증 취득에 도전함으로써 삶의 단계에 오르기 위한 도움단기를 하였다.

그때는 그 베트남 사람 한 4명 정도 다녔는데 필기 때문에 그냥 다 포기했어요. 저만 남았어요. 저도 필기 어려워서 그때 한국말도 모르고 계속 학원만 다니면서 1년 정도 걸렸어요. 실기는 좀 괜찮은데...(연구참여자 A, 1-2차 면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다니면서 하루 종일 수업 들었어요. 엄청 힘들게 배웠어요(웃음).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돈 들어가는 거는 많이 없고 연습 많이 해야 하나까 재료가 많이 들어갔어요. (중략) 실기는 쉬운데 필기시험 너무 어려워서 7번 만에 합격했어요. 저 약간 돌머리라서 그런지 저 원래 공부 잘 안 돼요(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베트남 이주여성인 연구참여자 A와 E는 자격증 시험에서 특히 필기 부분이 어려웠다. 한국어 자체도 버거웠지만, 난해한 말들로 채워진 필기 과목들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들은 한번 시작한 도전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들은 과거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이 있다며 프레이리는 살아온 순간들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관련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매 순간 자신이 하는 경험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 그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Freire, 2020: 65). 즉 연구참여자 A와 E는 자격증 취득에 거듭하여 실패를 겪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애초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던 관련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 언어소통의 부자유, 낮은 학력의 배경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이 현재의 처한 환경에서 삶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도전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에 가능하다.

## 2.1.2. 가게의 주인이 되어 자유를 향유하다

### 나는 사장님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존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를 둘러싼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능동적 주체화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천’에 있다.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심정보 외, 2023: 60). 연구참여자들은 능동적 실천의 결과로 자영창업에 이르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영창업을 통해 예측에서의 벗어남을 느꼈다.



저는 여기 하나까(미용실 창업하나까) 좋아요. 손님 있으면 바쁘기도 하지만 좀 한가할 때는 쉬기도 하고(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베트남 친구들과 놀러 와서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사장이니까…(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저기 회사 다녀오면 조금만 힘들었는데 우리 거 천천히 해도 돼요. 한국 아줌마들, 우리 베트남 사람들 한국말 못한다고 아우 진짜…. (직장) 갔다 오면 지쳐요. 그리고 아기들 키우는 것도 이게 더 좋아요(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연구자의 손톱 관리 중인 연구참여자 E와 많은 대화가 오갔다. 그러는 동안 연구참여자 E의 휴대폰이 울렸다. 베트남 지인에게 걸려 온 전화인지 그녀는 베트남어로 통화했다. 휴대폰을 한쪽 귀와 어깨 사이에 고정시킨 채 지인과 통화하며, 연구자의 손톱을 관리하고 있다. 자영업의 장점이 바로 저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로움(연구자 노트).

자영창업을 통하여 연구참여자 A, B, E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자유로움이었다. 연구참여자 A와 E는 이전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억눌림 그리고 눈치보기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즉 ‘자유에 대한 두려움’,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현실에 ‘길들여지려고 함’ (Freire, 2020: 118)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구참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사장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천천히 해도 돼’가 가능해졌다. 연구참여자 E의 경우 고용주였으므로 고객관리 도중 지인과의 통화가 가능했다.

연구참여자 A의 미용실에는 베트남 이주여성 친구들이 종종 방문하곤 하였는데 연구참여자 A는 이점을 매우 만족해하였다. 자신이 미용 종사원 신분이라면 고객으로 맞이하거나, 혹은 업무 외적으로 만나야 할 지인들이지만 그녀가 ‘사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쉽’ 역시 자영업으로 인한 만족 요소이다. 즉 손님이 없을 때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쉴 수 있는 자유로움은 ‘나의 공간’이 주는 장점이다.





프롬은 산업사회로 인해 시간이 만사를 명령한다고 한다. 비단 공장에서의 작업뿐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활동이 시계에 맞추어 조정되어 있음을 비판한다. 따라서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바로 돈이며, 휴식 시간에만 약간의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다(Fromm, E, 2007: 178).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자영창업을 통한 휴식 시간은 차별에서 벗어난 자유와 시간의 명령에서 벗어난 자유의지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성숙된 주체성은 곧 자유를 향한 출발점이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B 역시 직장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차별이 만연한 공간에서 주눅 든 채 수행하는 업무에는 소통이 없다. 자유는 소통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 인간은 자유롭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심성보 2022: 252).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베트남 이주여성들에게 직장동료들이 내보인 건 차별과 무시였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직장동료들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저개발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우월의식에 기반하여(하상복, 2012) 베트남 이주여성들을 차별적 태도로 대하였다.

신난희(2018)는 이주민이 주류사회에서 경험한 차별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하였다. 한국 사회는 이주민을 통치와 관리의 대상, 불완전하고 미숙한 대상,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불쌍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약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에 담긴 위선과 부조리를 가시화하고 저항하는 의미로서 이주민 스스로가 한국사회의 차별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실천 행위이기 때문이다(신난희, 2018: 198). 이주민의 이러한 실천적 행위는 차별 감수성을 재고할 뿐만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지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한 주체 의식이 발현된다. 전술한 다양한 현상들로 인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자영창업 공간에서 자주적인 주체로서 자유를 향유하고 있었다.

## 2.2. 몰입을 통한 개인의 성장

연구참여자들은 자영창업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다.

### 2.2.1. 일을 통해 성장하다

####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니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보람 있다고 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좋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이거는(미용업) 가겟세가 좀 싸게 하면은 하기 괜찮아요. (중략) 매일 문 열고 항상... 제가 베트남 안 가면 계속 문 열어요. 그래도 힘드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요. 화요일 날에 쉬어요 (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내가 왜 식당 하려고 했냐면, 그냥 음식 만드는 거 좋아했어요. 좀 많이 힘들어. 근데 생각했는데 그냥 좋아. 식당 많이 힘들어 언니(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연구참여자 A는 미용실의 정기 휴무일 외에는 쉬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친정 방문을 위해 베트남 출국 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날에는 미용실 영업을 한다. 연구참여자 A의 미용실은 월 임대료가 높다. 이러한 부담만 없다면 미용실은 더없이 하기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연구참여자 A의 ‘좋아하는 일’과 ‘성실성’은 좋은 콜라보를 이루어 창업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는 성격특성 Big 5 가운데 여성창업자의 창업만족도에 성실성이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는 이선협(2020: 9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연구참여자 B 역시 음식 만들기를 자신의 강점으로 인식하였다. 이모가 음식 만들 때 어깨너머로 본 것을 ‘그냥 생각’으로 재현하여 풀어냈다. 연구참여자 B는 식당 창업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 새로운 분야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하던 일을 발전시킨 경우다(류유선, 2021). 창업 업종 선택 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본국의 음식문화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선택한 업종이다.

식당 운영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음식 만들기, 서빙, 설거지, 장보기, 영업 후 청소하기 등 그 모든 과정을 연구참여자 B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그러나 그녀는 오롯이 혼자 감당하며 살아간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므로. 초국적 이주 후 창업을 위해 다시 가족과 떨어져 먼 도시로의 재이주를 한 연구참여자 B는 진정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주체적인 여성이었다.

###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자기 배려다**

자신의 일에 대하여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연구참여자 또한 있었다. ‘힘들어도 좋아하니까’를 넘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직업 마인드는 철학에 가까웠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좋아요. (연구자: 사장님 감각이 있어서 미용실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미용실 재미없어(웃음). 왜냐면 저는 재미있어야 해요. 네일하는 거는 힘들지만 좋아해야 해. 안 좋아하면 금방 지쳐 해. 근데 어차피 우리도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좋아하는 대로(살고 싶어요). 나는 지금 행복해요(웃음). 다음에 돈 많이 벌어도 계속할 거예요.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유튜브를 통해 재봉 기술을 배워 자녀의 옷을 만들거나, 발 관리 시 고객에게 필요한 무릎 덮개를 만들 정도로 연구참여자 E는 손재주가 좋았다. 연구자는 그러한 연구참여자 E가 비슷한 업종인 헤어미용도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녀는 미용실은 재미없다고 웃으며 대답하였다. 네일아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연구참여자 E에게 있었다. 네일미용사는



고객지향적인 감정을 표현하도록 교육받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김주연, 2014; 유수정 외, 2012). 연구참여자 E 역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에 힘들다고 표현했다. 또한 네일미용 종사자들은 낮은 급여, 시간 외 근무, 휴식시간 부족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는 이직을 야기하기도 한다(방효진, 2017). 그러나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을 비롯한 남편이 재혼상태다. 자녀들은 모두 각각의 이전 배우자와 지내고 있어서 현재 연구참여자 E는 부부 둘만 지내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행복에 집중하여 살기를 원했고, 현재의 삶을 행복하다고 고백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며, 그 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연구참여자 E는 매 순간 자신의 주체성을 발현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위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모두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그 일들을 통해 세상과 관계 맺으며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안팎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이때 푸코의 ‘이런 식으로 통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주체로서의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조명하는 중요한 문제의식이 된다(Foucault, Michel, 2015: 44-46). 우리 자신과 맺고 있는 윤리적 관계의 새로운 모델 중 하나가 고대인들의 ‘자기 배려’ 개념이다. 자기 배려는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삶의 방법이자 실천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은 곧 자기 배려다. 자기 삶의 근거를 결정하고 그것을 행위로 옮김으로써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주체로 여긴(심성보 외, 2023: 76) 위의 연구참여자들은 푸코의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 운영 중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영업을 통상적으로 이윤 창출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손님이 없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 어려움이 컸다. 주변 환경 역시 힘겹게 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 다녀 안 했는데 그 핸드폰, 핸드폰 공부했어요. 그거 일년에 한 번. 힘들어. 몰라서 여기 아는 동생 하나 있어요. (중략) 우리 식당 왔다 갔다 하는. 몰라서 “야 누나 도와줘”하고 말했어요(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근데 이 동네가 몇 군데 아줌마가 무서워. 주차하면은 손님 주차하잖아. 그럼 나한테 혼내는 거야. 저한테 와서는 “야! 여기는 내가 주인이지, 왜 손님 차를 대?” (연구참여자 바깥을 가리키며) 여기하고 저기. 와... 그 사람들 저한테 진짜 무섭게 해요. (손바닥을 치며)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더라. “나 돈 냈어. 나는 여기 돈 내는 사람이야. 얼마나 내는지 알아?” 이래요. (중략) ‘거주자 우선 주차?’ 참 좋아 이거. 너무 기분 좋아. 몰라서 몇 번 욕 먹었어요. 신고한다, 뭐 차를 가져 간다 이러는 거야. 진짜 배움이 좋아(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연구참여자 B와 E가 겪은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들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신분에서 비롯된 사회차별이다. 연구참여자 B의 경우처럼 식품업주가 위생교육을 하기 위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여 교육하기란 기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플 설치와 회원가입 단계부터 교육의 이수 완료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안내받는다면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동료 한국인 자영업자에게 부탁하여 어플 설치와 교육 이수가 가능했다.

연구참여자 E의 경우 가게 앞의 주차 공간이 낮시간 동안 이용가능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폭언을 들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은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의 배움에 기뻐했다. 또한 자신을 일방적으로 맹비난했던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제기할 근거를 갖춤에 안도하였다. 한편으로는 누구나 다 알법한 거주자우선주차 시행 내용을 왜 자신에게 왜곡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신분상 결혼이주여성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그들에게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배움’과 ‘앎’을 통해 당한 어려움을 대처하며 극복해 나갔다. 이렇듯 그들은 일을 통해 삶 속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2.2.2. 역량 발휘를 통한 삶의 자신감이 생기다

### *미용 전문가로서 코칭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잠재되어있는 자신의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이러한 역량들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정체감 향상에 효과적(김효순, 2016)이며, 결국 연구참여자들이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고데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머리를 펴면서) 고데기 사용하면 머릿결 많이 상해요. 집에서 영양도 많이 발라야 되고, 헤어팩도 많이 써야 되고. 헤어팩 좋은 거 써야 돼요. 탈색 머리라서. 헤어팩은 샴푸 끝나고 린스처럼(사용해요). 영양제품은 그거 핑크색, 머리 물기 닦고 그다음에 그거 발라주고 그거 말리고 나서 검은색 그 오일 발라줘요. 머리 말릴 때. 그러면 많이 커버 돼요. 로션처럼 사용해요. 찌끗찌끗하지 않아요(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작년 5월인가 4월에 내가 투잡했었거든요. 화장품 팔았어요(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연구참여자 A의 1차 면담 당시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푸른빛이 도는 투톤으로 탈색되어 있었다. 연구자가 요청한 헤어클리닉 시술 중 스팀기를 썬위 놓고 몇 분간 유지하는 과정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A는 이때 고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였다. 탈색된 모발에 열을 가하는 고데기 제품을 자주 사용하면 모발은 더욱 손상될 것 같아 물었다. 그녀는 당연하단 듯 대답했다. 그러나 좋은 헤어제품을 사용하면 손상된 모발이 복구된다고 헤어미용사로서 전문적 견해와 함께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신의 미용실에서 사용



및 판매하는 제품을 직접 보여주며 사용하는 단계와 방법을 알려주었다. 연구자 역시 손상된 모발로 인해 당일 헤어클리닉을 하였던 터라 연구참여자 A가 제시해 준 제품들을 그곳에서 구매하였다.

2차 면담 때 역시 연구자는 헤어클리닉을 요청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거울 앞에 놓인 명함이 지난번과는 다른 디자인이었다. 연구참여자 A는 미용실에서 화장품 판매를 동시에 했던, 즉 투잡을 위해 명함을 변경 제작하였다고 전했다. 고객에게 헤어관리 및 올바른 제품용법을 설명해 주고, 자신의 샵에서 화장품 판매로까지 영역을 확대한 연구참여자 A는 전문성과 개방성이라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연구참여자 B는 식당 내부의 정리 정돈과 환경미화를 함으로써 식당에 대한 애정을 더욱 나타내 보였다. 그녀의 이런 다양한 노력은 영업이 더욱 잘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방문 때까지만 해도 음식 픽업대 너머 주방이 훤히 드러나 보였는데, 그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었다. 즉 픽업대 좌우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픽업대 부분만 조그맣게 커튼이 뚫려 있었다. 식당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이 느껴졌다(연구자 노트).

연구자는 갈 때마다 장사가 잘 되는지 묻는다. 그때마다 그녀는 그냥 약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많이 잘 된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장사가 꽤 잘된다는 의미이다. 그녀가 식당 운영하는 걸 보면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첫째, 음식이 맛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음식 장사는 맛이 일 순위다. 둘째, 친절하다. 연구참여자 B는 손님들에게 늘 친절하다. 셋째, 눈치가 매우 빨라 손님의 분위기를 잘 파악한다. 이는 영업 및 매출과 직결된다. 넷째, 성실함이 대단하다. 연구참여자 B는 성실성의 끝판왕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다(연구자 노트).

연구참여자 B의 추가 면담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주방의 커튼이었다. 1, 2차 방문 때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식당 환경미화에 신경 쓴 것으로 보였다. 주방이 보이면 위생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수 있지만 산만함 또한 느껴진다. 연구참여자 B는 전자를 기본으로 하되 후자를 조치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졌다. 식당 내부는 이전보다 정돈되고 깔끔한 이미지가 되었다. 아래 [그림 V-3]은 음식 픽업대의 이해를 돕고자 예시된 것이다. [그림 V-4]는 연구참여자 B의 주방에 설치된 커튼을 활용한 음식 픽업대 모습이다.



[그림 V-3] 음식 픽업대 예시



[그림 V-4] 연구참여자 B 식당의  
음식 픽업대

커튼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연구참여자 B의 모습과 여기저기에 놓인 다양한 집기류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림 V-4]처럼 커튼을 설치함으로써 맛뿐만 아니라 내부 환경미화에도 자신의 역량을 나타냈다.

우리 무역회사에서 대만 파인애플, 애플망고 수입해요. 그래서 마트도 들어가고 작년에 우리 수입한 과일 경기도 00까지도 가고 그랬어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매년 6월, 7월 에 그거 대만 애플망고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울 00호 텔에 가서 홍보 행사하고 왔어요. 저 혼자서 아니고 대만 거래처에서 직원들 오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랑 같이 홍보 행사했어요(연구참여자 C, 2차 면담).





연구참여자 C는 무역회사를 통해 대만 과일 수입을 더욱 탄탄하게 확장해 갔다. 사업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었다는 연구참여자 C는 대만어, 한국어, 영어의 언어를 매개로 자신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며 주체성을 발휘하였다.

### 3. 상호문화소통

상호문화소통은 상호문화성을 바탕으로 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문화적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의 신체·물리적 접촉과 교류를 전제로 한 상호교환과 이해이다. 따라서 상호소통은 단순한 정보 및 지식 전달 수준을 넘어선 공감과 포용 그리고 관용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비판적 의식은 상호소통에 있어 중요하다(김영순·김도경, 2022: 10). 연구참여자들의 상호문화소통은 다음 <표 V-4>과 같다.

<표 V-4> 연구참여자들의 상호문화소통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냥 쌀국수 먹어요 언니</li> <li>네일 안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 좀 그렇긴 하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님의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과의 상호작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나라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국가 외국인들과 소통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먼저 온 이주자로서 나중 온 이주자에게 도움의 주체 되기</li> <li>고향의 맛을 전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향 사람들에게 익숙함을 주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린 공동체로서의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들과 연대를 희망하다</li> </ul>	

### 3.1. 고객과의 상호작용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면담과 함께 고객 서비스를 함께 받았다.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하는 태도는 고객에게 대하는 태도 및 자세와 크게 차이 없음을 인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고객)와의 상호작용 가운데 무엇보다 고객의 취향을 묻고, 이해해 주는 타자지향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 3.1.1. 손님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다

##### *그냥 쌀국수 먹어요 언니*

연구참여자 B는 베트남 향채에 대해 매우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연구자는 향채 특유의 향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 채소 여기 먹고 싶으면 넣는데 안 먹고 싶어 안 넣어 해도 돼(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언니 고수 안 먹어. 오늘 고수 다 뺐어요. 여기 월남쌈에도 고수 다 뺐어요. 다. 그 사람 여기 고수 먹고, 있어야 돼. 엄청 맛있대. 고수 안 먹어서 그냥 그냥 안 맛있어(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샤브샤브로 주문하려 하니 “언니 베트남 야채 잘 못 먹잖아”하며 “그냥 쌀국수 먹어요”그런다. 이 사장님은 “그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한다. 그래도 샤브샤브를 시켰다(연구자 노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B의 식당에 처음 방문했을 시 고수를 비롯한 베트남 향채를 먹지 못했다. 취향껏 더 넣어 먹으라며 접시에 따로 내온 다른 향채 또한 그대로 남겼다. 2차 방문 때 연구참여자 B는 연구자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주며 고수를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1차 방문 때 연구자가 베트남 향채를 먹지 못한 것을 기억한 것이다. 고수 좋아하는 손님은 음식에 고수를



꼭 넣어야 하며, 넣지 않으면 제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B 역시 고수 예찬론자였다. 그런데도 고수를 먹지 않았던 연구자를 기억하고 취향을 존중해 주었다. 추가 면담 시 연구자는 다양한 해물과 채소가 들어간 샤브샤브를 주문했다. 그러자 연구참여자 B는 연구자가 향채를 못 먹으니 샤브샤브 대신 쌀국수를 먹으라며 메뉴 주문에 대해 회유하였다.

당일 연구자는 베트남 해산물과 베트남 향채가 풍성하게 들어간 샤브샤브를 맛있게 먹음으로써 연구참여자 B가 보여준 타자성과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 **네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 좀 그렇긴 하죠**

기분전환 동기는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 전환을 위해 네일관리를 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여성들은 네일 관리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미리·장창곡, 2012). 연구참여자 E는 이러한 기분전환 동기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네일은 하나하나씩 다 하는 게 예뻐요. (연구자: 다 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보기에) 그렇죠.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거 하면은 좀 이제... 그런데 여름도 되고 하는 것도 나아요(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연구참여자 E는 네일숍 홍보를 위한 이유도 있지만 스스로가 네일아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의 손톱은 늘 화려하게 가꿔져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손톱만 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리받는 것이 균형적이고 예뻐 보인다고 모든 손톱에 하기를 추천했다. 그러나 평소 네일 관리를 하지 않은 연구자가 부담스러워하자 그 역시도 존중해 주는 타자성을 발휘하였다. 한편 자신의 손이 예쁘지 않아 네일미용을 시작했다는 연구참여자 E는 네일 관리를 함으로써 자신감 상승 및 자아 표출을 할 수 있었다(하주희·태동숙, 2023).

연구참여자들은 고객에게 좋은 것을 제안하되 고객의 취향을 먼저 묻고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들도 좋아할 것’이라는 아집도 없었다. 타자지향성을 실천하는 현상이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무엇이라



도 강요하지 않고 취향을 존중해 주는 연구참여자들의 모습에서 타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타지향성을 지닌 윤리적 주체로서 정서적 배려와 긍정적인 자기관계를 형성하며 타자와 소통하고 있었다(정지현·오세경, 2016).

### 3.2. 열린 공동체로서의 역할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자기 변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혁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즉 자아의 충실과 공동체 참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뜻한다. 공동체 참여 없는 자아 충실은 자칫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고, 자아 충실이 없는 공동체 참여는 자아 상실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한다(심성보, 2022: 569). 이렇듯 개인의 변혁과 공동체의 참된 변혁은 결국 인간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세계 변혁을 꿈꾸는 길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의 창업을 통한 작은 변혁의 몸짓은 그들이 연계해 있는 공동체에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도움의 주체가 되어 하나의 작은 세계 변혁을 이뤄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었다.

#### 3.2.1. 타 국가 외국인들과 소통하다

##### *다양한 나라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운영하는 자영창업체에는 이주여성들의 출신국을 비롯한 한국 고객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국가의 고객들이 찾아왔다. 연구참여자들은 타 국가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공간 형성의 주체자가 되었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빛장공동체(gated community)’<sup>16)</sup>(Sennett, Richard, 2019: 11)가 아닌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opened community)’가 되어야 할 것이다.

16) 주로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 단지로 출입구가 있고 차량과 보행자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다.



여기 샵에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미얀마, 캄보디아도 있어요. 베트남 사람도 많고. 필리핀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한국말로 사용하니까 진짜 웃겨. 우리 같은 외국인이잖아요. 같은 나라는 다 베트남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이런 거 다 모이니까 한국말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재밌어요. 대화도 서로 안 통해요. 저도 발음 안 좋고. 근데 서로 얘기하는 것 들으면 재밌어요. 서로 말하는 거는 그냥 웃기는 거지. 이해가 안 되잖아. 한국어로 쓰니까 지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떻게 말하는지 진짜 몰라요. 한국 사람한테는 우리는 다 똑같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이해해 주고(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우리 식당에는 대만이나 한국 사람들 말고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와요. 주로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사람들 자주 와요. 베트남 사람은 아주 가끔 와요. 언어는 영어나 한국어로 소통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어서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해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E의 네일숍은 다양한 출신 국가의 사람들이 고객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여 작은 ‘국제시장’ 이나 다름없는 이곳의 공용어는 한국어다. 개별성을 가진 이들이 한국어를 통한 ‘공유하는 경험’ 은 보편성이 아닌 더욱 특수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특정 공간에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 사이의 통용되는 언어는 거주국의 언어이다. 연구참여자 E의 네일숍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통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다. 주인과 고객 모두 외국인이다. 모국어가 서로 다른 외국인들이 거주국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시 대화의 맥락 파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서로가 외국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E의 말대로 ‘재미있고’, ‘신기해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능숙한 언어를 통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들만의 이해되고 합의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오랫동안 함께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양한 관점, 경험, 해석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이것이 표현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때 비로소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김현미, 2014).



연구참여자 C의 식당은 H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E의 네일숍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국적의 고객들이 찾아온다. 주로 형성된 고객층의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이다. 베트남 손님들도 있지만 소수다. 이 분포는 연구참여자 E의 샵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C와 E 샵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점은 결혼이주여성인 운영하는 자영창업체에는 주류사회 시민보다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주된 고객층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이들이 운영하는 자영창업체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고객 형성층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 E의 샵이 있는 경기도 부천은 중국동포 및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인 많은 다문화 도시이다. 연구참여자 C의 식당이 있는 서울 H대 부근은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인 상대적으로 적어 이 둘 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보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E나 연구참여자 C는 주류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더욱 확장된 관계를 맺음으로써 타 국가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세계 내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 3.2.2. 고향 사람들에게 익숙함을 주다

#### *먼저 온 이주자로서 나중 온 이주자에게 도움의 주체 되기*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의 자영업체 공간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유대를 강화하고 있었다. 먼저 온 이주자로서 나중에 온 고향 이주민들에게 이모저모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

식당 쪽문으로 체구가 자그마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다. 얼핏 보기에 한국 사람 같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베트남 출신 할머니시다. 할머니는 연구참여자 B에게 불일이 있는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신다. 할머니의 휴대폰을 본 연구참여자 B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어딘가에 전화한다.



연구참여자 B: 선생님, 애들 언제 끝나요?

상대방: 애들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요

연구참여자 B: 그럼 몇 시에 끝나요?

상대방: 앞으로 한 시간 후에 끝나요.

연구참여자 B: 그럼 3시에 끝나요?

상대방: 네. 3시에 끝나요.

할머니는 아마 손주들을 봐주러 베트남에서 오신 듯하다. 한국어 소통이 안 되어 한국어 소통이 잘되는 연구참여자 B에게 통화 부탁을 하러 오신 것 같다. 아마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이신 듯하다. 연구참여자 B의 식당은 이미 베트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공간에 사람의 마음이 오고 갔다.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안타까워하고 있을 할머니의 마음을 사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테다. 과거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을 테니. 장소에서 사람의 마음이 오고 가고, 추억이 소환되고, 고마움이 묻어났으며 결국 따스함이 전해졌다. 밖은 호우주의보로 세찬 빗줄기가 거리를 가득 적시고 있었지만, 식당 안에서는 따스함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공간은, 이 공간에서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들에게 따스함을 전해주는 허브가 된다(연구자 노트).

그녀는 커피로 베트남의 맛을 알리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편안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용객이 없어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주말은 고향 출신들과 친목의 시간을 가지기 때문이다. 고향 사람들은 하 씨의 가게가 편안해하며 좋아한다고 하였다(문서자료).

연구참여자 B는 한국 거주기간에 비해 한국어 능숙도가 낮은 편이다.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어 교사나 센터 등을 통해 제대로 된 한국어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은 두고두고 연구참여자 B 마음의 짐이 되었다. 그녀는 면담 3회 동안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서 잘 못 한다’ 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본국의 할머니를 위해 기꺼이 통화까지 해주는 모습은 모국어 화자보다 더욱 빛났다.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한 고향 사람에게 연구참여자 B는 통역관과도 같은 존재다. 식당이 주는 개방성 이미지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 B의 식당을 찾은 베트남 할머니는 한국어 의사소통 부재로 한국인과의 접촉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주여성의 네트워크에 가입 및 참여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때 본국 출신의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은 할머니에게 119나 다름없었다.

초국가적 이주 현상에 따라 이민자들과 본국 가족들과의 가족 정체성 개념의 ‘초국가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이라는 개념 역시 생겨났다. ‘초국가적 가족’은 가족구성원 중 일부나 대부분이 국경을 넘어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가족공동체로서의 유대감과 가족애를 느끼고 가족 공통의 복지를 위해 배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Bryceson & Vuorela, 2002). 이러한 현상은 국제 이동으로 지리적,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내게 되면 가족 간의 유대나 상호 교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민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들과 소통하며 연계를 유지하는 데서 비롯된다(Nedelcu & Wyss, 2020; Souralova, 2020). 초국가적 연계의 한 형태로 이민자의 부모가 자녀의 정착지로 이동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현상을 ‘초국가적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transnational grandparenting)’이라고 한다(Baldassar & Merla, 2014; Plaza, 2000).

연구참여자 B의 식당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초국가적 조부모처럼 현행법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을 위해 본국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단기 비자를 발급해준다. 한번 초청할 때 1년짜리 비자로 오는데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취업은 제한되어 있다(김영순, 2020: 288). 베트남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하고 부모-자녀 간에 돌봄지원에 대한 상호 기대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 본국 가족과 함께 지낼 확률이 높다는 송유진 외(2021)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이러한 결과로 본국에서 초청된 가족들은 초청한 다문화가정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기존에 갖던 사회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육수현 외, 2020). 연구참여자 B의 식당은 이렇게 ‘초국가적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위해 한국에 온, 한국어 의사소통이 부재한 고향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전해 받는,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곳이었다.





### 고향의 맛을 전하다

연구참여자 C는 한국에 없는 대만 음식을 깨하고 이를 창업에 활용하였다. 한국 방문 중인 대만인 또는 대만 이주민들에게 고향의 맛을 선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제가 (대만)샤브샤브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맛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리워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어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한국 음식점에서도 샤브샤브를 먹을 수 있는 곳은 많았으나 연구참여자 C의 입에 맞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타국에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인하여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환경 변화가 있을 때 문화 적응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대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스트레스 행동을 유발한다. 즉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문화, 입에 맞지 않은 음식, 언어소통의 문제, 사회적 고립감, 현지 생활에 대한 불안감 등은 이주자로 하여금 대처할 수 있는 높은 역량을 필요로 한다(황누리, 2011).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한국에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틈새 마케팅에 활용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대만 1인 샤브샤브 식당은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고 찾는 이들에게 따뜻함을 안겨주는 장소가 되었다.

투른발트(Thurnwald, 1932)는 ‘새로운 삶의 조건에 적응하는 과정’의 의미로 문화변용을 정의하였다. 문화변용(acculturation)에 대한 개념은 문화접촉으로 발생하는 현상과 정착 과정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 개념이다(김영순, 2020: 137). 연구참여자 C는 이주사회에서 모국의 문화와 유대 깊게 연대함으로써 모국의 문화를 알리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 C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먼저 온 이민자로서 나중에 온 고향의 이민자들에게 이주지의 언어로, 모국의 음식으로 도움을 주는 주체들로 확인되었다. 그것은 실질적 도움이었지만 마음이 교감 되는 실천이었다.

### 3.2.3. 지역 주민들과 연대를 희망하다

#### *지역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자영업체를 통하여 주류사회와 소통하며 나아가 연대하는 것을 원했다.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와 코너에 있는 헤어샵으로 향했다. 정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내부는 잘 보이지 않았다. 들어서니 여자 손님이 한 명 있었고 커트 중이었다. (중략) 헤어클리닉을 하는 동안 다행히 다른 손님이 오지 않아 면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무리 무렵 중년의 남자 손님 한 명이 들어와 익숙한 몸놀림으로 걸옷을 벗어 소파에 올려놓고 미용 의자에 앉았다. 예약 손님으로 보였다(연구자 노트).

하 씨는 현재 일반음식점 사업자다. 그러나 카페가 자리잡히면 베트남 쌀국수도 만들고, 브런치 메뉴도 개발해 내놓으며 원주민들에게 베트남을 소개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하였다(문서자료).

연구참여자 A에게 처음 방문했을 시 한국인 여성 한 명이 미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 커트하는 내내 연구참여자 A와 여성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다. 여성은 커트가 끝나고 가면서도 연구참여자 A에게 밝게 인사하며 문을 나쳤다. 남편의 지인이자던 여성은 연구참여자 A 미용실의 단골손님이었다. 한편 연구자의 헤어클리닉 시술이 끝날 무렵 뒷문을 이용하여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다. 익숙한 몸짓이 그 역시 단골손님으로 추측되었다. 연구참여자 A의 미용실은 단골손님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곳이었다. 오피스텔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미용실은 미용실 주위로 커피숍, 분식집 등 다양한 샵들이 이웃해 있었다. 백화점과 같은 one-stop shopping은 아닐지라도 상가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연구참여자 A의 미용실을 찾는 지역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의 미용실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더욱 돈독해지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연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D 역시 자신의 카페가 고향 사람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방으로 이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선주민인 지역주민들에게 베트남 문화를 알림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기를 꿈꾼다. 공동체적인 마인드와 지역사회를 위한 작지만 큰 꿈을 기대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사회성은 소박하고 솔직한 연대다(Sennett, Richard, 2019).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며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은 사회적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능후·선남이, 2010; 박이분·계봉오, 2018; 설동훈·윤홍식, 2008). 다양한 관계를 통해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를 받고 사회적 연결망을 촘촘하게 형성하기 때문이다(박은미·이곤수, 2009; 임석희, 2009). 사회적 연결망을 만드는 데 있어 자신의 자영업체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응을 넘어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민자사회에서 성공한 자영업은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Portes & Zhou, 1996). 따라서 지역사회와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업체를 통한 연대는 협동과 소통을 위해 필요한 행위다.

연대는 지구 생태계의 위기, 경쟁과 불평등의 문제, 난민 그리고 젠더 갈등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심정보, 2022: 150). 사회적 연대를 바라는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즉 다양한 차별과 배제 속에서 자영창업이라는 주체적인 행위를 이뤄낸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부여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정체성 형성

인간의 자아는 발달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경험 및 활동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자아는 사회화의 전체 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러한 결과로 개인 안에서

발달하여 간다(Mead, 1934). 급속히 변화하고 다원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은 복수의 정체성을 갖게 되며(김송렬, 2020: 23) 결혼이주여성도 이러한 복수의 정체성에 더욱 노출된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하며 답을 추구한다. 정체성 형성 과정은 인간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는(남미자, 2015) 사회적 행위이다(Mead, 1934).

연구참여자들은 자영창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동적인 정체성 형성 사례들이 포착되었다. 즉 자신의 모국 문화와 민족적 유대감을 포기하지 않고 서도 주류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상위범주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과 ‘언어문화로서 정체성’ 이 설정되었다. 그에 따른 하위범주로는 각각 ‘자녀에게 더욱 집중하다’, ‘남편과의 갈등극복을 위한 모색’ 과 ‘이름으로 나를 알리다’, ‘모국어는 고향이다’ 로 도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V-5>에 제시되어 있다.

<표 V-5> 연구참여자들의 정체성 형성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돌봄을 위해</li> <li>• 이혼 후 따로 지내는 딸을 위해</li> </ul>	자녀에게 더욱 집중하다	여성으로서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li> <li>• 스타일 좀 바꾸면 예쁘겠어</li> </ul>	남편과의 갈등극복을 위한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함에 나의 이름을 새기다</li> <li>•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편한 모국어</li> </ul>	이름으로 나를 알리다	언어문화로서 정체성
	모국어는 고향이다	

#### 4.1. 여성으로서 정체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여건 혹은 사회적 지위보다 가정에서 더욱 주체적인 모습으로 형성해 가는 모습에 포커스를 맞췄다. 현실과 타협하여 한 걸음 물러난 듯 보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내면에 목소리를 기울임으로써 더욱 단단하게 정체성 협상 및 형성을 할 수 있었다.

#### 4.1.1. 자녀에게 더욱 집중하다

모성애는 자녀에게 살려고 하는 소망뿐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을 천천히 길러주는 위대한 힘이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이며 한쪽은 전적으로 도움을 요구하고 또 한쪽은 도움을 준다. 모성애를 최고의 사랑, 모든 감정적 유대 중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겨 온 것은 이러한 이타적이고 비이기적인 성격 때문이다. 그러나 모성애는 연약한 갓난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성장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진정한 실현이 있다. 모성애의 참된 본질은 자녀의 성장을 돌보아 주는 것이며,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분리되기를 바라는 것이다(Fromm, E, 1995).

##### *자녀 돌봄을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자녀에게 더욱 신경 쓰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밖에서 일할 때의 강인한 주체성과 엄마로서 자녀에게 보이는 탄력적인 주체성은 그들의 삶이 일반적이면서도 다층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퇴근은 7시에 해요. 남편이랑 아들 밥 차려줘야 해서 좀 일찍 퇴근해요(웃음)(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아침에 00이(연구참여자의 딸) 학교 보내고 무역회사 갔다가 여기(식당) 와요. 오빠(남편)랑 같이 장사하다가 3시에 퇴근해요. 00이 학교에서 와요. 오늘은 00이 좀 늦게 와요. 그래서 좀 늦게 퇴근해요(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A는 중학생 아들의 귀가 시간에 맞춰 7시에 퇴근하였다. 남편을 비롯한 아들의 저녁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서다. 연구참여자 A의 이른 퇴근 시간은 미용분야의 직업 특성을 급여 대비 과도한 근무 시간으로 밝힌 홍수남(2019)의 연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물론 자영업자라는 이유가 자유로



우므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 돌봄에 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초등학교 재학 당시에는 학부모 상담을 빠지지 않고 다녔다. 아들의 학교생활 및 정보교환을 위해 당시에 만났던 한국 학부모 두 명과도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최승은(2019)에서 밝힌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들의 학력과 상관없이 자녀교육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김영순 외(2023)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 실천의 기준이 ‘좋은 엄마’가 되는 것에 설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참여자 A는 ‘좋은 엄마’의 기준을 자녀의 귀가 시간에 맞춰 퇴근하고 저녁을 해주고, 자녀교육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모성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C의 자영 창업은 자녀 돌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C는 무역회사와 식당을 동시에 운영하며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초등학생 딸의 등·하교는 직접 챙긴다. 특히 자녀의 하교 시에는 연구참여자 C 역시 퇴근하여 자녀 돌봄에 이바지하는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되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은 돌봄 자원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한국 선주민 여성들보다 겪는 어려움이 크다. 왜냐하면 친족 관계망을 비롯한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모두 본국에 두고 한국으로 이주한 특성으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돌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지연·그레이스 정, 2019).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임금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당사자이므로 연구참여자 자신을 돌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냥 카페만(하면)은 괜찮은데 종일 카페 아침에 일찍 와서 애들 밥 챙기니까 제가 또 집에서 제가 집안일 다 하니까(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장사하는 것도 참...어디도 못 가고 뭐 시켜 먹게 하고 묶여있는 거잖아. 카페에. 정말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이들 못 챙겨주니까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종일 그 스트레스 받고 뭐 힘든데 집에 가. (중략) 스스로 치우지 않아요. 다른 집이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딸내미 너무 지저분해. 방에 들어가면 그냥 참을 만큼 참으려고 하는데, 근데 자기 또 스스로(치울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받으니까 보면서 막 말 안 하면



그렇고 말하면 좀…화를 내니까 내가 계속 그냥 한두 번은 괜찮잖아요. 계속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그래도 애들도 안 좋고 저도 안 좋고.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딸내미 (사춘기)거의 끝나가잖아요. 지금 아들은 시작해요. 아들은 예전에 좀 깔끔한 스타일이예요. 착하고. 근데 누나 따라 하는지 아니면 자기 또 그 나이 돼서 그런지 좀…(연구참여자 D, 1차 면담).

성공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전해 듣고자 찾아간 사람에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는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낮은 목소리로 씬 없이 얘기한 연구참여자 D는 종종 눈물까지 글썽였다. (중략)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처음 만난 연구자에게 가감 없이 풀어낸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듣고 그냥 위로하는 척할까 봐 상담이라도 받아보려고 했다는 연구참여자 D의 말이 가슴 아팠다(연구자 노트).

연구참여자 D는 중학교 2, 3학년 연년생 두 자녀를 키우면서 커피숍 운영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사춘기인 두 자녀의 양육과 자영업 사이에서 갈등을 하던 연구참여자 A는 지인에게 카페를 잠시 맡겨놓고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없이 혼자 오롯이 카페 일을 감당했던 연구참여자 D는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일하고 퇴근하여 가사일 까지 감당하느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바쁜 자신 때문에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자녀들에게 한없이 미안했다. 게다가 자녀들의 사춘기 증상이 심해져 연구참여자 D는 조금씩 우울감이 생겼다. 남편은 자녀 양육에 신경 쓰지 않는 편이며 주된 양육을 연구참여자 D 혼자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부장적 한국사회 문화와 관련이 있다. 즉 자녀 양육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깊이 개입하는 이른바 역할 비중에 따른 것으로, 결국 외국인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양육환경으로 귀결된다(임현숙, 2017). 남편의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참여자 D는 자영업 운영과 가정 및 자녀 양육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D는 모성이 강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모성은 최대희(2015)의 주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중국이나 필리핀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사회적응도가 낮고 양육 스트레스 또한 높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은 베트남 이주여성의 낮은 학력, 그로 인한 한국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어린 나이,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결혼 동기를 들 수 있다. 대학교 학력을 지녔고, 사촌오빠의 소개로 남편을 만난 연구참여자 D로서는 양육방식에 대한 이해도와 사회적응도가 높았다. 따라서 자녀의 초등학교 시절 내내 그녀는 학교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고, 상호문화강사로 활동하며 인권교육을 하였다. 자녀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D였기에 커피숍 운영과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해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자녀들의 사춘기로 인한 행동 변화는 연구참여자 D가 엄마의 역할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교육사상가이자 실천가인 야누시 코르차크(Janusz Korczak, 1878-1942)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가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라고 하였다(Korczak, 2000: 14). 그는 프레이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희망을 주려는 비슷한 목표가 있었으며, 교육의 본질인 변증법을 치열하게 실천하였다. 이러한 코르차크는 모든 아이를 모든 경우에 전적으로 용서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아이는 성장해 가는 유기체로서 “어린이는 없고 다만 사람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심성보, 2022: 379). 또한 아이를 위한 기본법으로 ‘자유대헌장’을 주창하였는데 몇 가지의 기본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아이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아이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아이는 비밀을 가질 권리가 있다’, ‘아이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흠치는 행동을 해볼 권리가 있다’, ‘아이는 자신의 슬픔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등이다(심성보, 2022: 380-381). 위의 제시된 기본권은 사춘기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코르차크의 아이를 위한 기본권을 몰랐어도 연구참여자 D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커피숍을 잠시 내려놓는 모성을 발휘하였다. 자녀들은 사춘기를, 남편은 갱년기를 보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연구참여자 D는 그들의 공통분모로, 교집합으로 위치하면서 중심 잡기에 노력하고 있다.





### 이혼 후 떨어져 지내는 딸을 위해

연구참여자 E는 전남편과 함께 사는 딸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딸을 만나러 멀리 지방까지 다녀온다. 이번 여름휴가 때도 딸에게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다. 사춘기가 시작되어 변화되는 딸아이 모습에 상처 입은 적도 있지만 연구참여자 E는 딸에 대한 애뜻함으로 모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딸 한 명 있어요. 지금 12살(이에요). 아빠랑 부산에서 둘이 살아요. 가까이에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요. 그래서 부산 자주 가요. 만약 못 만나게 하면 그냥 애 다시 뺏는 거죠(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나는 한국 먼저 왔는데 애기보다 한국말 더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딸은 항상 그랬어. 엄마, 엄마 나보다 한국에 먼저 왔어요. 근데 왜 한국어 모르냐고.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내가, 내가 문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딸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말은 잘하죠.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니깐) 근데 좀 맞는 생각도 드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딸보다 한국말 더 못하는지 그 말 하니까 너무 섭섭하게 느꼈어요. (중략) 딸한테는 베트남말 안 가르쳤어. 그때는 많이 걱정했지. 그때는 모르니까. 아! 내가 한국어도 모르는데 애한테 그 베트남어 얘기하면 모를까 봐. 그러면 걱정되지. 그래도 그때는 (한국어) 발음 잘 됐죠. 근데 엄마 가르쳐주면 그때는 우리 달라(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연구참여자 E는 이혼 후 따로 지내는 딸과 자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딸은 자신보다 한국을 먼저 알게 된 엄마가 이제는 자신보다 한국말을 못하냐고 의아해한다. 딸은 한국어가 모국어지만 연구참여자 E는 그렇지 않은 차이에서 오는 현상임에도 연구참여자 E는 그조차도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E가 딸에게 이중언어교육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녀의 한국어 습득에 방해될 것을 염려해서다. 이는 이중언어에 대한 인식 부족(남정연·황해영, 2023)에서 비롯되었다.



사춘기로 인해 말과 행동이 이전과 달라진 딸의 모습에 놀란 연구참여자 E는 딸에게 부탁하였다.

OO에 있는 우리 (사춘)언니 딸은 사춘기 심해서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고 제가 진짜 많이 무서웠어. 그거 보고. 우리 딸이 나한테 그러면 나 진짜 상처 받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한테 "OO아, 엄마한테 그러지 마라. 엄마는 외국인지만 나는 너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래서 딸이 "엄마 나 엄마 약속할게. 엄마한테는 큰 소리 안 할게." 그랬어요. 지금은 진짜 그때부터 우리 딸은 (내가 한국말 서툰 거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아빠한테는 엄청 성질 내.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엄청 성질내요. 근데 엄마한테는 목소리 딱 예뻐. 나한테 안 그러니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할머니랑은 같이 안 살고 가까운 데 살아요(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친척 언니의 딸이 자신의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본 연구참여자 E는 충격을 받았다. 하여 딸에게 “내가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네 엄마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진심 어린 부탁을 하였다. 두려움과 걱정, 불안함 가운데서 딸에게 사랑과 열정으로 대한 연구참여자 E는 우리에게 참된 인간성(Darder & Torres, 2003: 38)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이때부터 딸은 엄마에게 한국어가 서툰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사춘기가 심해진 이후에도 연구참여자 E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의식화 활동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 간에 평화와 화해의 상호 이해적인 창조과정이다. 한국어가 서툰다고 편견받고,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받지 못한 채 오히려 억압당하는 연구참여자 E는 딸에게 진심을 알리는 대화가 필요했다. 의식화와 사랑의 매개자는 대화이기 때문이다(심정보, 2022: 608). 딸에게 화내고 나무라지 않는 대신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해를 구한 현명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겸손이고 딸에 대한 사랑이다.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따르는 겸손은 자기를 존중함과 자신감, 용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Freire, 2005: 72). 또한 자기 자신을 존중함으로 올바른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자신에 대한 사랑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 B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사랑이 있었기에 세상(딸)도 사랑할 수 있었다. 이렇듯 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은 변증법적으로 공존해야 한다(심정보, 2022: 613).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애정과 모성이 대부분의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 어머니의 자녀교육 경험을 연구한 최승은(2019)의 결과와 부합하였다. 특히 엄마 얼굴이 생각 안 날 정도로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연구참여자 B는 이혼 후 자신과 떨어져 살게 된 딸에게 자주 찾아간다. 엄마 없이 자란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딸에게는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다. 그래서 만약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다시 ‘뺏어 오겠다’ 라는 각오까지 한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자영창업을 통해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자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자녀와의 관계와 모성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 4.1.2. 남편과의 갈등극복을 위한 모색

#####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연구참여자 D는 연년생 사춘기 자녀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자녀 문제를 오로지 혼자 떠맡은 연구참여자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는 부부간의 큰 싸움이 되고 말았다.

저 잔소리 많아요. 소리도 질러요. 저도 노력했는데, 그 조절도 못하고. 신랑한테 제가 이번에 또 얘기했죠. “당신이 애들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봐. 어떻게 말이 나오는지. 그냥 나 맨날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그 잔소리 밖에 나온 것 밖에 없어. 나도 알아. 노력하고 있는데…”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아이들이 내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는 거) 나도 알고 있지만, 그거 그냥 본능적이고(엄마의 본능으로 잔소리가) 그냥 나온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요즘은 아들도 얘기 잘 안 하니까 다른 거 포기하고 좀 일찍 들어와서 애들한테 신경 써달라고. 근데 알겠다고 했는데, 와서 또 텔레비전만 보고(연구참여자 D, 1차 면담).



사업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니면 그 나이에 돼서 그런지 약간 예민해졌어요. 무슨 말만 하면 약간 삐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고집 쓰고 싸우면 제가 무조건 이기는데, 이번에 진짜 그냥 완전히... 제가 얼굴 보면 보통 여자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웃음) 근데 다 내려놓고 일단 그냥 참고 다 포기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눈물 글썽임). (연구참여자 D, 1차 면담).

연구참여자 D는 1차 면담 내내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다. 사춘기가 심해진 자녀돌봄을 위해 커피숍 운영까지 잠시 내려놓은 상태였지만 자녀와 많은 충돌이 생겼다. 자녀와의 대화 시도를 위해 남편의 조기 퇴근을 부탁했지만, 남편은 스트레스 해소 명목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연구참여자는 잔소리 많고 고집 센 자신에 대해 ‘보통이 아닌 여자’ 라고 표현했다. 하여 남편과 부부싸움 할 때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전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후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남편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므로 남편에게 가장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남편과의 상호작용은 이들에게 매우 유의미하며 그만큼 중요하다(이은주·전미경, 2013). 따라서 남편의 이혼 이야기는 연구참여자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다. 친구들에게 이러한 내막을 말하면 걸로만 위로해 주는 척할 것 같아 상담을 고려하기까지 했다.

연구참여자 남편의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갱년기를 겪고 있으며, 외부활동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포화상태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남편을 더욱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여 잔소리하고 심하게 말했던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연구참여자 D는 남편과의 갈등극복을 위해 자신을 먼저 성찰함으로써 ‘잔소리’ 하지 않고, 남편이 힘든 시기임을 이해하여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자신을 형성해 갔다. 연구참여자의 자기형성은 곧 자기변혁과 가정의 변혁에 이르는 주체적인 힘이다.



### 스타일 좀 바꾸면 예쁘겠어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의 스타일 때문에 남편에게 종종 싫은 소리를 들곤 했다. 네일아티스트인 그녀는 자신의 손톱이 안 예쁘다고 생각하여, 관리하고 꾸미면 예뻐질 수 있어서 네일미용을 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에게 있어 스타일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였다.

근데 그렇게(한국여자들처럼) 스타일 좀 바꾸면 예쁘겠어. 베트남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약간 안 바뀌요. 저 옛날에 옷 입고는 이상했어. 근데 하다가 하다가 좀 바꾸는 거예요. 신랑 좀 바꾸라고, 젊은 여자가 그렇게 입은 촌스러워. (중략) 그런 거 말고 약간 옛날 그런 거 머리핀 있잖아요. 여기 하고 묶고 엄청 크는 거(웃음). 그리고 치마 엄청 길고 약간 꽃이 많이 있잖아.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바뀌도 잘 안돼(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언니 화장 잘 하는데. 저는 화장 못 해요. 화면(인터넷) 보고 화장하는 거 배웠어요. (아이라인 그리는 거) 엄청 힘들었어요(웃음). 뭔가 눈매가 화장 때는 약간 매력을 보는 거예요(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연구참여자 E의 남편은 이국적인 스타일의 연구참여자에게 ‘촌스럽다’고 하였다. 꽃무늬 긴 치마를 입거나 커다란 헤어핀으로 머리를 묶는 스타일은 젊은 연구참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보다는 한국과 베트남 스타일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화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다 보니 촌스러움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의 말에 따라 서서히 스타일에 변화를 준 연구참여자는 결혼이후 초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옛날 옷 이상했어’ 라고 웃었다. 그러나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서 일할 때는 편한 옷 즉 ‘촌스러운 옛날 옷’ 스타일을 찾게 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남편의 스타일 지적에 기분이 나빴을 법도 했지만 조금씩 개선의 모습을 보였다.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지언정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남편과의 갈등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 또한 한국 여자들의 메이크업 실력이 부러워 유튜브를 보며 따라 해보지만 쉽지 않다고 하였다.



특히 아이 메이크업에 관심을 보였던 연구참여자는 눈매의 선명도가 매력을 좌우한다고 하였다. 1차 면담을 했던 당시 연구참여자는 아이라인을 처음 그려봤다고 전했다. 오은주(2011: 52-53)의 연구에서 이주기간이 짧을수록 정기적인 머릿손질과 이미지나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을 한다고 하였는데, 연구 참여자 E의 경우 이주 기간이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참여자 남편의 부탁뿐 아니라 연구참여 자 자신의 한국문화에 융화하는 과정(강은란, 2017: 108)과 연구참여자의 직업에서 비롯된, 즉 기분전환과 꾸미기 목적의 고객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네 일아티스트의 특성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4.2. 언어문화로서 정체성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와 모어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주류사회의 언어를 좀 더 능숙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다. 거주 기간에 비해 한국어가 늘지 않아 모국어를 구사하는 모습 속에서 모국어는 곧 그들의 고향임을 인식하였다. 한국어와 모어, 어느 하나에 국한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모습에서 사랑을 느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활짝 열어 보이는 사랑(심성보, 2022: 607)이며, 세계 전체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는 태도, 즉 인격의 지향(Fromm, E, 1995: 46)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모어를 통해 자신과 세계의 변혁적 관계를 성찰하여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언어문화로서 정체성’ 이라고 명명했다.

### 4.2.1. 이름으로 나를 알리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자신만의 정체성을 담고자 노력한다. 이주자의 경우에는 여러 문화권을 거치면서 그 특수성이 더해지는데, 이때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하는 일은 흔하다(설동훈, 2018). 이렇듯 이름을 드러내어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이주자가 정체성을 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이다(Glick Schiller, 2003).



### 명함에 나의 이름을 새기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명함이 필수였다. 프린트에 또는 계산대 앞에 연구참여자들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 이름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속 깊은 의미가 새겨있었다.

OO은 제 한국 이름이에요. 성씨는 이, 이OO이요. (연구자: 이OO, 이름 예쁘게 지었네요) 혼자 찾아서 지었어요(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가 씨는 제가 처음이에요. 왜냐면 그때 그거 등록할 때 그거 주민등록증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 씨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 씨 원조. ‘한 양 가 씨’. 그쵸 오빠(연구참여자의 남편) (연구참여자 C, 1차 면담).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의 한국 이름 두 글자를 따서 미용실 상호를 만들었다. 그녀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가며 직접 한국 이름을 지었다.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함의하기 때문에 정성들여 지었다.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의 대만 이름을 그대로 한국명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가’ 씨는 한국에 없는 성씨였으므로 관할 행정사무소에서 그녀를 위해 ‘한양 가’ 씨라는 새로운 성을 만들었다. 연구참여자 C는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으며, 자랑스러워했다.

고맙고 좋아했던 사람의 성씨를 물려받은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그 대상이 시어머니였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저 명함에 있는 이름이 한국 이름이에요. 명함에는 나 이름(베트남 이름)은 안 나와. (연구자: 이름 참 예쁘네요.) 박 씨는 그냥 우리 시어머니인데, 박 씨인데 나 박 씨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박 씨(예요). 우리 시어머니 좋아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만(계세요). 시어머니 잘해줘요 (연구참여자 B, 1차 면담).



시어머니를 잘 따랐던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의 한국 이름을 지을 때 시어머니의 성씨를 물려받아 사용했다. 결혼이주 초기 충북 증산에 살고 있는 연구참여자 B의 시부모님은 그녀가 살고 있는 대전 집으로 오셔서 3개월 동안 같이 사셨다. 한국에 처음 와서 살게 된 외국 며느리의 한국살이를 돕기 위한 방문이었다. 시어머니는 연구참여자 B를 위해 집안 대부분의 사물에 이름을 써 붙여 놓고 한글을 가르치셨다. 외국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갈등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둘의 사이가 좋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친자녀보다 며느리인 연구참여자 B가 더 많이 슬퍼하고 울어 조문객들이 의아해했다. 그런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을 연구참여자 B는 ‘아버지’, ‘엄마’ 라고 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B의 사례는 김영순 외(2023)에서 밝힌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내에서 대면한 이주민 서사가 대부분 부정적 경험이라는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시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느낀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의 한국 이름의 성에 시어머니의 성을 담았다.

한편 베트남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며, 이름을 지을 때는 남편과 머리를 맞대어 고심하며 이름을 짓는 연구참여자들의 모습도 나타났다. 이름은 만드는 것이 아닌 건물처럼 짓는 것임을 연구참여자들의 작명 내러티브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제 한국 이름은 신랑, 그냥 남편이(만들어줬어요). 성씨는 ‘하’인데, 하 씨는 그대로 가고요, 이름 아니고 성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성으로 하. 이름 남편이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기 알아서 지은 거예요. 말 너무 안 이빠서. 남편이 말 예쁘게 하라고(연구참여자 D, 추가 면담).

연구참여자 D의 이름은 ‘하OO’이다. 그런데 ‘하’ 씨는 그녀의 베트남 성씨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며 이름만 한국명으로 지은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한자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앞은 성이고 뒤는 이름(배양수, 2018: 101)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이다. 연구참여자 D의 이름은 받침이 없어 발음하기 편하다. 이에 대한 이유가 재미있었는데, 연구참여자 D





가 좀 더 예쁘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바람이 들었다고 했다. 베트남어는 6성을 가진 성조어로서 음의 고저가 분별된다(배양수, 2018: 73). 성조가 없는 한국어를 사용해 온 연구참여자 D의 남편으로서는 아내의 말투에서 소란스러움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연구참여자 E의 남편은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름에 받침이 있는 있어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쓰기도, 부르는 것도 어려워했다.

제 한국 이름 지을 때 신랑이 같이 좀 해줬어요. ‘장’ 씨는 저는 원래는 ‘잔’이라고 해서. 베트남 성 이름도 원래 ‘잔’이라고 해요. 근데 OO이라는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이름을 예쁘다고 하니까(그 이름으로 지었어요)(연구참여자 E, 추가 면담).

연구참여자 E 한국 이름의 작명 구조는 연구참여자 D와 비슷하다. 즉 연구참여자 E의 이름은 ‘장OO’ 인데, 성씨 ‘장’은 베트남 성씨인 ‘잔’에서 파생되었다. ‘잔’과 가장 비슷한 한국 성이 ‘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베트남 성을 그대로 가져온 것과 다름없다. 이름 역시 연구참여자 D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지어줬는데, 남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름을 그녀에게 안겨주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한국의 낯선 환경과 알아듣지 못하는 말 속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들에게 남편은 세상의 시작이자 끝인 존재가 되곤 한다(한국이주여성센터, 2018). 이러한 존재인 남편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공백을 아내의 몫으로만 돌리기보다 아내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로 소통하면 부부 사이의 친밀도는 더욱 높아진다(김금희 외, 2013). 서로의 문화와 언어가 다름을 인정해 줄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와 돌봄을 받고 있다는 인식으로 자신감 넘치는 정체성이 형성된다. 정체성은 곧 자신감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면 연구참여자 A는 한국 이름을 스스로 짓는 자율성과 주체성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B는 은혜에 대한 보답을 밑바탕으로 역시 주체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었다. 연구참여자 C, D, E는 모국에서의 이름 및 성을 한국



이름으로 작명 시 사용함으로써 정체성 협상의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름을 얻거나 부른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과 고유성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존재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김정용, 2023). 연구참여자들은 명함에 자신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 4.2.2. 모국어는 고향이다

#####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편한 모국어*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이주초기 한국어를 배우는 시기여서 한국어를 곧잘 구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능숙도 및 발음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다.

시어머니는 연구참여자를 위해 집안의 모든 사물에 이름을 써 붙여 놓고 한글을 가르치셨다고 했다. 마치 막 글자를 배우는 어린 자녀에게 엄마가 하듯이 (연구자 노트).

저는 요즘에 한국어는... 외국인 많이 만나가지고. 베트남 사람이랑. 베트남어 안 사용하면 빨리 (한국말) 배워. 근데 옛날에도 발음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회사 다녀하고 시작하니까(한국말 더 늘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연구참여자 B는 시어머니께 한국어를 배웠다. 한국어를 배울 당시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지만, 베트남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한국어 사용 빈도가 낮아졌다. 그러다 보니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감소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E 역시 결혼이주 초기에는 한국어 발음이 좋았을 만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어린 딸아이의 한글을 가르칠 정도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생활과 창업을 통해 한국어 사용 능력은 점차 떨어지게 되었다. 즉 베트남 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어 대신 모어를 더욱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이민자의 이주국가 언어습득 모델<sup>17)</sup> 중 이주국가의 언어노출 정도 (exposure)와 관련이 있으며 언어노출 정도 관련<sup>18)</sup>하여서는 사회관계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민자가 새로운 이주국가의 언어를 습득함에 있어 거주지와 관련하여 본국 출신의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주국가의 언어실력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Chiswick & Miller, 1996; Dustmann, 1994). 즉 본국 출신의 이민자와의 관계 형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한 관계 형성에서 이주국가의 언어보다는 모국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Chiswick & Miller, 2005a; Espenshade & Fu, 1997; Mesch, 2003). 따라서 본국 출신의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정착할수록 이주국가의 언어 실력은 낮아지게 된다(황민철, 2016).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역시 자영창업체가 위치한 지역은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이 많은 곳으로 상대적으로 모국어 노출 빈도가 높다. 이로써 연구참여자들은 비록 한국에 오래 거주했지만 언제나 입가에 맴도는 모국어를 구사하였다. 모국어는 곧 고향이다. 주류사회에서 모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내면화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 4. 소결

이 연구는 내러티브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과 주체성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V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난 내러티브를 탐색하였다. V장에서는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을 단순히 시간순으로 나열하거나 특징 지우려 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에 개입함으로써, 즉 기술이 경험에 의미를 더함으로써 경험의 내

17) 이민자의 새로운 이주국가 언어 습득에 영향을 주는 공통된 영역은 이주국가 언어의 노출 정도(exposure), 개인의 능력에 따른 언어습득 차이(efficiency), 경제적 동기(economic incentives), 출신 국가 또는 민족에 따른 언어실력의 차이(ethnic inequality)이다(Chiswick & Miller, 1998, 2001).

18) 노출 정도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가족구성원, 사회관계망, 거주지역은 중요한 영향요인이다(황민철, 2016).



용과 질이 변하고(Clandinin, 2011: 75) 성숙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성의 의미는 크게 ‘비판적 의식’, ‘삶의 전환’, ‘상호문화소통’, ‘정체성 형성’ 등 네 가지 영역이 도출되었다. 우선 1. ‘비판적 의식’ 영역에서는 1.1. ‘비판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봄’, 1.2. ‘삶의 목표 의식’ 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2. ‘삶의 전환’ 영역에서는 2.1. ‘도전과 실천의 자세’, 2.2. ‘몰입을 통한 개인의 성장’ 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3. ‘상호문화소통’ 영역에서는 3.1. ‘고객과의 상호작용’, 3.2. ‘열린 공동체로서의 역할’ 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 ‘정체성 형성’ 영역에서는 4.1. ‘여성으로서 정체성’, 4.2. ‘언어문화로서 정체성’ 이라는 2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의미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판적 의식’ 영역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유목적 주체이다. 자신의 뜻에 따라 결혼과 함께 한국 사회에 진입하여 출산과 양육이라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다(황해영, 2018: 42). 언어와 문화에 대한 불편함을 넘어 주위 사람들의 차별과 직장에서 소외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의 이질감에 따라 먹는 것과 하는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은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타문화를 통한 자아 성찰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결국 비판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존재의 발달은 언제나 완만하게 상승하는 진보의 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아우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지점은 곧 성장의 지점이며(김미영, 2015), 저항을 통한 창조의 박차를 경험하는 지점이 된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인식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이해하고 각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삶을 더욱 풍성하고 복잡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삶의 목표 의식을 가짐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꿈을 갖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로는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에 온 것과 자녀의 진로



를 위해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차별이 없음을 희망하고 바랐다.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생활 참여는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인 행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획득을 의미하므로(강이수, 2009)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더욱 의미 있다. 또한 다양한 미래를 계획함으로써 삶의 더욱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갖게 되었다. 남편과의 많은 나이 차, 한국 거주기간의 장기화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노후 준비를 하는 주체로 위치 지워진다. 나아가 한국과 본국 간의 문화소통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훗날 본국에 가서 삶을 꿈꾸기도 하였다. 개방은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Sennett, Richard, 2019: 13).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미래를 향한 꿈과 계획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더욱 변혁적으로 만들 것이다.

둘째 ‘삶의 전환’의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도전과 실천 그리고 몰입을 통한 성장으로 삶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7전 8기 끝에 헤어미용과 네일미용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기술 보유자가 된다. 자격증을 통해 드디어 자영창업을 이루게 된다. 자영창업은 이전의 직장생활에서 경험했던 차별과 소외의 상처를 되돌아보는 거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사장’이 됨으로써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영창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힘들어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자기 배려라는 푸코의 논리에서 기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전문가적 태도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었다.

셋째, ‘상호문화소통’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자영창업체를 통하여 고향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고향의 맛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익숙함을 전해주었다. 또한 손님에의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더욱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끊임없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즉 세상과 관계 맺기를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드러냈다. 타자와 주체의 상호작용은 연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연대는 나와 타자가 어울려 살아가는 관계 지향으로 이어진다(김영순, 2020: 115).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자영창업



체에 방문하는 타 국가 외국인들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공감들이 형성되었다. 그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연대를 희망하면서 다양속 속에서 단결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연대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결사라기보다 세계 질서에 맞서는 지역의 힘, 이웃의 힘(심성보, 2022: 151)이 더욱 가깝다.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의 의미 중 마지막 영역은 ‘정체성 형성’이다.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김영순, 2020: 143). ‘여성으로서 정체성’은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여건 혹은 사회적 지위보다 가정에서 더욱 주체적인 모습으로 형성해 가는 모습에 포커스를 맞췄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더욱 집중하는 모성애를 발휘함으로써 정체성 협상을 해나갔다. 즉 자영업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할 수 있었고 이는 결국 자녀에게 더욱 신경 쓸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반면 사춘기 자녀에게 정서적 돌봄을 위해 운영하던 자영업체를 지인에게 잠시 위탁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따라서 자영창업체의 운영은 자녀 돌봄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편과의 갈등 모색을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고 스타일에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였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연구자의 임의로 명명하였으며, 엄마와 아내의 위치에서 내적 힘을 기르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연구참여자들의 모습을 나타냈다. ‘언어문화로서 정체성’은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어와 모어 사용에 있어 어느 하나에 국한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모습에서 명명되었다. 한국어와 모어를 통해 자신과 세계의 변혁적 관계로까지 확대한 성찰이 가능했다. 명함에 새겨진 한국 이름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본국에서 사용하던 성씨 및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모국어가 곧 고향임을 깨닫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연구자적 시선은 크게 자본주의 가부장제 피해자로 인식하는 측면과 행위자성을 부각시켜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경제적 선진국 남성들에 의해 상품으로 매매되어 선진국으로 유입된 경제적 후진국 여성들이 다시 그 국가의 하층계급에서 돌봄 노동자화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매매되어진 (trafficked) 피해자’로 초점을 둔다. 반면 행위자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결



혼이주여성들이 유입국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자(agent)로서 행위 참여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Kim, 2013: 9).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참여자에 대한 질적 접근(qualitative approach)과 다양한 내러티브를 통한 심층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구조적 환경의 제약 속에 전략을 형성해 가는 행위자성(agency)의 복원에 중점을 둔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Kim, 2013: 9; Piper & Roces, 2003: 8-9). 본 연구는 행위자성 복원을 넘어 결혼이주여성들의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통한 자신의 발전과 나아가 세계발전을 꿈꾸는 변혁적 주체성으로서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 내러티브와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 탐색 결과 이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온전히 실현하고 있었으며, 주체적 존재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생활과 주류사회에서 경험한 차별을 통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비판적 의식화를 지향함으로써 프락시스를 실천했다. 이렇듯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위계질서와 가치체계에 저항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장생활과 주류사회라는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성찰함으로써 자영창업이라는 능동적인 실천을 이루어 나갔다. 또한 주변의 타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더욱더 정체성이 형성되고 변화되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프락시스 즉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그들의 몸부림은 자신의 삶을 직시하였기에 가능했다.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자신있는 아이টে으로 자영창업함으로써 타자 속에 관계 맺기를 성공하였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은 그들 자신의 존재 의미가 드러나는 창조적 삶의 견인역할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으며,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고 또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며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알렸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도전과 실천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었다.



## VI.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난 주체성의 의미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은 다양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경제생활 참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원활하지 않은 한국어와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대안으로 자영창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결혼이주 이전과 자영창업 준비 그리고 자영창업 현재에 나타난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프레임의 변혁적 주체성을 활용하였다. 인간의 실천적 행위는 서사적 통일성을 이루므로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나는 주체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주 전 경제생활 참여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의 내러티브는 어떠한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II 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일과 여성의 자영창업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나는 주체성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주체성을 살펴보았다. 이후 프락시스와 주체적인 삶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프락시스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이며 또한 인간의 변혁적 주체성을 위한 토대가 됨을 전개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을 사회문화적 맥락에 주목하기에 이들의 행위성(agency)에 초점을 두고 행위자의 주체적인 실천과 실천 행위가 사회관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변혁적 주체성에 접근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III장에서는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연구참여자는 5명으로 자영창업한 지 3년 이상인 결혼이주여성이다.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을 주로 활용하되 연구자 노트, 사진, 인터넷 신문 기사자료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하였다. 결혼이주와 여성이라는 복합적인 특수성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유의미한 경험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는 적절하다. 내러티브에는 결혼이주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자료 분석 시 내러티브의 3차원적 탐구 공간으로써 시간성, 관계적 상황, 공간을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나는 주체성을 기반으로 내러티브를 제시하였다.

IV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인간의 행위에는 삶의 서사적 통일성이 있기때문에 이전의 경제생활 참여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영창업 내러티브를 ‘이주 이전 이야기’와 ‘창업 준비 이야기’, 그리고 ‘창업 이야기’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코로나19 시기에 창업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창업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 또한 결혼이주 전 본국에서 경제생활 참여가 창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는 모국에서의 창업경력은 이주국에서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한 김경아(2012)의 연구와 다른 결과였다. 본 연구참여자들 중 본국에서의 창업경력이 있는 사람은 1명(E)이었지만, 부모님의 사업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참여자도 2명(A, C)이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모국에서 창업경력 및 부모님의 사업 경력은 연구참여자들의 창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창업 비용은 가게 입지와 건물의 상태, 인테리어 양상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 났다. 그중 서울은 창업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창업비용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꼈다. 비슷한 지역의 유사한 평수여도 건물의 상태에 따라 임대료가 5배 정도 차이 났다. 남편의 지인을 통해 인테리어비용을 절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연구참여자 배우자들의 직업



에 기인하는데, 작은 공장을 운영하거나 기계설계 도면을 그리는 배우자들은 주변 상권과의 연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은 인테리어비용 절감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자영창업체 운영에 만족해했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였다. 자영창업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V장은 두 번째 연구문제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IV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체성 발현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비판적 의식, 삶의 전환, 상호문화소통, 정체성 형성으로 자영창업 경험에 발현된 주체성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 2. 논의 및 제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정책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생활 참여 실태를 주목하고 경제생활 참여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어려운 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영창업에 성공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성의 관점에서 해석을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일 관련 및 경제생활 참여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 다루어진 논의들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을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 동기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기류와 사회 맥락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자영업은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되는 가장 단순한 기업유형이다. 소유와 경영이 확연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기업으로의 자영업 문제와 운영하는 자영업자 개인의 문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처럼 취업 불안정 인구의 도피처로서의 측면과 벤처기업으로서의 창조적 측면을 두루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8).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자영창업의 독특성과 본질을 활용하여 창업에 성공하였다. 즉 이들의 자영창업 동기에는 취업 불안정 인구로서 도피성에 의한 창업을 선택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면에 흐르는 사회적 현상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연구참여자들 5명 중 3명은 직장생활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였다. 즉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타이틀 속에는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 소통, 외국인, 여성이라는 3중의 악조건을 포함한다. 한국인 근로자와 표나는 차별과 소외를 겪은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에서 타자성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잦은 이직을 경험하였다.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결혼이주자를 감행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마주한 이주 사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동등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차별과 소외를 겪는다는 것은 인간 존엄에 흠집을 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연구참여자들 자신들이 살고 일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모순에 대해 비판의식을 구성하는 그 자체가 의식화이다(심정보, 2022: 163). 따라서 비판의식의 발달은 나 자신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여 타인을 알고 그리고 세계를 아는 것이다. 성찰을 통한 사유의 확장이다. 인식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실을 변혁시키기 위한 실천은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창업의 동기는 5명 중 3명이 차별과 소외로 빚어진 결과이며, 이들은 현실에 순응하고 통제되어 살아가기보다 변혁적 주체성을 통한 자영창업의 과업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수자로서 권리 밖에 놓인 결혼이주여성들을 자영창업을 실천한 프락시스적인 인간으로 상정하며 변혁적 주체성으로 논의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헤어미용과 네일미용 자격증을 취득한 연구참여자들이 있다. IV장에서 기술되었듯이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는데 필기과목은 그 수가 많기도 하며 전문용어가 포함되어 쉽지 않은 영역이다. 네일미용 필기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다. 노출되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으나, 사용되는 많은 네일 미용 전문용어의 올바른 사용과 표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네일 미용 용어들은 미국 등 외국에서 유입되어 점차 외래어화 또는 외국어를 발음하는 대로 한글화하여 사용하고 있다(조미자, 2017). 따라서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과 문제의 노출 빈도가 높아짐에도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은 결국 합격의 어려움을



예견한다. 더군다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러한 어려움은 배가 된다.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에 따라 문제를 암기할 수도 있겠지만 암기 또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들이 네일미용 자격증에 합격하기 위해 기출제된 문제를 외운다고 가정해도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암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네일 관련 전문용어들은 일반인들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난해하다.<sup>19)</sup> 이는 헤어미용 자격증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은 미용에 관한 용어나 외래어를 이해하기 어려워(김예슬, 2014: 40) 필기시험에서의 잦은 탈락을 겪게 된다. 헤어미용과 네일미용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2명의 연구참여자들은 7전 8기를 거친 끝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참여자들의 문제 인식과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는 비판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비판적 사고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배움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자격증 취득, 곧 배움은 의식의 비판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Macedo, 1998: xxiv)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동기부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문제인식과 성찰 그리고 실천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사이클에서 움직임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변혁적 주체로서 스스로의 변혁을 이뤄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자영창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자영업종, 지리적 위치 및 건물 이용의 편리성 등은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자영업을 운영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은 연구참여자들 모두가 동일하게 밝혔다. 자영창업체 운영을 통해 경험하는 자아실현이나 성취감은 사업지속 의도를 높여(박정식, 2020: 130) 연구참여자들은 2호점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한편 외식업의 창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하종률, 2017) 과거 경험이 없던 연구참여자 B와 C도 무리 없이 시도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운영방식과 영업성과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영업개선 시도, 전문성, 대응력 등을

19) 예컨대, 스마일 라인=스마일라인=엘로우 라인, 교조증(오니코파지)=교조증(오니코파지, onychophagy), 스컬프처 네일=아크릴=아크릴릭=아크릴릭(acrylic)=아크릴릭, 니트로셀룰로오스=니트로셀룰로오스 아크릴파우더=아크릴 파우더=아크릴릭 파우더=파우더 등이 있다(조미자, 2017).



발휘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해나갔다.

역량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발휘되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 가치관, 기능, 자아의식, 태도 등 개인의 행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총체가 포함된다. 업무수행자의 행동 동기, 특질, 기능 또한 역량에 해당한다. 성공적인 주체는 이러한 요인들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행동으로 나타난다(박정식, 2020: 31-32). 이러한 맥락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의 성격적 특성 또한 역량에 포함된다. 즉 연구참여자 A의 성격적 특성은 외향적이며 감정이입에 의한 공감을 잘한다. 연구참여자 B의 성격적 특성은 정이 많고 인심이 후하다. 또한 착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녔다. 연구참여자 C의 성격적 특성은 착하고 친절하다. 연구참여자 D의 성격적 특성은 자존감이 높고 인정욕구가 강하다. 연구참여자 E의 성격적 특성은 유쾌하며 유머러스하다. 그리고 독립적이다. 소상공인의 성격특성이 사회적 자본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정대용·박성희(2016)는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이 소상공인의 효능감에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성실성은 연구참여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사람과 잘 어울리고 늘 좋은 생각으로 타인을 잘 이끄는 성격, 사람을 잘 믿고 매사에 정직하며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성격의 사람은 대인관계나 외부 기관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 효과도 크다. 성격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영창업에 적합한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정리해 보면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영창업과 운영을 통해 만족감을 느꼈다. 개인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만족도는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역량의 한 요소로 작용하는 성격적 기질 역시 만족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격적 특성이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것과 자영창업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취업의 한 계점을 극복하고 경제생활 참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의 연결망 부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인종과 민족을 기반으로 한 연결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 연결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직업 및 다양한 생활세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문화적·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파레냐스·라셀 살라자르, 2009). 이러한 연결망은 한국사회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결망의 유형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의 행위전략은 그 양상이 다르다. 우선 가족중심형 연결망에 속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족중심주의에 입각하여 행동한다. 한국인 친구 중심의 연결망에 속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이주민 중심의 연결망에 속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이주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비판적인 자세로 견지하며 연대를 통한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황정미, 2010).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연결망이 없었다. 이는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석 가능한데 그 첫 번째 원인은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자영창업을 한 결혼이주여성들로서 코로나19 확산은 이주민과의 교류를 줄이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규령, 2022). 즉 이전에는 사회적 연결망에 속해 있어 교류가 가능했지만,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폐쇄성이 이러한 교류를 불가능하게 했다. 두 번째 원인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시간과 관련된다. 경제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생활에 더욱 충실하여 자신의 여유시간을 경제생활과 연관된 활동에 치중한다. 따라서 경제생활에 참여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웃, 친구, 커뮤니티 활동에 더욱 적극적이다(천정훈·최정욱, 2012).

다섯째,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확산이다. 온라인 교육은 학습자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원활한 매체 활용을 위해 예비교육이 필요하다. 즉 학습자는 컴퓨터를 포함한 온라인 교육을 위한 매체의 사용 능력을 갖추어야 학습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온라인 학습을 위한 컴퓨터 및 다양한 매체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는 진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기존 오프라인 교육에서 보다 소속감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권상오, 2007). 이처럼 온라인 교육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평소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나 일반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식품업자가 받는 위생교육 역시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변경 및 이수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자영창업자 결혼이주여성들은 모바일 어



플 사용 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는 코로나 시기에 저소득층, 청년, 여성일수록 원격근로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의 비중이 높다는 허재준(2021: 1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주변 상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 역시 주체성으로 볼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려 하는 자세는 곧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주체성을 실현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내 다문화수용성 인식의 고취 필요성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직장 생활 시 차별과 소외를 겪었다. 이로 인해 직장 내 다문화인식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의 여론이 형성되며 다문화주의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수용성을 비롯해 문화개방성 교류 의지 등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는 요소들의 각종 수치가 2018년과 비교해 2021년 조사에서 현저히 하락되었다. 반면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차별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의 다문화 수용지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추미화, 2022). 따라서 직장 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먼저 리더들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의 행동과 가치관은 조직문화를 형성해 가는 근간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리더들의 문화다양성에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직원들에게 문화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차별과 언어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통해 직장에서 차별을 줄이고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함께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열린 도시는 차이를 용인하고 평등을 촉진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착되고 익숙한 환경의 족쇄에서 사람들을 풀려나게 함으로써 경험을 확장하고 실험할 수 있는 토양을 창조한다(Sennett, Richard, 2019: 20). 직장내



다문화수용성 인식 고취는 곧 새로운 토양을 창조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이미용 자격시험에 관한 완화이다. 논의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한국어와 전문용어의 어려움으로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부합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격증 시험에 관하여서는 현재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시험이 연 1회 실시되고 있다(김예슬, 2014: 40).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론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실에 전문 통역사를 배치함으로써 강의자나 학생들에게 지식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은 필기시험의 잦은 불합격 원인이 된 한국어와 전문용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확산에 대한 제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영창업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다양한 이점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력적인 시간 활용은 자녀 돌봄을 가능하게 하며 취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기도 한다.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영업을 운영함으로써 자아실현 및 만족감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은 고정비용을 낮춤으로써 영업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창업비용 지원은 일회적이지만 세금 감면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영창업체를 운영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연결망 부재에 따른 제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생활 참여는 크게 임금근로자와 자영창업자로 나뉠 수 있는데, 자영창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탄력적인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영창업을 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연결망 형성을 제안한다. 진지한 여가는 행위자인 자발적 봉사자가 여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그 과정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다(김은영·박수정, 2022). 자원봉사는 진지한 여가로 분류되며(이유진·황선환, 2021) 자아실현의 기회이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이다(이유진·황선환, 2021). 뿐만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김은영·박수정, 2022). 결혼이주여성의 진지한 여가로서의 자원봉사의 의미를 탐색한 김은영·박수정(2022)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성취감, 자존감 형성, 삶의 질 향상, 역량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므로(김은영·박수정, 2022) 자영창업체를 운영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연결망 형성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다섯째, 자영창업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 언어 지원 제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위생교육 관련 결혼이주여성의 편의성을 제고한 언어 지원 정책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적 비중은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따라서 중국과 베트남어는 식품위생교육 관련 온라인 어플에 지원 및 탑재되어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기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허재준, 2021: 6) 하였던 것처럼, 확산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발전을 거듭할지언정 사라질 수 있는 교육방식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좀 더 다양한 출신국적의 연구참여자와 더욱 다양한 업종을 살펴보지 못한 데 있다. 연구참여자 선정 조건에 부합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출신국적에서 중국 한족, 필리핀이 제외됐으며, 업종에서는 마사지가 배제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그동안 연구가 미비했던 영역의 자영창업 업종 또한 연구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감승자(2016). 이미용 국가기술자격증 효율성(efficiency) 연구. 국내박사학위 논문 경일대학교.
- 감승자·김정원(2019). 한국 이미용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인식 연구 -자격증 소지자와 준비생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1), 1-14.
- 강신주·고미숙·김상근·슬라보예 지젝·이태수·정용석·최진석(2014). 나는 누구인가. 경기도: 21세기북스.
- 강윤숙·유진형(2012). 감성적 빛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7(2), 117-126.
- 강은란(2017). 결혼이주여성의 헤어스타일 행동과 미용실 선택 요인.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8(2), 99-110.
- 강이수·신경아(2009). 여성의 일-가족에 대한 태도와 “선택”의 문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5(0), 237-274.
- 강희영·이해웅·이화용(2016). 결혼이민여성 취업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고혜원(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공수연·양성은(2014).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32(1), 133-150.
- 곽한주(2021). 포스트독재기 ‘주체성의 레짐’의 교체와 한국영화 르네상스: 현대 한국영화의 역사화를 위한 시론적 탐구. 현대영화연구, 17(1), 9-33.
- 권상오(2007). 온라인 교육에서 구성주의적 교수방법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25, 88-95.
- 권지성(200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아동과 권리, 11(1), 1-29.
- 금재호·김기승·조동훈·조준(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 -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 기희경(2022). 대학생 주체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국내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강남(2016).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다문화와 평화, 10(3), 54-84.
- 김경민(2018).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젠더화된 상상력과 실천. 비교문화연구, 24(2), 5-59.
- 김경아(2012).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의지 결정요인분석. 지방정부연구, 16(1), 381-409.
- 김경현(2005). 인성(personality)과 음악선호도. 국내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경희 · 허영숙(2014).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에스닉(ethnic) 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3(2), 75-110.
- 김규령(2022). 문화예술 활동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문화와 예술연구, 20(20), 563-587.
- 김금희 · 김영순 · 전예은(2013).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부부간 협력적 의사소통에 나타난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 언어와 문화, 9(2), 73-100.
- 김기운 · 전해정(2013). 미용대학의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미용학회지, 9(4), 90-99.
- 김도희 · 이경은 · 장덕희(2010). 결혼이민여성의 직업활동과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27(2), 113-153.
- 김미영(2006). 현대공동체주의.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 김미영(2011). 실천과 탁월성 그리고 공과의 정의. 사회와 이론, 18, 77-106.
- 김미영(2015).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적 인간 고찰. 사회복지경영연구, 2(2), 27-42.
- 김병용 · 구효진(2012). 에스닉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 감정반응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6(2), 225-241.
- 김병용 · 구효진(2012). 에스닉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 감정반응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6(2), 225-241.
- 김상봉(2007). 서로주체성의 이념. 서울: 길.



- 김성례(2002). 특집: 구술사와 기억;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 문화인류학, 35(2), 31-64.
- 김성희 · 김경석 · 안인주(2019).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 효율성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37(1), 1-12.
- 김송렬(2020).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국내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수정 · 유희경(2021). 바리스타 자격증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20(4), 281-306.
- 김신혜(2017).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등 수학교육에서의 반성적 사고 활동 비교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화 · 김경아 · 손병덕 · 이해연 · 최영일(2018).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욕구에 대한 현황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김영순(2018). 오래된 미래 만들기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김영순(2020). 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과 정체성 협상, 북코리아.
- 김영순 · 김도경(2022).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한 자조모임 공동체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5(2), 5-37,
- 김영순 · 응웬 반 · 히에우 외(2013).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 경기도: 북코리아.
- 김영순 · 조영철 · 김정희 · 정지현 · 박봉수 · 오영훈 · 손영화 · 박종도 · 이미정 · 정경희 · 김기화 · 박미숙 · 오세경 · 임지혜 · 황해영(2019).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 북코리아.
- 김영실, 임도연, 박연관. (2020). 베트남 덴 흥 축제(lễ hội Đền Hùng)의 변천사 및 의례적 기능 일고찰: 반 제넵과 빅터 터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30(2), 35-65.
- 김영천(2007). 질적연구방법론 I. 문음사.
- 김영천 · 이현철(2017). 질적 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 경기도: 아카데미프레스.
- 김예슬(2014). 결혼이주여성의 미용직업훈련 현황 및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유진·오성배(2013).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교육열 탐색. 한국교육문  
제연구, 31(3), 135-160.
- 김윤·방기정(2016). 네일 서비스 종사원의 인적 특성이 신뢰 및 고객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7(3), 215-229.
- 김은영·박수정(2022). 결혼이주여성의 진지한 여가로서의 자원봉사 의미 탐  
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5), 65-81.
- 김이재(2015). 공정여행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커피의 가능성 탐색 -베트남  
중부의 커피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5(4), 87-101.
- 김정용(2023). 여성의 주체성과 아름다움. 신학과철학, 43, 225-252.
- 김정훈(2017). 한국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인식: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0(2), 89-124.
- 김주락·뷔티미향·허권(2023). 민족 기업가 정신의 공간적 확산: 서울 내 베  
트남 이주민의 음식점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3(2), 59-81.
- 김주연(2014). 피부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가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  
용학회지, 20(1), 51-61.
- 김지영·이윤석(202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차별경험.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6(3), 5-33.
- 김창환·송훈섭(2022). 프레이리의 프락시스 개념이 지리수업에 주는 함의.  
한국지리학회지, 11(1), 15-27.
- 김태량(2019).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케어매  
니지먼트 연구, (30), 5-38.
- 김학실(2016). 여성 사회적 기업가의 창업 동기와 성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  
국자치행정학보, 30(1), 395-419.
- 김현미(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파주: 들베개.
- 김현실(2008). 결혼 이주 여성의 현황과 문제: 새로운 여성간호 대상자의 출  
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4), 248-256.
- 김현희·홍달아기(2016).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취업욕구에 대한 연  
구.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김혜정(2020).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해체 경험과 지원 방안. 젠더와 사회, 31, 5-34.
- 김효순(2013).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을 중심으로. 保健社會研究, 33(1), 327-355.
- 김효순(2016).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기업에서의 노동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1, 41-77.
- 김희정, 조영아(2017).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24, 99-140
- 남미자(2015). 과학기술계 박사후 연구원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희망 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정연·김영순(2022). 다문화가족 은퇴 방문교육지도사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생애사 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13(3), 59-90.
- 남정연·김영순(2023). 스코핑 방법 활용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12(5), 207-228.
- 남정연·황해영(2023). 결혼이민자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12(1), 143-178.
- 레티웬트영(2019). 베트남 커피 산업의 한국 시장 수출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5), 1-129.
- 류유선(2021). 대전지역 이주여성의 창업 사례연구.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 문아영(2017).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의 합리적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서울.
- 문유경(2002).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과 취업력. 한국인구학, 25(2), 69-105.
- 박경석·하규수(2014). 한국과 중국동포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2), 61-70.
- 박난희·신난희(2023). 결혼이주여성의 ‘타자화’에서 ‘주체화’로의 변화



- 에 관한 연구. 문화와융합, 45(1), 657-672
- 박능후·선남이(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민족연구, 41, 120-143.
- 박미숙·김영순·홍유나(2014).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4(2), 269-302.
- 박미은·신희정·이미림(2012).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3(4), 213-244.
- 박미정·엄명용(2015). 결혼이주여성 이혼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2), 33-60.
- 박봉수(201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내러티브 탐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박선미(2023). 한국 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공동체와 음식문화 갈등. 비교민속학, 77, 193-239.
- 박신영(2017). 창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의미 탐색. 수산해양교육연구, 29(5), 1600-1613.
- 박은미·이곤수(2009).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적응. 한국행정논집, 21(2), 407-429.
- 박이분·계봉오(2018).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부적응: 배우자와의 관계만족과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통계연구, 23(4), 38-67.
- 박정식(2020). 자영업 점포의 경영성과와 운영만족이 사업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박혜영(2018). 느낌의 0도. 돌베개.
- 방효진(2017). 네일미용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대한미용학회지, 13(4), 351-359.
- 배경희·서인숙(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3(4), 183-202.
- 배양수(2018). 베트남 문화의 즐거움. 서울: 스토리하우스.
- 서윤경(2003). 프락시스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프레임워크의 개발과 적용.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서운경·권성호(2004). 프락시스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을 위한 학습 전략 개발 및 적용. 교육공학연구, 20(2), 101-131.
- 서홍란·배영미·유영림(2016).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검정고시 학습경험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0(3), 33-63.
- 설동훈·윤홍식(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성지혜(2015).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 대구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88(1), 83-115.
- 소경희·최유리(2018). 학교 중심 교육 개혁 맥락에서 교사의 실천 이해: ‘교사 행위주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6(1), 91-112.
- 손기영(2010).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본의 특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19-36.
- 손종현·공정선(2023). 파울루 프레이리의 ‘프락시스 교육학’ 탐구. 문화와 융합, 45(2), 141-157.
- 송안나(2014). 문화기반 마을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유진·이윤석(2021). 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가족연계: 결혼이주여성 본국 가족과의 동거 현황과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60(2), 331-355.
- 신경림(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난희(2018). 대구·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차별 경험과 대응. 다문화와 인간, 7(1·2), 193-226.
- 신유선(2018). 주요 열대과일의 세계 생산 및 교역 현황 :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세계농업, 214(0), 39-61.
- 신정규(2021). 코로나 19와 재난지원금. 재정법연구, 4, 9-36.
- 신지연·원윤경(2013). 한국과 미국의 네일 미용 비교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9(2), 81-91.
- 심성보 외(2023). 교육사상가의 삶과 사상. 서울: 살림터.





- 심성보(2022). 프레이리에게 변혁의 길을 묻다. 서울: 살림터.
- 심승우(2011). 다문화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
- 심인선(2010). 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65, 36-45.
- 안상철(2011). 창업 여성CEO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 양유성 · 한계수 · 조난영(2022). 상담학 논문 작성을 위한 내러티브 탐구. 서울: 학지사.
- 양인숙 · 민무숙(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염지숙(1999).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통한 유아 세계 이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 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3), 57-82.
- 염지숙(2003).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오정미(2020).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1281-1298.
- 우기동(2008). 실천인문학과 삶의 철학 -경희대 <실천인문학센터>와 철학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4(0), 229-260.
- 원숙연(2017). 여성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국제비교. 여성학논집, 34(1), 131-172.
- 유다예(2015). 국내 및 국제법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42), 217-234.
- 유수정 · 황보각 · 임진숙(2012). 피부 미용사의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3(3), 61-74.



- 유용모(2021).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에 나타난 교사 행위자성(teacher agency) 탐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유진희(2014).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 육수현(2015). 반(半)주변부국가 언어의 경계 넘기 :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의 수용과 활용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5(3), 224-271.
- 육수현(2021). 경제행위자로서 결혼이민자.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09, 1-5.
- 윤자호(2022).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 -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5), 1-30.
- 윤희녕 · 윤희중 · 윤희준 · 정문영(2007).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경수 · 이은경 · 김신연 · 김태환 · 김현표(2015). 호로파와 야관문 복합추출물의 남성갱년기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과학회지, 47(4), 492-498.
- 이경아(2014). 직장성인의 SNS 소통경험을 통한 학습의 일상성.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규호(2005). 사회화와 주체성.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동성(2012). 질적 연구와 자문화기술지.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이동성(2015). 생애사 연구. 아카데미프레스.
- 이명숙(2002). 심층면접 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 18(1), 215-241.
- 이병권 · 전인오(2014). 창업동기요인이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6), 213-230.
- 이상석(2006). 여성기업의 창업동기, 성공요인,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8(4), 45-64.
- 이석훈(2013). 국외여행인솔자의 역할이 여행목적지, 여행인솔자 및 여행사에 대한 여행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7(3), 115-128.
- 이선협(2020). 여성창업자의 성격특성(Big 5)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충청남도.
- 이아영 · 황남희 · 양준석 · 안영(2019).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 현황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우진(2015). 직업선택 동기에 따른 창업교육 수강의지에 대한 연구 : 이공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1), 119-128.
- 이유진 · 황선환(2021). 문화자원봉사 참여 대학생의 여가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 여가학연구, 19(3), 109-123.
- 이은정(2018).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경험과 의미 -대구·경북 이주민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3, 183-214.
- 이은주 · 전미경(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 메타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31(5), 125-141.
- 이종일(2004). 자력 혹은 우연한 만남의 논리. 제임스조이스 저널, 10(1), 103-115.
- 이주현(2009). 독립자영업과 프랜차이즈가맹점 창업사례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4(4), 27-43.
- 이지연 · 그레이스 정(2019).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가족과 문화, 31(2), 182-227.
- 이지연 · 전병훈(2020). OECD 학습 나침반 2030에 기초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방향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5), 415-433.
- 이진석(2016). 소수민족 창업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 인문사회 21, 7(5), 501-518.
- 이해경(2015).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7, 29-54.
- 이형국 · 김지연(2015). 한국 떡류 영업자의 영업 특성 및 온·오프라인 식품 위생교육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30(4), 343-349.
- 이혜자(2016).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 임서연 · 황선재(2022).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도 비교: 혼인상태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5(2), 73-103.
- 임석희(2009).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



- 리학회지, 12(4), 364-387.
- 임현숙(2017).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2), 202-214.
- 장명선·이옥경(2009). 서울시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지원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사형(2013). 내러티브에 기초한 인간학의 방향. 교육철학, 51, 65-91.
- 장사형(2014). 내러티브 탐구와 인간 경험의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2(1), 5-22.
- 장은주·이정실(2017). 커피숍의 물리적 환경, 감정적 반응, 관계 품질 그리고 재방문 의도와 의 관계. 동북아관광연구, 13(4), 129-149.
- 장주영(2018). 이주민 자영업 종사자의 현황과 특성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No. 2018-02. 고양: IOM이민정책연구원.
- 장준영(2021). 베트남 사회문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공개 강의.
- 전은희(2014).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취업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0(3), 1-35.
- 전주람·지은·신윤정(2022). 북한이주여성들의 일경험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문화와융합, 44(3), 689-723.
- 전혜진(2015). 창업생태계 변화가 여성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2), 85-96.
- 정대용·박성희(2016). 소상공인의 성격특성이 사회적 자본 확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사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1(1), 295-318.
- 정대용·정경희(2017). 창업가의 성격특성이 직무만족을 매개로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2(6), 453-473.
- 정대용·채연희(2016).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셀프리더십이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1(1), 85-110.
- 정선주(2021). 재한 조선족 자영업자의 한국 정착과 창업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기도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4), 191-225.
- 정소민(2014). 시민적 ‘프락시스’로서의 대학생 봉사활동 경험에 관한 문화



- 연구적 해석. 국내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정지현(2015).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 참여 고등학생의 학습 경험에 나타난 프락시스의 의미. 국내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정지현·오세경(2016). 학교 밖 다문화교육 전문가의 교수경험에 나타난 타자지향성의 의미. 한국언어문화학, 13(2), 109-133.
- 정철(2020). 사람사전. 허밍버드.
- 조미자(2017).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의 네일 전문 용어 분석.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15(1), 65-73.
- 조상문(2021). 소매점 이용자 의식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조상미·이경미·정지연·최수희(2019). 다문화여성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의미와 정책적 과제. 한국창업학회지, 14(6), 494-527.
- 조세은·김혜미(202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후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 5(1), 85-107.
- 중소기업연구원(2007). 여성기업경쟁력 실태조사.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 지현숙·김은실(2017). 일본 ‘네일맥스(Nailmax)’ 잡지에 나타난 네일 디자인의 조형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3(3), 545-558.
- 천정훈·최정욱(2012).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의 유무에 따른연결망비교분석. 여성학연구, 22(1), 139-164.
- 최경(2022). 네일숍의 서비스 품질요소와 소비자의 가치인식이 문제성 발 관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8(5), 1072-1083.
- 최계영·김종하(2013). 주시의도성 유무에 나타난 카페공간 지각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 조형학연구, 14(1), 413-421.
- 최대희(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됨’의 의미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9(2), 233-256.
- 최승은(2019).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의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1(2), 77-109.
- 최아영(2021). PEDI PLANING. 2021년도 국제보건미용학회 춘계 학술대회, 28-36.



- 최영미(2023). 미등록 이주노동자 생활세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화성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 *현대사회와 다문화*, 13(1), 107-126.
- 최윤정 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최인선(2019). 대만 대학 입학 제도의 주요 특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429-449.
- 최인이(2016).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정체성형성: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직업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담론* 201, 19(1), 5-44.
- 최진숙·황금주(2018). 예비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과 커리어 야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19(3), 135-171.
- 최진희(2023). 코로나19와 가구소득 불평등: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3(1), 246-264.
- 추미화(2022). 코로나19 시대 다문화 사회 진단. *인문사회* 21, 13(5), 2251-2260.
- 파레냐스·라셀 살라자르(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문현아 역, 서울: 여이연.
- 하상복(2012). 황색 피부, 백색 가면. *인문과학연구*, 33, 525-556.
- 하종률(2017). 현장 경험에 따른 독립경영 외식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인. *순천향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주희·태동숙(2023). SNS마케팅이 네일 아트 소비 행동과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13(1), 103-122.
- 하희수(2019). 학생 중심의 과학 학습 공동체 이해를 위한 행위주체성에 대한 이론적고찰.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9(1), 101-113.
- 한국다문화연구원(2017). 충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창업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대전: 한국다문화연구원.
- 허숙(2023). 이민자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멘토교육 참여를 통해 본 사회통합 경험에 관한 연구. *한양학회·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9-51.
- 허재준(2021). 코로나19 이후 일의 세계 변화. *지식의 지평*, (31), 41-55.
- 현길언(2015). 주체적 삶과 참 행복. 경기도: 태학사.



- 홍수남(2019). 미용분야 종사자의 직업특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용예술경영연구, 13(4), 23-40.
- 홍영숙(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5-21.
- 홍은광(2003). 희망의 교육을 향한 해방의 삶, 파울로 프레이리. 교육비평, 14, 242-270.
- 홍은진(2016). 세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의 삶과 마을평생교육 실천전략. 국내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경상북도
- 황나리(2011).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모형 검증. 국내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황민철(2016).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21, 43-81.
- 황정미(201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4), 1-38.
- 황정은 · 한송이 · 김효진(2017). 사회적 기업에 취업한 결혼이주여성의 삶 변화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적 기업연구, 10(1), 161-185.
- 황해영(2018).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 탐구: 인정투쟁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해영 · 김영순 · 이춘양(2018).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909-927.
- Ahl, H.(2006). Why research on women entrepreneurs needs new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5), 595-621.
- Apple, M. & Au, W.(2011). 비판적 교육학의 정치, 이론, 현실, 비판적 교육학과 공교육의 미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재검토한다. 원미사
- Bakhtin, M.(1984).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C. Emerson, Ed. & Tra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ldassar, L., & Merla, L.(2014). Transnational Families, Migration and the Circulation of Care: Understanding Mobility and Absence in Family Life. New York: Routledge.
- Bandura, A.(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 Review of Psychology, 52(1), 1-26.
- Belle, D.(1990). Poverty and women' s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5, 385-389.
- Bernstein, Richard(1984). Nietzsche or Aristotle?: Reflections on Alasdair MacIntyre's After Virtue. *Soundings*, 67(1), 6-29.
- Blustein, D. (2006). *The psychology of working*. Mahwah, NJ: Erlbaum.
- Blustein, D. (2008). The role of work in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eing: A conceptual, historical, and public policy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63(4), 228-240.
- Bogdan, R. C., & Biklen, S. K.(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MA: Allyn & Bacon.
- Bruner, J.(1990). *Acts of meaning: Four lectures on mind and culture*. 3,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sh, C. G.(1992).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4), 45-30.
- Bryceson, D. F., & Vuorela, U.(2002). *The Transnational Family: New European Frontiers and Global Networks*. Oxford: Berg.
- Chiswick, B. R. & Miller, P. W.(1996). Ethnic networks and language proficiency among immigran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9(1), 19-35.
- Chiswick, B. R. & Miller, P. W.(1998). Hebrew language usage: Determinants and effects on earnings among immigrants in Israel.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1(2), 253-271.
- Chiswick, B. R. & Miller, P. W.(2005a). Do enclaves matter in immigrant adjustment? *City & Community*, 4(1), 5-35.
- Clandinin, D. J. & Connelly, F. M.(1994). Personal Experience Methods. N. Denzin & Y.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Methods*. San Francisco: Sage, 413-427.





- Clandinin, D. J.(2013).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염지숙 등 공역(2015),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역, 서울: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ean.(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경기도: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ean.(2018).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경기도: 교육과학사.
- Connelly, F. M. & Clandinin, D. J.(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Connelly, F. M., & Clandinin, D. J.(1988). Teachers as curriculum planners: Narratives of experience. Toronto, On: Teachers College Press.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age Publications Inc.
- Danes, S., Lee, J., Stafford, K., and Heck, R. K. Z.(2008). The effects of ethnicity, families and culture on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 extension of sustainable family business theory.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3(3), 229-268.
- Danner, Helmut(2004). 독일교육학의 이해. 조상식 역, 서울: 문음사.
- Darder, A. Balfodano, M. & Torres, R.(2003). The Critical Pedagogy Reader. Routledge Falmer.
- Desiderio, M. V., & Salt, J.(2010). Main findings of the conference on entrepreneurship and employment creation of immigrants in OECD Countries, 9-10 June, Paris. Open for Businesses: Migrant Entrepreneurship in OECD Countries.
- Dustmann, C.(1994). Speaking fluency, writing fluency and earnings of migran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7(2), 133-156.
- Edward McGushin(2011). “Foucault’ s Theory and Practice of



- Subjectivity,” in Michel Foucault: Key Concepts, ed. Dianna Taylor (Durham: Acumen).
- Ellis, C. & Bochner, A. P. (2000). Auto ethnography, personal narrative, and personal reflectivity.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pp. 733-768). Thousand Oaks, CA: Sage.
- Ellis, C.(2004). The ethnographic I: A methodological novel about auto ethnography. Walnut Creek: Altamira Press.
- Espenshade, T. J., & Fu, H.(1997). An analysis of English-language proficiency among U.S. immigra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2), 288-305.
- Finn, Suki(2022). 필로소피 유니버스. 전해란 역, 서울: RHK.
- Foucault, Michel.(2015). Qu'est-ce que la critique? suivie de La culture de soi. 오트르망 역(2017a), 비판이란 무엇인가. 경기도: 동녘.
- Freire, P. & Macedo, D.(1987). 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Routledge. 허준 역(2014). 문해교육: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 읽기와 세계 읽기. 학이시습.
- Freire, P.(1980). 민중교육론: 제3세계의 시각. 채광석 역, 서울: 한길사.
- Freire, P.(1985). The Politics of Education: Culture, Power and Liberation. 한준상 역(2003), 교육과 정치의식: 문화, 권력 그리고 해방. 한국학술정보.
- Freire, P.(1993). Pedagogy of the City. Continuum.
- Freire, P.(200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남경태 역(2009), 페다고지, 서울: 그린비.
- Freire, P.(2002). 자유의 교육학. 사람대사람 역, 서울: 아침이슬.
- Fromm, Erich(1995). 사랑의 기술. 서울: 하서.
- Fromm, Erich(2007). 소유냐 존재냐. 서울: 까치.
- Fromm, Erich(2022).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장혜경 역, 김영사.
- Glick Schiller, Nina(2003). American Arrivals: Anthropology Engages the New Immigration. School for Advanced Research Press, 99-128.



- Handsfield, L.(2015). Literacy Theory as Practice: Connecting Theory and Instruction in K-12 Classroom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정옥년·허준 역(2020), 문해, 믿음과 편견 그리고 실천. 서울: 학이시습.
- ILO(2003). The scope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1st Session Report.
- IOM(2019). IOM Handbook on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Migrants Vulnerable to Violence, Exploitation and Abuse.
- Johnson, J. M.(2002). In-depth interviewing. In J. F. Gubrium., & J. A. Holstein (eds.). Handbook of interview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03-119.
- Jolliffe, L., Kwan, K. & Yen, G. K.(2010). “Coffee in Vietnam: International Tourist Experiences” in Jolliffe, L.(eds), Coffee Culture, destinations and tourism. Channel View Publications, 89-98.
- Kim, Minjeong(2013). Weaving Women’s Agency into Representations of Marriage Migrant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9(3), 7-41.
- Korczak, J.(2000). 아이들을 변호하라. 송순재·안미현 역, 내일을여는책.
- Kundu, A.(2020). The power of student agency: Looking beyond grit to close the opportunity gap.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 Lankshear, C.(1993). Functional Literacy from a Freirean Point of View. McLaren, P. & Leonard, P.(ed.), Paulo Freire: A Critical Encounter. Routledge.
- Li, P. S.(2010). Chinese entrepreneurship in Canada, in OECD, Open for businesses: Migrant Entrepreneurship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199-211.
- Light, I.(1972). Ethnic Enterprise in America: Business and Welfare among Chinese, Japanese, and Black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lewellyn & Wilson(2003). The controversial role of personality traits in



- entrepreneurial psychology. *Education Trainin*, 45(6), 341–345.
- Longman Dictionaries(1995). *Longman Dictionary of Comtemporany English* (3th Ed). Longman Dictionaries.
- Lugones, M.(1987). Playfulness, “world” -travelling, and loving perception. *Hypatia*, 2(2), 3-19.
- Macedo, D.(1998). ‘Foreword’ , in Freire, *Pedagogy of Freedom: Ethics, Democracy and Civic Courage*. Rowman & Littlefield.
- MacIntyre, Alasdair C.(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d.
- MacIntyre, Alasdair C.(1997).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 Maggi Savin-Baden & Lana Van Niekerk(2007). Narrative Inquiry: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1(3), 459-472.
- Mead, G, H.(1934) *Mind, Self and Society*, ed. C. W. Morri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국역본(2010). 정신, 자아, 사회: 사회적 행동주의자가 분석하는 개인과 사회. 한길사.
- Mesch, G. S.(2003). Language proficiency among new immigrants: The role of human capital and societal conditions: The case of immigrants from the FSU in Israel. *Sociological Perspectives*, 46(1), 41-58.
- Nedelcu, M., & Wyss, M.(2020). Transnational grandparenting: An introduction. *Global Networks*, 20(2), 292-307.
- Patai, Daphne(1988). *Brazilian Women Speak: Contemporary Life Stories*. New Brunswick: Rutgers The Personal Narratives Group.
- Patton, M.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inc.
- Penguin Random House(2015). *Unabridged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 Piper, Nocola & Roces, Mina(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Asia/Pacific/Perspectives)*. Rowman & Littlefield.
- Plaza, D.(2000). Transnational grannies: The changing family responsibilities of elderly African Caribbean-born women resident in Britain. *Social*



- Indicators Research, 51(1), 75-105.
- Portes, Alejandro. and Min Zhou(1996). Self-Employment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2), 219-230.
- Prairie Global Management(2008). *Developing Immigrant Settlement Services: A Guide for Communities*. Government of Manitoba.
- Roberts, P.(2000). Education, Literacy, and Humanization. *사람대사람* 역 (2021), 교육, 문해 그리고 인간화, 빈빈책방.
- Schnaedelbach, Herbert(1987). What is Neo-Aristotelianism?. *Praxis International*, 7(3/4), 225-237.
- Schoukens, P.(2005).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유럽. *국제노동브리프*, 3(4), 4-14.
- Scott, J.(2006). *Documentary Research*. Sage.
- Sennett, Richard(2019). *짓기와 거주하기*. 경기도: 김영사.
- Seol, Dong-Hoon(2018). Changing Korean-Style Name of Marriage Immigrants. *The Segye Daily News*.
- Souralova, A.(2020). Grandparents, kinship ties, and belonging after migration: The perspective of second-generation grandchildren. *Global Networks*, 20(2), 362-379.
- Tajfel, Henri(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5), 96-102.
- Tapal, A., Oren, E., Dar, R., & Eitam, B.(2017). The sense of agency scale: Ameasure of consciously perceived control over one's mind, body, and the immediate environment. *Frontiers in Psychology*, 8, 1-11.
- Thi My Hang Bui, Jurak Kim & Kwon Heo(2023) Making of Vietnamese food in Seoul: forms of capital and the intra-diversity in framing taste and menu. *Food Culture & Society*.
- Thurnwald, R.(1932). The psycholog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4(4), 557-569.
- Weber, P. H. (1922). Discussions: General examinations. *Educational Review*,



63(5). Weisberg, D. S., Keil, F. C., Goodstein, J., Rawson, E., & Gray, J. R. (2008). The seductive allure of neuroscience explanations. *The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0, 470-477. Wertsch, J. V. (1991). *Voices of the mind: A sociocultural approach to mediated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illiams, David R., Yan Yu, James S. Jackson, & Norman B. Anderson(1997). Racial differenc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Socioeconomic status, stress,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3), 335-351.

국가법령센터 <https://law.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

아시아인권문화연대 <https://asiansori.org/entry/>

위키백과 <https://namu.wiki/w/>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https://law.go.kr/>

푸드투데이 <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69043>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415140003793>



## ABSTRACT

### Exploring the Subjectivity of Marriage Migrant Women's self-employed start-up Experience

JeongYeon Nam

Ph.D. Dissertation

Directed by Dr. Youngsoon Kim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bjectiv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who have experienced self-employed start-ups through their narratives and to explore their meaning. Marriage migrant women face various difficulties in the triple whammy of poor Korean communication, foreigners through marriage migration, and women. In particular,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experienced in the workplace not only further doubles their difficulties, reducing their quality of life, but also negatively affecting social integration. Transformative subjectivity emerged in the image of marriage migrant women trying to lead their lives in a better direction by recognizing and reflecting on this reality. By paying attention to the self-employed start-up of marriage migrant women, the researcher tried to explore the narrative that appears in the self-employed start-up experience and derive meaning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formational subjectivity.

The research questions set for this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narrative of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entrepreneurship of marriage migrant women? Second, what is the meaning of the subjectivity expressed in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entrepreneurship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order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entrepreneurship of marriage migrant women, the start-up of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start-up of general women were compared. In addition, we tried to examine the subjectiv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expressed in the process of these experiences in terms of narrative unity in their lives. Narrative inquiry was adopted as a methodology for solving research problems. There are five participants in the study, married immigrant women who have been self-employed for more than three years. Data collection wa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and various data were collected, including researcher notes recording the researcher's feelings and foreground, internal and external photos of self-employed companies, and Internet newspaper articles.

Marriage migrant women's self-starting experiences were explored and described by each research participant as stories before migration, preparation for start-up, and start-up stories. The common experience among the study participants is that they started their own businesses during the COVID-19.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satisfied with the operation of their own self-employed companies and demonstrated their capabilities to the fullest. The operation of self-employed startups by research participants served as an opportunity to present plans and visions for the future. The meaning of subjectivity in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start-ups of marriage migrant women was, first, 'critical consciousness' in which they view the world with critical thinking and have a problem consciousness through self-reflection. Participants in the study went through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awakening the socio-cultural reality that is shaping their lives as the subject of perception and the ability to transform that reality. Second, growth through challenge, practice, and immersion of research participants was found to be a 'life transition'. The freedom gained by running a self-employed startup company motivated me to do what I liked even if it was difficult.

Participants in the study operated self-employed startups, developed professional attitudes and sincerity, and added confidence by fully exercising





their capabilities. Third, it was found to b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at plays a role as an open community and interaction with customers.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customers’ tastes, other-oriented appearances appeared and formed a place of communication with customers from various countries. In addition, as the first immigrants, he became a helpful subject for the people of his hometown and served as a hub for dreaming of solidarity with local residents. Fourth, it is ‘Formation of identity’. Identity is constantly changing according to the social context and individual conditions rather than being fixed. Throughout their lives, humans constantly ask questions about their identity and seek answers. The process of identity formation is when humans give themselves a certain order in the complex relationship surrounding them, and it provides direction for their thoughts and actions.

This study expanded the discussion to transformational subjectivity by assuming marriage migrant women who are outside their rights as minorities as praxis humans who practiced self-starting. Acquiring a certificate of research participants is learning, which is a process of maintaining a critical state of consciousness. Problem recognition, reflection, and practice move in one cycle. All of the study participa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self-employed start-ups, which also stemmed from their competency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self-employed start-ups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mployment and be an alternative to participation in economic life for marriage migrant women. Marriage migrant women’s networks are necessary because they not only secure information about their jobs and various living worlds, but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ir lives. As a result, we hope that the self-employed start-ups of marriage migrant women will spread widely, and we hope that it will be helpful in supporting marriage migrant women’s employment start-ups.

## 부록

### <부록 1>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b>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b>	
연구제목	결혼이주여성의 창업 경험에 나타난 내러티브 탐구
연구 기관/ 부서 및 주소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연구자 성명, 소속 및 연락처	연구책임자: 남정연(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공동연구자: 김영순(사회교육학과 교수)

### 연구참여권유

본 연구자는 귀하에게 [결혼이주여성의 창업 경험에 나타난 내러티브 탐구]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시길 요청합니다. 본 설명문은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의 목적, 내용, 위험(불편감), 이익, 귀하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궁금한 점이나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과 안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여러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정착과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경제적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손기영,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경제 상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 여건과 자녀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양인숙 외, 2011).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 사회관계망 부족, 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경험하며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됩니다(김안나·최승아, 2013; 박능후·선남이, 2010; 박미은 외, 2012; 이은정, 2013; Drever, 2008; Jones, 2012).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재산이나 생활비 등 가족생활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 강화 및 문화활동의 참여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경제적 독립성 확보를 넘어 가족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개선으로 지역사회 및 가족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김병숙 외, 2010; 박명순·박재규, 2011; 박신영, 2017; William and Labonte, 2007).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경제활동 참여



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 대다수가 취업 활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업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측면에 주목하여 그들의 창업 준비 및 과정 그리고 이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창업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미숙련 임시직을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성취감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득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켜 일정 정도 독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조상미, 2019; Browne, 1995).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업창업 경험과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관점에서 문화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연구방법 및 절차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업창업 경험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해당 영업장 현장에 대한 참여관찰과 업주인 연구참여자(심층면담(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은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현장 참여관찰은 약 12주(3달)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주로 인터뷰하는 날 참여관찰을 하게 되며, 인터뷰하기 전이나 인터뷰하는 도중 그리고 인터뷰 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영업 현장에서 참여관찰을 하는 경우 영업 활동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손님의 앞모습이나 옆모습은 사진 및 동영상에 촬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수집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사진과 동영상에서 모두 모자이크 처리할 것입니다. 심층면담은 자영업창업을 위해 준비 단계부터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자와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층면담은 1회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심층면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자영업창업을 하게 된 동기, 해당 영업 과정의 경험, 자영업창업 경험을 통한 개인적, 사회적 변화와 성장,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업창업에 대한 바라는 점 등입니다. 심층면담 시 나눌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녹음되며, 녹음된 내용은 텍스트로 전환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확인을 받은 후 내용과 다르거나 틀린 부분이 없는지 검토와 수정의 단계를 거친 후 연구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거쳐 이용할 것입니다.

<표 1>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

범주		내용
인구통계학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참여자 및 배우자 연령</li> <li>• 출신국가 및 학력</li> <li>• 결혼상태 및 한국 거주기간</li> <li>• 국적취득 여부</li> <li>• 현재 거주지</li> <li>• 한국어 수준</li> <li>• 가족관계</li> </ul>
가족구조 요인		•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가족 및 친인척 유무
경제적 요인		• 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총소득
노동시장환경 요인		• 거주지역의 경제적 특성, 제도적 특성
취업경험	출신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신국에서의 직업 경험</li> <li>• 취업 경로 및 취업 기간</li> </ul>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의 취업 경험 및 취업 경로</li> <li>• 취업교육 이수 여부</li> <li>• 취업 기간</li> <li>• 취업조건</li> <li>• 취업 만족도(애로사항) 등</li> </ul>
가족 지원 및 정부 지원 요인		• 취업에 대한 가족 지원, 정부 지원에 대한 방안
창업 동기		• 창업을 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 창업 준비 및 이후의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 3.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

본 연구에 참여하는 데 대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위험과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경우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브레이크 타임이나 쉬는 날을 이용하여 약속 시간을 잡겠지만, 1-2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이러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연구참여자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연구참여자의 자영창업장, 자택등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면담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심층면담은 1회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총 1-3회 정도 진행됩니다. 심층면담 후 필요한 자료가 더 있을 경우에는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전화나 화상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관찰을 할 때에는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참여관찰을 하기 전 방역 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현장에 참여하며 손님과 연구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조심하겠습니다. 또한 참여관찰을 하던 중 영업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연구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심층면담시에는 소정의 사례비(1회당 3만 원)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4. 연구참여와 중지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만 진행됩니다.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신 후 연구참여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참여에 동의하였지만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연구참여를 끝내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끝낼 수 있으며, 연구자는 연구를 끝내고 싶은 의사



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연구참여를 도중에 끝내더라도 연구참여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시까지 수집된 자료나 정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인간대상연구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질병, 출장 등으로 인해 연구가 정지 및 중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이유를 작성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수집된 자료나 정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연구자 때문에 도중에 연구가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약속한 답례는 전달하겠습니다.

**5. 개인 정보 및 비밀 보장**

연구를 위해 수집된 연구참여자의 자영창업 준비 및 과정 경험 내용 및 개인정보는 박사 학위 논문과 부논문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연구자는 본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연구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결과가 학위논문과 부논문으로 출판된 경우에도 연구참여자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며, 비밀 보호를 위해 모든 연구자료(개인정보, 유전정보, 인체유래물 포함)는 암호화, 익명화하여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보관하겠습니다. 활동자료와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담 자료는 연구자의 개인 사물함에 잠금 장치를 통해 보관하며, 본 자료는 연구자와 공동연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시 녹음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할 것입니다. 연구의 결과가 출판되는 경우 출판물을 연구참여자(희망하는 경우)에게 전달할 계획이고, 연구참여자가 직접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학술연구 정보서비스(www.riss.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연구 관련 문의**

연구 관련 문의는 연구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24시간 연락이 가능합니다. 연구참여자의 안녕 및 권익에 대한 문의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32-860-9158)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귀하께서 연구참여에 동의한다면 아래 부분에 서명을 하십시오.

연구참여자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자 성명		서명		서명일	